

2026학년도

성균관대학교

논술 가이드북

언어 논술

Chapter 01

CONTENTS

2026학년도 성균관대학교 논술전형 안내	06
2026학년도 성균관대학교 논술시험의 특징	11
최근 3개년 논술 출제 핵심 개념 정리	13
출제위원이 말하는 성균관대학교 논술	14
교사가 알려주는 논술시험 대비 요령	18
2025학년도 논술전형 합격자 인터뷰	22
논술시험 실전 Q&A	28
논술시험 유의사항	30

Chapter

02

CONTENTS

1. 모의논술

2026학년도 모의논술 시험	34
2026학년도 모의논술 해설	42
2026학년도 모의논술 출제의도 및 출제방향	55
2026학년도 모의논술 문제 분석	56
2025학년도 모의논술 시험	58
2025학년도 모의논술 해설	66

2. 기출문제

2025학년도 논술시험 기출문제 [언어형 1교시]	78
2025학년도 논술시험 기출문제 해설 [언어형 1교시]	86
2025학년도 논술시험 기출문제 [언어형 2교시]	102
2025학년도 논술시험 기출문제 해설 [언어형 2교시]	110

Chapter

01



2026학년도 성균관대학교 논술전형 안내	06
2026학년도 성균관대학교 논술시험의 특징	11
최근 3개년 논술 출제 핵심 개념 정리	13
출제위원이 말하는 성균관대학교 논술	14
교사가 알려주는 논술시험 대비 요령	18
2025학년도 논술전형 합격자 인터뷰	22
논술시험 실전 Q&A	28
논술시험 유의사항	30

2026학년도 논술전형 안내

지원자격

고교졸업(예정)자*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026년 2월 2학년 수료예정자 중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자 (상급학교 진학대상자) 포함



전형방법

1.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 논술 100 %

※ 수능 최저학력기준 있음

2. 선발방법

수능 최저학력기준 충족자를 대상으로 논술시험 성적 총점 순으로 최종합격자 선발

3. 논술시험 안내

① 평가시간 : 100분

② 평가내용

언어 논술 국어, 사회(역사/도덕 포함), 한국사 - 3문제

수리 논술 수학, 수학 I, 수학 II - 3문제

③ 출제유형

언어 논술

문제 1 요약형

문제 2 평가·설명형

문제 3 논술·논증형

수리 논술

수학개념 유도 가능성 평가

수학 개념 이해도 평가

문제해결 능력 평가 포함

2026학년도 논술위주전형 주요사항

논술위주전형 언어형/수리형 분리선발

- 문·이과 통합 교육에 따라 수험생 선택의 폭 확대

2025학년도	2026학년도
논술우수	논술위주(언어형)/ 논술위주(수리형)

※ 논술위주 언어형 전형과 수리형 전형은 별개의 전형으로, 두 전형간 중복 지원이 가능함

※ 학교폭력 조치 사항 1호의 경우 전형 총점 10점 감점, 2~9호의 경우 0점 처리함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모집단위	모집인원	설치 학부 / 학과
자유전공계열	15	'하단 참고'
글로벌융합학부	4	인공지능융합전공
인문과학계열	38	유학·동양학과,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프랑스어문학과, 중어중문학과, 독어독문학과, 러시아어문학과, 한문학과, 사학과, 철학과, 문헌정보학과
사회과학계열	40	행정학과, 정치외교학과,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사회학과, 사회복지학과, 심리학과, 소비자학과, 아동·청소년학과, 경제학과, 통계학과
경영학과	25	
글로벌리더학부	10	
글로벌경제학과	10	
글로벌경영학과	10	
자연과학계열	5	생명과학과,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식품생명공학과, 바이오메카트로닉스학과, 융합생명공학과
전자전기공학부	5	
공학계열	10	화학공학부, 신소재공학부, 기계공학부, 건설환경공학부, 시스템경영공학과, 나노공학과
소프트웨어학과	5	
건설환경공학부	5	
합계	182	

※ 계열 모집단위 입학생은 교양기초교육을 이수한 후, 2학년 진급 시 모집단위에 설치된 학부/학과를 대상으로 본인의 희망과 1학년 학업성적에 따라 각 입학계열에 설치된 학부/학과에 진입함(설치 학부/학과는 학생정원조정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모집단위	전공 진입 가능 학부/학과
자유전공계열	모든 학부/학과 - 의·약학계열, 사범대학, 예체능계열, 융합과학계열 첨단학과(반도체융합공학과, 양자정보공학과, 에너지학과, 바이오신약·규제과학과), 정원의 계약학과(반도체시스템공학과, 지능형소프트웨어학과, 배터리학과), 건축학과(5년제) 제외

※ 자유전공계열 입학생은 교양기초교육을 이수한 후, 2학년(또는 3학년) 진입 시 본인의 희망과 선수과목 등 해당 학부/학과 진입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진입불가 학부/학과를 제외한 모든 학부/학과에 진입함(학부/학과 진입 기회는 1번 부여되며, 설치 학부/학과는 학생정원조정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수능 필수응시영역 및 최저학력기준

1. 수능 필수응시영역

전 모집단위 국어, 수학, 영어, 탐구(직탐 불가), 한국사

※ 탐구영역은 반드시 2개 과목을 응시해야 함

2. 수능 최저학력기준

모집단위	수능 최저학력기준
글로벌융합학부, 인문과학계열, 사회과학계열, 경영학과, 자연과학계열, 전자전기공학부, 공학계열, 건설환경공학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탐구 5개 영역/과목 중 3개 등급합 6등급 이내
자유전공계열, 글로벌리더학부, 글로벌경제학과, 글로벌경영학과, 소프트웨어학과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탐구 5개 영역/과목 중 3개 등급합 5등급 이내

※ 제2외국어/한문을 탐구영역 1개 과목으로 대체 가능

※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건설환경공학부, 전자전기공학부, 소프트웨어학과 모집단위의 경우 수능 최저학력기준에 수학영역 의무 반영

동점자 처리 방법

1. 논술 우선순위 문항 취득점수 상위자

배점이 높은 문항 > 배점이 동일한 경우 문제 번호가 빠른 문항

2. 학교생활기록부 과목별 석차등급 상위자

수학 > 국어 > 사회/과학 > 영어 > 한국사

※ 비교대상인 대상자는 논술시험 성적에 의한 비교대상인 등급 적용

(2021년 2월 이전 졸업자(고교졸업 후 5년 이상 경과자), 검정고시 출신자, 해외고 졸업자, 반영 교과성적(석차등급)이 없는 자 등)



전형 일정

1. 전체 전형 일정

2025

9

원서접수 : 9. 9.(화) ~ 9. 12.(금) | 10:00 ~ 18:00

서류제출 : 9. 9.(화) ~ 9. 13.(토) | 10:00 ~ 18:00

- 해당자에 한해 우편제출
- 마감일자 등기우편소인 유효

10

논술 시험장 발표 : 10. 28.(화)

- 입학안내 홈페이지에서 개인별 시험장 조회
- 시험장소는 인문사회과학캠퍼스(서울) 또는 자연과학캠퍼스(수원) 중 한 곳에 임의 배정

11

시험일

언어 논술 : 11. 15.(토) | 수리 논술 : 11. 16.(일)

12

최초합격자 발표 : 12. 12.(금) 이전

최초합격자 등록 (온라인 문서등록) : 12. 15.(월) ~ 12. 17.(수) | 10:00 ~ 16:00

추가합격자 발표 : 12. 18.(목) ~ 12. 23.(화) | ~ 18:00

추가합격자 등록 : 12. 18.(목) ~ 12. 24.(수) | ~ 16:00

- 입학안내 홈페이지에서 조회
- 추가합격자는 합격 차수별 지정 기간 내에 등록해야 함

2026

2

합격자 최종등록 (등록금 납부)

2. 3.(화) ~ 2. 5.(목) | ~ 16:00

2. 모집단위별 논술시험 일정



언어 논술

구분	시간	모집단위
1교시	8:30 ~ 10:10 (08:00 입실완료)	자유전공계열, 글로벌경제학과, 글로벌리더학부, 사회과학계열, 건설환경공학부, 공학계열, 전자전기공학부
2교시	13:00 ~ 14:40 (12:30 입실완료)	인문과학계열, 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융합학부, 자연과학계열, 소프트웨어학과

수리 논술

구분	시간	모집단위
1교시	8:30 ~ 10:10 (08:00 입실완료)	글로벌경제학과, 글로벌리더학부, 사회과학계열, 글로벌융합학부, 건설환경공학부, 글로벌바이오메디컬공학과, 반도체시스템공학과, 반도체융합공학과, 소프트웨어학과, 에너지학과, 지능형소프트웨어학과
2교시	13:00 ~ 14:40 (12:30 입실완료)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전자전기공학부
3교시	17:00 ~ 18:40 (16:30 입실완료)	자유전공계열, 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 약학과, 의예과

※ 개인별 시험장 발표 : 2025. 10. 28.(화)

우리대학 입학안내 홈페이지 <https://admission.skku.edu>



시험장소 : 2025.10.28(화) 논술시험장 발표

인문사회과학캠퍼스(서울) 또는 자연과학캠퍼스(수원) 중 한 곳에 임의 배정

※ 수험생이 지원한 모집단위 및 수험번호 순서와 관계없음

준비물 : 수험표, 신분증, 필기구 등(수험생 안내사항(추후 공지 예정) 참조)

2026학년도 논술시험의 특징

논술시험의 특징

1

공교육 기반형

- 공교육 연계
- 일정한 출제 패턴 유지
- 적절한 수준의 난이도

2

자유로운 형식

- 형식보다 내용 중심 평가
- 100분 동안 글자 수 제한 없이 답안 작성

3

제시문 및 자료의 이해와 적용

- 제시문 분석 및 자료 이해
- 비판적 사고에 기반한 문제 해결

4

교육과정 기반

- 국어, 사회(역사/도덕 포함), 한국사 교과 내 출제
- 고등학교 교육과정 기반 출제원칙 준수

논술 문제 유형

1. 요약형

인문학 및 사회과학분야의 주제에 대한 견해 또는 이론을 담은 제시문을 읽고,
핵심 내용을 축약적으로 서술하는 유형

2. 평가·설명형

제시문과 자료를 활용하여 제시문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 견해 모두를 반박하거나
지지하는 글을 쓰는 유형

※ 다양한 자료 및 사례에 대한 해석 포함

3. 논술·논증형

주제와 밀접하게 연관된 현안 혹은 문제 상황의 해결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는 유형

※ 유형1과 유형2에 등장한 제시문, 자료, 사례 활용



논술 평가 항목



- ① 문제해결이 잘 이루어졌는가? ⇒ 50%
- 발문이 요구하는 내용이 답안에 충분히 들어있는가?
- ② 논리적 전개와 구성은 잘 되었는가? ⇒ 20%
- ③ 표현 및 어법 준수 여부 ⇒ 15%
- ④ 창의성 ⇒ 15%

※ 답안의 다양성을 감안할 때 위 ②, ③, ④ 항목 비중은 요구되는 답안 글의 형식, 내용,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026학년도 모의논술 개요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출제	• 2026학년도 모의논술 주제: 기후위기 대응 •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주제 선정 • 제시문: 다양한 자료에서 교과서 내용에 부합하고 고등학생이 충분히 독해할 수 있는 부분을 발췌, 수정 및 통합
전형적인 문제 유형	• 하나의 주제 하에서 3개의 문항이 내용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되는 방식 • 요약형, 평가·설명형, 논술·논증형 등 기존유형 유지
평가내용	• 독해력, 비판 능력, 자료해석 능력, 문제해결 능력, 논리적 서술 능력

최근 3개년 논술 출제 핵심 개념 정리

2025학년도

논술시험

1교시 시민 참여, 시민 불복종, 정치 참여

2교시 예술과 문화의 이해와 감상, 작가의 의도, 문학관, 주관적 해석, 감각적 경험

모의논술

모의논술 세계화

2024학년도

논술시험

1교시 의무론, 결과론, 공리주의, 코로나19, 봉쇄정책, 소수자 차별금지, 윤리적 딜레마

2교시 자유, 권리, 의무, 책임, 사회참여, 공익, 창의성, 다양성, 혁신, 소득분위, 개발, 기후 위기

모의논술

모의논술 불평등

2023학년도

논술시험

1교시 예술지상주의, 심미주의, 도덕주의, 미적 가치, 윤리적 가치, 순수예술론, 참여예술론

2교시 협력, 경쟁, 상호작용, 호혜주의, 효율성

모의논술

모의논술 인간 행위의 이성적 기초 대 감정적 기초,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

출제위원이 말하는 성균관대학교 논술

성균관대학교 논술시험의 특징

성균관대학교 언어형 논술시험은 인문학 및 사회과학 탐구를 위한 기본 소양 및 자질을 갖추었는지 심층적으로 평가합니다. 이를 위해 내신이나 수능 점수로는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 깊이 있고 폭넓은 사고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인문학 및 사회과학의 다양한 글을 읽고 이해하는 문해력과 자료해석 능력, 제시문과 자료를 활용하여 현실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도출하는 능력, 그리고 자신의 주장을 체계적이고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 논리적 서술 능력을 평가합니다. 본고 언어형 논술시험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상적인 학교 교육을 통해 시험 대비가 가능한 '공교육 기반형' 논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항은 교과서의 주관식 탐구활동 문제 수준으로 출제하며, 제시문과 자료도 다양한 출처를 활용하되 교과서의 내용에 부합하는 부분을 선택하여 적절한 난이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둘째, 문항의 주제나 소재를 고교 교육과정 안에서 찾아 활용하는 '교육과정 기반형' 논술입니다.

문항의 주제는 대체로 윤리 및 사회 관련 교과 교육과정에 포함된 내용 중에서 선택하되 인문사회과학 분야 또는 다양한 학문 분야 간의 통합적 접근이 가능한 쟁점을 논제로 구성하여 특정 교과목에 치중되지 않게 출제합니다.

셋째, 단순히 글쓰기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사고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하기 위해 제시문의 분석 및 자료 해석과 이를 활용한 문제 해결에 주목합니다.

이는 학교 현장에서 자기주도적 학습과 교과에 대한 심화 학습을 통해 배양되는 비판적, 창의적 사고력 및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여 고교 교육 정상화 및 학업능력 신장을 선도하기 위함입니다.

넷째, 사고력 평가를 주된 목표로 삼기 때문에 답안의 형식보다는 '문제 해결의 내용'에 주안점을 둡니다.

학생의 사고력과 논리적 서술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답안의 형식이나 분량을 제한하지 않으며 원고지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문제 구성

논술 문제는 하나의 주제 하에서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 세 개의 논제로 구성됩니다.

'요약형'인 [문제 1]은 인문사회과학의 주제에 대한 견해 혹은 이론을 담은 3~4개 정도의 제시문을 읽고, 이를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한 뒤 같은 입장의 제시문을 종합하여 요약하는 문제입니다. 이때 제시문의 요약보다는 각 제시문의 주장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상반된 두 입장의 내용을 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 2]는 [문제 1]에 등장한 두 입장과 관련성이 있는 자료나 사례를 제시하고 [문제 1]의 두 입장에 대해 지지 또는 비판하는 글을 쓰는 '평가형', 제시문에 근거하여 사례나 자료를 상세하게 설명하는 '설명형', 또는 이 양자를 결합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평가형에서는 해당 사례나 자료가 어떤 점에서 제시문의 내용과 상충하는지 또는 어떤 점에서 제시문에 담긴 주장을 지지하는지 명확하고 상세하게 언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형에서는 제시문에 담긴 원리나 이론, 주장이 어떻게 그 현상을 설명하는 토대가 되는지를 최대한 자세하게 밝혀야 합니다.

[문제 3]은 전체 주제와 밀접하게 연관된 현상이나 문제 상황을 주고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나 해결책을 제시하게 하는 '논술·논증형'입니다. 따라서 [문제 1]에 제시된 특수 사례에 적용하여 본인의 선택과 판단의 근거를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생들은 본인의 선택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문제 1]의 해당 제시문과, [문제 2]의 사례 및 자료와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주장의 설득력을 높여야 합니다.

논술시험 고득점 전략

1. 내신과 수능 대비 학습 심화

논술 학습은 각 교과에서 배우는 내용을 총괄하여 다루며, 개별 지식 근처에 놓여있는 보편적이고 원리적인 부분들이 관련되므로 내신과 수능 대비 학습을 심화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언어형 논술은 윤리와 사회 교과안에서 사회적 쟁점을 활용하여 문제를 깊이 있게 분석하고 해결책을 다각도로 모색해 보는 사고 훈련을 진행하면 됩니다. 실제로 논술 문항들은 교과서의 주관식 탐구활동 문제와 흡사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윤리와 사회 교과서의 주관식 문제를 선택하고 변형하여 한 두 단락 정도로 답을 써보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문제들은 대체로 심화 응용문제들이기 때문에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기에 좋은 기회가 됩니다. 교과서의 주관식 문제를 충분히 활용하면 내신과 논술 준비 모두에 효과적입니다.

5. 도표나 그래프 자료 해석

도표나 그래프와 같은 자료를 해석하는 훈련도 필수적입니다. 일차적으로 사회 관련 과목 교과서에 나오는 도표와 그래프를 활용하여 연습하고, 언론 자료를 통해 최근 사회적 쟁점과 관련된 도표나 그래프를 선별하여 그 의미를 읽어내는 훈련을 하면 도움이 됩니다.



2. 읽기 훈련

제시문 독해 능력이 기본이므로 읽기 훈련은 필수입니다. 만약 [문제 1]의 제시문들을 잘못 이해하면 다음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평소 다양한 글을 많이 읽고 문해력을 키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분량이 길고 밀도 있는 글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석하는 훈련에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최근 3~4년 동안 출제된 대학 논술 문제의 제시문을 읽기 훈련의 자료로 활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제시문을 각각 요약해 보고 더 나아가 관점이 같은 복수의 제시문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종합적으로 요약하는 훈련이 중요합니다.

3. 사회 쟁점 정리

최근 한국 사회 또는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된 주요 쟁점들을 정리해 보면 도움이 됩니다. 논술문제가 시사 쟁점을 직접 다루는 경우는 흔치 않지만, 교과 과정에 있는 내용 중에서 최근 중요하게 부각된 사회적 쟁점과 관련된 소재가 선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최근의 주요 사회 쟁점에 대하여 문제 상황, 논쟁 구도, 자신의 입장 등을 정리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4. 논리적 서술 능력 훈련

논리적 서술 능력을 기르는 훈련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한 문단을 견고하게 쓸 수 있는 능력이 기본이므로 한 문단 쓰기 훈련에 노력을 투자해야 합니다. 하나의 결론(중심 문장), 한두 개의 근거(뒷받침 문장), 필요한 만큼의 부연 설명으로 이루어진 한 문단을 밀도 있게 구성하는 훈련이 요구됩니다.

출제위원이 말하는 주의사항

(1) 처음부터 논술 시험 시간에 맞추어 답안 작성 연습을 하는 것은 효과적인 학습 방법이 아닙니다.

일정 기간은 시간에 얽매이지 말고, 다양한 방식으로 고민하고 구성을 시도하면서 자신이 쓸 수 있는 최선의 답안을 써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렇게 내용을 끌어내고 구성하는 과정에서 사고 훈련이 이루어지며 글을 구성하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이후 시험을 앞두고부터는 지원하려는 대학의 시험 시간에 맞춰 글을 쓰면서 실전 연습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기출문제라는 훌륭한 지침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다른 곳에 더 좋은 자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훈련 자료는 역시 기출문제입니다. 우선, 최근 4~5년 간의 기출문제를 모두 풀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학 홈페이지에 소개된 기출문제와 해설, 모의논술 문제 등을 꼭 참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남는다면 여러 대학의 기출 문제도 꾸준히 풀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기출문제는 어느 대학이건 출제위원단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문제들이므로 연습 문제로서 최상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3) 모의논술 문제를 혼자서 풀어보는 데에만 그치면 안 됩니다.

답을 쓰고 난 뒤에는 교사나 선배 등으로부터 평가를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혼자서 계속 글을 쓰고, 스스로 고쳐나가는 것만으로도 논술 실력은 향상됩니다. 그러나 전문가나 논술 유경험자로부터 평가를 받아보면 더 빠르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평가를 받아보기에 적절한 사람이 없을 때는 친구끼리 모여 같은 주제로 글을 쓴 뒤 이를 돌려 읽고 토론했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떤 방식이든 본인의 답에 대한 평가를 받았다면 이를 반영해서 같은 논제에 대해 다시 한번 써보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평가받는 과정에서 지적된 감점 요인을 줄이기 위해서는 복습 글쓰기가 필요합니다.

(4) 시험 현장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선 자기가 지망하는 대학이 정해놓은 분량, 문제 형식 그리고 시험 기간에 맞추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자기가 논술 답안을 작성할 그 시간에 매일 글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글쓰기는 사고 활동에 기반한 언어 활동이기 때문에 매일 밤늦게 글을 쓰다가 갑자기 오전에 쓰려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본인이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답안을 작성할 때 가장 유의할 점은 쓰고 싶은 대로 쓰기 전에 쓰라는 대로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문제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한 답안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문제의 초점에서 어긋나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물었는데 국가권력이나 사람들의 본성에 관해 자신의 평소 생각만을 정확하게 적으면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주어진 물음에 맞게 본인의 입장을 정하고 이를 핵심 주장을 담은 주제문으로 명료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사가 알려주는 논술시험 대비 요령

퇴계원고등학교 김주현

저현고등학교 박지인

논술은 학교에서 여러 교과목의 수행평가로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익숙한 평가 방식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학생이 논술 준비를 부담스러워하고, 글쓰기 실력이 있어야만 도전할 수 있는 전형이라며 미리 포기하기도 합니다. 또한 수리 논술이나 과학 논술과 달리 인문계열의 언어형 논술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해서 사교육 없이 대비하기 어렵다는 부담감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논술전형은 시험 출제 범위를 제대로 이해하고 출제 유형을 파악한다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전형입니다. 특히 성균관대학교 논술시험의 기출 문항을 살펴보면 일관성 있는 출제 경향을 유지하면서 출제 범위를 명확히 하고 3개의 문항으로 정형화된 유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제 선정과 제시문 구성 또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충실합니다. 지금부터 성균관대학교 논술시험의 출제 범위와 유형을 파악해 보고 효과적인 논술 준비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제 범위,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기본!

성균관대학교의 기출 문항을 살펴보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벗어난 내용이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이는 공교육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공교육정상화법(약칭)」을 충실히 따른 결과입니다. 대학의 논술시험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수준의 내용을 다룰 수 없으며, 고등학교에서 다루는 개념과 이론들이 출제 범위가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제시문이 전공 서적이거나 논문, 사설 등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생소한 내용으로 출제되었더라도 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논술 전형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내의 내용 요소에 대한 학습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성균관대학교 언어형 논술 문제는 도덕과 및 사회과 내용 요소들이 다수 등장하므로 통합사회,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등의 교과목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각 내용 요소를 정리하여 글로 표현하는 형태의 학습이 필요합니다.

유형을 파악하면 백전백승!

성균관대학교 논술의 유형은 [문제 1]-요약형 문항, [문제 2]-자료평가형 문항, [문제 3]-논술허문형으로 정형화 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출제 기조는 일관성 있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문제1 요약형 문항

여러 개의 제시문을 상반된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

문제2 평가·설명형 문항

주로 주로 통계를 보여주는 그래프나 표 등의 자료를 제시한 후 이를 분석하여 각각 [문제 1]의 어느 입장을 지지하는지를 설명

문제3 논술·논증형 문항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나 상황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 입장을 [문제 1]의 제시문과 [문제 2]의 자료를 활용하여 정당화

[문제 1]은 여러 개의 제시문을 상반된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는 것입니다. [문제 1]에 활용되는 다양한 제시문들은 교과서 외의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어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를 관통하는 상반된 입장은 교육과정 내의 요소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편 [문제 1]은 제시문을 상반된 입장으로 분류하는 것 외에 각 입장을 요약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때 제시문의 내용을 활용하여 입장을 요약해야 하는데, 제시문의 내용을 그대로 활용하기보다 같은 입장의 제시문들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면서 통합적으로 입장을 정리하여 제시하는 것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문제 2]는 주로 통계를 보여주는 그래프나 표 등의 자료를 제시한 후 이를 해석하여 각각 [문제 1]의 어느 입장을 지지하는지 설명하도록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프나 표의 수치를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각 주에 제시된 내용까지 꼼꼼히 읽어 자료가 의미하는 바를 분명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의미 없는 자료를 제시하는 경우는 없으므로 자료의 모든 항목을 활용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문제 3]은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나 상황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 입장을 [문제 1]의 제시문과 [문제 2]의 자료를 활용해 정당화하는 문제입니다. 주의할 점은 두 입장을 종합하여 조화를 추구하기보다 오직 하나의 입장을 선택해서 정당화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문제 1]의 제시문과 [문제 2]의 자료를 활용해 하나의 입장에서 일관성 있게 근거를 제시하며 글의 논리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창의적인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불완전한 지식이나 주관적 해석이 반영된 정보를 제시하는 것을 경계해야 하며 주어진 제시문과 자료를 충분히 활용해 근거를 확보하고 설득력 있는 글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논술시험 대비전략 전격공개!

준비전략 1 교육과정에 충실히 임하는 것이 중요

성균관대학교 논술은 매년 고등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주제를 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모의논술 주제인 기후위기 관련 문제 역시 교과서에서 자주 다루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제시문에 등장한 녹색성장, 노자 사상, 기후정의 등은 통합사회와 생활과 윤리 등의 과목에서 이미 학습한 개념입니다. 또한 교과서의 '날개'나 '탐구활동' 코너에 실린 사회적 이슈들도 논술 주제로 연결되기 좋습니다. 아무리 제시문이 길고 어렵게 보여도, 교과서에서 다룬 주제에 익숙한 학생일수록 핵심 논지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교과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개념이 사회적 쟁점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준비전략 2 심도 있는 자료해석 능력이 변별의 포인트

[문제 2]는 자료 해석을 통한 입장 옹호를 요구합니다. 문제의 자료는 단순히 특정 입장을 지지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 어떤 관점에서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자료 1>(빙하두께 및 기술 성숙도)은 기술의 발전만으로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해 양측 입장을 모두 지지할 수 있는 근거로 사용 가능합니다. 이런 자료를 잘 해석하려면, 각 지표가 의미하는 바를 스스로 추론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범례와 주석을 꼼꼼히 읽고 제시문과 연결했을 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생각해보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나아가, 여러 개의 자료를 통합적으로 해석해 새로운 의미를 도출하는 훈련도 중요합니다. 다양한 형태로 표현된 자료를 많이 접해볼 필요가 있는데, 사회과 여러 과목에서 자료를 탐구할 수 있습니다. 수능 기술 문항 등에서 그래프나 표를 활용한 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자료해석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준비전략 3 사회 이슈에 대한 의견 정리를 습관화하기

[문제 3] 유형은 현실에서 논의되는 정책이나 쟁점에 대해 찬반을 정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항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제시문이나 자료를 단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관점을 설득력 있게 전개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평소 사회적 쟁점에 대해 자신만의 생각을 정리해 보고, 찬반 논리 구조를 구성해 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특히 '논거 → 반박 예상 → 재반박' 구조로 입장을 정리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제시문과 자료를 논리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이 핵심이므로, 글쓰기 연습도 중요하지만 논리적 사고 훈련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준비전략 4 학교생활과 논술 준비는 멀리 있지 않다

논술 준비에서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 점은, 성균관대 논술은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학교 자율교육과정 시간이나 수업 중 주제 심화 탐구활동 등을 잘 활용하면 충분히 대비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학교에서 탐구 보고서를 작성하고 발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학술 논문, 도서, 기사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위해서는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공신력있는 자료를 활용해야 하는데, 이는 곧 [문제 2]와 [문제 3]에 필요한 자료해석 능력과 논증력을 동시에 기르는 훈련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학교 수업에서 학습하고 탐구한 내용을 가볍게 넘기지 않고, 주제와 개념을 실천적으로 연결해 보려는 태도입니다.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사회적 이슈에 대한 나만의 생각을 정리하는 훈련을 평소에 조금씩만 해두어도 논술은 한층 가까워집니다. 막연해 보이던 논술도 교육과정 안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논술은 결국 '배운 내용을 스스로 해석하고 정리하는 힘'을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학습한 개념을 현실 문제에 적용해 보는 연습부터 시작해 보세요.



2025학년도 논술전형 합격자 인터뷰

인문과학계열 **최민영**

사회과학계열 **김단비**

1 논술전형으로 지원하게 된 이유와 논술전형에 적합한 자신의 강점은 무엇이었나요?

최민영 저는 비교적 학구열이 높은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친구들과 즐겁게 공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성적에 대한 부담이 컸어요. 그래서 학생부로 잘 드러내지 못한 제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논술전형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논술전형에 적합하다고 생각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어요. 첫째는 글쓰기에 대한 친숙함이에요. 초등학교 시절 우연히 전국 글쓰기 대회에 참가해 입상한 경험을 계기로 제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글쓰기에 대한 두려움도 극복할 수 있었어요. 둘째는 표현력이에요. 논술에서는 제한된 시간 안에 제시문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확하고 논리적인 문장을 빠르게 작성해 나가는 능력이 중요한데, 저는 이 과정에 익숙했던 것 같아요. 특히 평소에도 글을 자주 쓰며 문장을 다듬고,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려고 노력했던 점이 제 강점이었다고 생각해요.

김단비 저는 논술전형이 제가 끝까지 최선을 다함으로써 결과를 바꾸어 낼 수 있는 전형이라고 생각했기에 논술전형으로 성균관대학교에 지원했습니다. 저는 내신 성적이 아주 나쁘지는 않았지만, 목표였던 성균관대학교를 지원하기에는 다소 부족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부를 이용하는 다른 전형으로 성균관대학교에 상향지원을 하고, 그저 운이 좋기를 바라며 결과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마지막까지 제 손으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제게 더 잘 맞는 방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침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많이 읽은 덕분에 독해 속도가 빠른 편이기도 했고, 글을 읽고 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큰 강점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와 같은 저의 성향이 논술을 준비하는 과정에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2 본인이 성균관대학교 논술전형에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최민영 제가 논술전형에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대학에서 요구하는 모범답안의 형식을 충실히 따르려고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1번 문제에서는 제시문의 핵심 개념을 정확히 파악한 뒤, 이를 기준으로 제시문들을 두 가지로 분류하고 각 제시문 간의 관계를 비교하는 방식이 요구되었는데, 저는 이런 구조를 따르려고 했어요. 또한 2번 문제에서는 주어진 자료를 제시문의 핵심 개념과 연결해서 논리적으로 해석하려고 애썼고, 특히 그래프에 담긴 수치의 의미를 제시문의 구체적인 문장과 연관지어 정밀하게 분석하려고 노력했어요.

마지막으로 3번 문제도 학교에서 제시한 모범답안 형식에 맞춰 반복 연습했던 것이 실제 시험에서 큰 도움이 되었어요. 아울러 세 문제 모두 답안지 끝까지 빠곡하게 제 생각을 논리적으로 채워 쓴 것도 합격의 비결이었다고 생각해요.

김단비 성균관대학교 논술전형 기출 문제의 예시 답안과 해설을 보고 꼼꼼하게 분석하여 실전에서 적용한 것이 합격에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성균관대학교 논술 문제는 일정한 유형을 유지해 출제되는 경향이 있어, 기출을 통해 효과적인 연습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10개년 모의논술과 기출문제를 모두 풀어보면서 유형과 기본적인 틀을 익히고자 노력했습니다. 세부사항에는 매년 차이점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일정한 틀을 갖추어 출제되다 보니 이러한 분석이 효과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더불어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한 것도 합격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3 언제부터 논술전형을 준비했고, 어떤 방법(공부법)으로 논술전형을 준비했나요?

최민영 학교에서 논술 가이드북 인터뷰 요청을 받았을 때, 한동안 망설였던 이유는 '과연 내가 인터뷰 대상으로 적합할까?'라는 걱정 때문이었어요. 사실 저는 수능에서 지구과학과 생명과학을 선택한 이과생이었거든요. 고등학교 내내 적성에 맞지 않는 과학 과목을 공부하면서 내적 갈등이 컸던 저는, 부모님과 상의한 끝에 대학 전공만큼은 제가 좋아하는 인문학을 선택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논술전형 준비도 9월 모의고사를 치른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고요. 제가 인터뷰 요청을 수락하게 된 이유도, 어쩌면 저처럼 '이과생이라 인문 논술전형에 불리한 건 아닐까', '너무 늦게 시작한 것은 아닐까'라고 고민하는 수험생들에게 조금이나마 용기를 주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준비기간이 짧았던 만큼, 제가 선택한 공부법은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반복해서 글을 써보는 것이었어요. 논술학원을 다녀본 적이 없던 제게 가장 좋은 선생님은 다름 아닌 '기출문제'였어요. 특히 성균관대학교 논술 가이드북은 다른 대학에 비해 출제 유형과 모범답안이 훨씬 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가이드북을 꼼꼼하게 읽어보실 것을 권하고 싶어요. 아울러 모든 시험이 그렇듯, 논술에도 정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출제자의 관점에서 세 문제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를 파악하는 데 집중했어요. 그 핵심 개념을 기준으로 제시문을 분류하고, 각 제시문의 요지를 논리적으로 요약하고 정리하는 연습을 많이 했어요. 가령, 제시문 1, 2와 제시문 3, 4로 나누어 비교할 때도, 제시문 1과 2의 연관성까지도 고려하여 입체적으로 요약하려고 노력했어요. 2번 문제를 풀 때는 주어진 모든 자료와 수치를 최대한 활용하려고 애썼고, 자료 해석의 근거가 되는 문장을 제시문 안에서 찾아내는 데 집중했어요. 마지막으로 3번 문제에서는 제시문과 자료를 논리적으로 연결하여 글을 작성하되, 제 주장에 대한 반론까지 미리 예상하고 이를 반박하는 방식으로 글을 구성했어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성균관대학교 논술은 글자 수 제한이 없지만 저는 연습할 때 문제당 1,000자 정도를 기준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많이 쓴 날은 하루에 만 자 가까이 쓰기도 했던 것 같아요. 기출문제에 충분히 익숙해지고, 글을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다 보면, 여러분도 꼭 합격할 수 있을 거예요.

김단비 저는 고등학교 3학년 7월부터 논술전형을 준비했습니다. 시작이 늦은 편이어서 더 치밀하게 준비하고자 노력했던 것 같아요. 공부법은 크게 필사와 재풀이, 문항별 반복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주어진 문제를 시간을 재며 한 번 풀어보고, 예시 답안과 채점 기준을 보며 채점했습니다. 그런 다음 예시 답안을 필사하면서 제 답안과 비교해 보고, 부족한 점을 찾아 원고지 한 귀퉁이에 적어둔 뒤, 해당 문제의 답안을 처음부터 다시 작성하면서 부족했던 부분을 보충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약 10개년 분량의 기출을 풀이하며 기본적인 구조와 틀을 익혔던 것 같아요. 또 처음 성균관대학교 논술 문제를 접했을 때, 자료와 지문의 유기적인 해석과 세부 설명을 요하는 2번 문항이 너무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출의 2번 문항만 따로 모아 풀이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는 비단 2번에 한정된 것은 아니고, 1번 문항과 3번 문항도 일정 기간 반복하면서 유형을 익혔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문제의 틀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에 이와 같은 방법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반복하다 보니 어느새 문항에 익숙해져 새로이 푸는 기출이나 모의 논술에서도 어렵지 않게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4 내신, 논술, 수능 등 다른 전형 준비 역시 병행해야 했을텐데, 부족한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던 방법을 알려주세요!

최민영 저는 개인의 문장력에 따라 논술 준비기간도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만약 문장을 정확하게 쓰고 논리적으로 글을 전개하는 데 익숙하다면, 1주일에 4시간 정도 투자해 자신이 지원하는 대학의 기출문제 한 세트를 풀어보는 방식으로 준비하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왜냐하면 논술 못지않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글쓰기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라면, 무엇보다도 문법에 어긋나지 않는 올바른 문장을 쓰는 연습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따라서 1, 2학년 때부터 시간을 투자해 기본적인 문장력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문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기출문제의 모범답안을 따라 써보거나, 수능 비문학 제시문을 필사하면서 문장의 구조와 전개 방식을 익히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문장력이 뒷받침된다면, 이후에는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논술 준비가 가능할 거예요.

김단비 저는 논술 공부를 매일 1시간 내외로 한다고 정해두고 수능 공부와 병행했습니다. 대입에 필요한 내신 시험을 모두 마친 후에 논술을 시작했기 때문에 내신 공부는 필요하지 않았으나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논술 시험에 응시해 아무리 좋은 답안을 써내도 합격할 수 없고, 수사에서 좋지 못한 결과를 받을 상황도 고려해야 했기에 수능 성적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평일과 토요일까지는 수능 공부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일요일은 논술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다만 논술도 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매일 조금이라도 논술 공부를 했는데, 이를테면 월, 수, 금에는 하루 공부를 시작하고 마칠 때 학교 예시 답안을 필사했고 화, 목, 토에는 필사와 더불어 답안 재작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수능 공부를 위한 시간을 많이 빼앗기지 않으면서도 논술에 대한 감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일요일은 논술에 좀 더 비중을 두어 기출을 풀거나 오답을 하는 등의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하다보면 어떤 과목에서든 시간은 부족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 이때 균형을 잘 맞추어 시간을 배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 성균관대학교의 모의논술이 실제 논술시험 준비에 도움이 되었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최민영 성균관대학교 모의논술은 실제 논술 시험에 큰 도움이 되었어요. 다른 대학들의 모의논술은 유형이나 난이도 면에서 실제 시험과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았지만, 성균관대학교 모의논술은 실제 출제 경향과 매우 유사해서 실전 감각을 익히는 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과거 기출문제뿐만 아니라 매년 실시된 모의논술도 함께 풀어보며 시험을 준비할 수 있었어요.

김단비 많은 도움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학교에서 원하는 방향의 문제를 미리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균관대학교 모의논술은 실제 시험과 같은 형식으로 출제되는 편인데, 모의논술에 대한 교수님의 강평 영상이 입학처 유튜브에 업로드됩니다. 이를 통해 문제 해설, 채점 기준과 학교가 생각하는 좋은 답안 작성 포인트에 대해 알 수 있었고 이를 연습과 실전 답안 작성 시 참고함으로써 많은 도움을 받았습다.

6 논술시험 당일, 어떤 마음가짐으로 시험에 임했나요?

최민영 목요일에 수능을 보고, 금요일에는 하루 종일 성균관대학교 기출문제를 풀었어요. 수능 준비로 잠시 잊고 있던 글쓰기 감각을 되찾고, 성균관대학교의 논술 유형을 복기하느라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였죠. 새벽까지 글을 쓰다가 손목에 파스를 붙인 채 잠들었는데,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이제 정말 시험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니 긴장감이 확 밀려오더라고요. 두렵고 초조한 마음으로 시험 시간보다 일찍 학교에 도착한 저는, 조용한 곳에서 기출문제를 읽을 요량으로 명륜당 쪽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뜻밖에도, 너무나도 아름답게 물든 거대한 은행나무를 마주한 거예요. 계절의 흐름도 잊은 채 1년을 보낸 제게, 노란빛으로 물든 은행나무는 마치 제게 따스한 위안을 주는 것 같았어요. 은행나무 곁에서 산들산들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며 기출문제를 읽으니 요동치는 제 마음도 어느새 평온해지고 이곳에서 공부하고 싶다는 간절함이 생기더라고요. 덕분에 저는 차분한 마음으로 시험장에 들어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날의 고즈넉한 풍경이 눈앞에 선명히 떠오르곤 해요. 11월의 명륜당과 그 앞의 은행나무는 정말 아름다워요.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 잠시 그곳에 들러 마음을 다잡아 보시길 추천해 드려요.

김단비 저는 불안하거나 긴장될 때 평소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편이라, 잘해야겠다는 다짐보다도 마음을 비우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수능 하루 뒤에 바로 논술 시험이 있어서 성균관대학교 논술이 수시 고사 첫 시작이었는데 고사장 가는 길과 고사장 내에서 계속 아직 나에게 남은 기회가 많다고 되뇌었습니다. 사실 그다지 기회가 많은 상황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을 한 덕분에 시험지를 받았을 때 지나치게 긴장하지 않고 문제를 잘 풀어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시험 직전에는 제가 이전에 잘 풀어냈던 기출 답안을 읽으면서 제가 거쳐왔던 시간들을 믿어보자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조금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자신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7 논술시험을 마치고 느꼈던 부분에 대해 생생하게 작성해주세요.

최민영 세 문제를 꼼꼼하게 작성하기에 100분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빠듯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인지, 논술 시험을 마친 순간, 주어진 시간 안에 답안지를 꼭 채웠다는 사실만으로도 스스로에게 만족할 수 있었어요. 그 안도감 덕분인지 시험장을 나설 때 발걸음이 무척 가벼웠던 기억이 나요. 아쉬움도, 후회도 없었고요. 다만, 시험장을 나서자마자 마주한 어마어마한 인파가 치열한 경쟁률을 실감 나게 했고, 그래서인지 솔직히 합격을 기대하진 않았어요. Eltern 집에 가서 다음 날 마지막으로 치를 논술을 준비해야겠다는 생각만 들었던 것 같아요.

김단비 시험을 볼 때는 제시문 내용들이 흥미로워서 개인적으로 꽤 즐겁게 풀었고, 긴장할 새도 없이 몰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히려 고사장에 들어갈 때보다 고사장을 나오면서 꼭 성균관대학교에 입학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시험을 마치고 나오니 입실 때엔 너무 긴장해서 잘 보이지 않았던 학교의 예쁜 풍경들도 보였고, 유생복을 입고 응원해 주시는 선배님들의 응원을 들으니 야기 유생이 되어 캠퍼스에 다시 오고 싶어졌어요. 그렇지만 고사장 내외에 수험생들이 너무 많아서 과연 이 높은 경쟁률을 뚫고 합격할 수 있을지 불안한 마음이 컸던 기억이 납니다. 다만 시험에서 분명 아쉬운 부분이 있었음에도 그 자리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답안을 내고 나왔다고 생각해서 결과가 어떻게 받아들여졌다고 생각했습니다.

8 성균관대학교 논술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논술전형 준비를 위한 전략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최민영 성균관대학교 논술의 가장 큰 특징은 성균관대만의 고유한 문제 유형을 오랜 기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만큼 타 대학에 비해 풀어볼 수 있는 기출문제도 풍부하고, 유형도 일정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연습하면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성균관대 논술전형 준비를 위한 전략 포인트는 무엇보다도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문제의 유형을 체득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울러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맞추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생각보다 많은 학생이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해요. 따라서 논술과 수능 공부를 균형 있게 병행하며 철저히 잘 준비하시길 바라요.

김단비 성균관대학교 논술의 특징은 연습을 통해 형식을 익힐 수 있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접했을 때는 자료나 제시문이 복잡하고 길다고 느낄 수 있으나, 몇 번 풀이하며 익숙해지면 형식이 크게 이전 기출에서 벗어나지 않기에 적응하고 좋은 답안을 적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 학교에서 제시하는 채점 기준을 상세히 보면, 수험생에게 요구하는 바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기에 이러한 기준을 잘 고려하며 연습하면 충분히 실력을 기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주 나오는 개념은 정리해서 알아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회탐구 과목으로 윤리, 사회문화를 택하지 않아서 가끔 생소한 개념이 나올 때가 있었는데 나왔던 개념을 노트에 따로 정리해 두고 시간이 날 때마다 복습한 것이 도움이 되기도 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최저학력기준입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아무리 논술 공부를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기에, 수능 공부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9 마지막으로 성균관대학교 논술전형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응원과 격려의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최민영 제가 합격생 후기를 쓰게 된 이유는, 논술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조금이나마 용기와 희망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과생이었고 사탐 과목을 따로 공부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회문화나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같은 과목에서 다루는 개념이 제시문으로 출제되었을 때,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까 봐 걱정이 많았어요. 하지만 실제 논술 시험에서는 배경지식보다는 제시문 간의 관계를 얼마나 정확하게 읽어내고, 주어진 자료를 얼마나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따라서 이과생이어서, 배경지식이 부족하다고 해서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결국 중요한 건, 자신이 얼마나 성실하게, 그리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준비했느냐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충분히 해낼 수 있어요. 경쟁률은 그저 숫자에 불과해요. 그 숫자를 녹일 수 있는 건 여러분의 열정과 끈기라고 믿어요. 지금껏 정말 수고 많았어요. 좋은 결과 있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파이팅!

김단비 논술전형은 경쟁률도 높고, 그만큼 합격에 확신을 갖기 어려운 전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논술을 준비한다는 사실을 주변에 잘 알리지 않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치밀하게 준비하고 노력하면 누구든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입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얻어갈 것도 많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입시를 모두 마친 상태이니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저도 막막함과 불안함에 매일 저 자신을 의심했습니다.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야 어떤 결과를 마주하더라도 후회가 남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제보다 오늘 하나씩만 더 나아지자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던 것 같아요. 준비 과정에서 지레 겁먹고 불안해하기보다 당장 할 수 있는 노력을 하며 하루를 보내다 보면 모두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도 힘껏 애쓰고 계실 여러분의 모든 순간과 매일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논술시험 실전 Q&A



Q.1

논술문제 제시문은
어떤 과정을 통해
선정되나요?

A 출제의 기본 범위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교과서를 살펴서 수험생의 사고력, 문제 해결력, 서술력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주제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교과서를 포함한 여러 자료를 검토해서 이런 주제에 관한 질문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제시문들을 구성하게 됩니다. 인문계 제시문의 경우, 독서나 경험의 폭이 좁은 학생들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으나 정확한 독해 능력을 갖춘 학생이라면 제시문이 담고 있는 핵심 주제를 간파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2

출제할 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A 첫째는 논술의 주제와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용과의 연관성입니다. 둘째는 제시문들의 가독성입니다. 이 두 요건은 우리 대학에서 강조하고 있는 출제 목표인 '정상적인 학교 교육을 통해 대비 가능한 논술시험'을 위해서 마련된 것입니다. 셋째는 수험생들의 대학 수학능력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변별력 있는 문항의 출제입니다. 이 점은 바로 우리 대학의 두 번째 문항의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험생의 창의성을 평가해 보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통상 세 번째 문항을 통해 반영되는 포인트로, 수험생 나름의 견해 혹은 해결책을 창의적으로 모색하여 서술할 수 있도록, '열린 문제(Open-Question)'의 형태로 출제됩니다.

Q.3

성균관대 논술을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요?

A ① 모의논술, 기출문제 풀이로 논술 준비하기
올해 모의논술과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수험생들이 논술 준비를 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모의논술을 풀어보면서 당해의 논술문제 방향에 적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출문제를 풀 때엔 문제가 요구하는 내용에 맞게 글을 쓰는 연습을 하면 좋습니다. 이를 위해 이 가이드북에 수록된 '문항별 해설'이나 '답안 작성 포인트'를 잘 살펴보고 글을 써 보시기 바랍니다.

② 교과서 본문 외 탐구활동, 읽기자료 살펴보기

다양한 사회 교과서의 교과서들은 본문 외에 탐구활동 또는 읽기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주제에 관한 심화 학습을 유도하기 위해서이지요. 그리고 그 내용은 많은 경우 본문의 주제를 현실에 적용하는 것 또는 본문 주제에 관한 심화 읽기 자료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를 간과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으나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절대 그러서는 안 됩니다. 이 가이드북에 수록된 최근 기출문제의 주제를 살펴보면 그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4

답안 작성 시
피해야 할 점이나
실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A ① 핵심 내용 비켜 가기

출제자가 요구하는 핵심 내용이 빠져 있는 답안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경우 아무리 글을 잘 써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논술시험은 답(필요한 내용)이 있는 글쓰기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② 사족 덧붙여 억지로 분량 늘리기

문제 해결력과 비판적 사고력 등을 평가하는 데에 있어 분량의 많고 적음은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수사적인 글쓰기에 익숙한 학생들이나, 분량을 채워야 한다는 압박을 느낀 일부 학생들은 간단하고 명료하게 문제 해결의 과정을 바르게 서술한 것에 만족하지 않고 분량 늘리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창의적인 내용이라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사족을 덧붙인 셈이 되어 본인이 쓴 답안의 전체적인 논지를 흐리는 우를 범하게 되고, 결국 감점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③ 불완전한 답안 작성

제한된 100분의 시간 동안 답안을 충분히 작성하지 못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경우는 충분히 실력을 갖추었음에도 사소한 실수로 기회를 날려 버리는 학생들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답안지를 깨끗하게 작성하려는 강박입니다. 잘못 쓴 부분을 무리하게 지우개로 지우다가 답안지를 찢거나, 자신의 논지가 마음에 들지 않아 새로 답안지를 받아서 작성하는 경우도 자칫 제한된 시간에 답안을 완성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100분은 처음 보는 제시문을 이해하고 요구하는 답을 쓰기에 넉넉한 시간이 아닙니다. 따라서 시간 안배를 잘해야 하고, 작성한 답안 중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두 줄을 그어 수정한 것임을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약간 지저분한 것이 쓰다 만 것보다 좋습니다.

Q.5

답안의 내용 외에
글씨체, 맞춤법,
띄어쓰기도
채점에 영향을
미치나요?

A 실질적인 답안의 내용 외에 채점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참고로 성균관대학교는 줄노트 형식의 답안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수험생들이 띄어쓰기 문제로 원고지 답안 작성에 부담을 느낄 수 있으나 성균관대학교는 줄노트 형식의 답안지가 제공되므로 답안 내용에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맞춤법 및 띄어쓰기는 기본적인 소양이니 평소에 잘 훈련해 두는 것이 좋겠지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문제에서 요구한 내용을 조리 있게 서술하는 것입니다. 글씨체는 크게 중요하지 않으나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써야 합니다. 그리고 답안을 작성하다 중간에 필기도구를 바꿔서는 안 되니 처음에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안 작성 후 훑어보고 필요한 부분은 답안에 직접 퇴고해도 됩니다. 이 경우 역시 고친 내용을 알아볼 수 있게만 작성하면 문제가 되지 않으니 퇴고를 망설이지 마세요. 시험 전에 퇴고에 필요한 기본적인 교정 부호를 익혀 둔다면 보다 깔끔한 답안을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이 가이드 북 뒤에 첨부된 실전용 답안지로 연습하면서 실전 감각을 키워 보세요.

논술시험 유의사항



시험 장소 및 시험 시간 확인하기



- ① 2025년 10월 28일(화) 우리대학 입학안내 홈페이지
<https://admission.skku.edu> 에 이름과 수험번호를 입력하여 확인합니다.
- ② 시험 장소는 언어형/수리형 상관없이 인문사회과학캠퍼스(서울) 또는
자연과학캠퍼스(수원)로 임의 지정됩니다.
시험 장소까지 교통수단, 소요시간도 미리 체크해 두세요.

준비물 확인



- ①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등이 시험장에서 인정되는 신분증입니다.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으면 시험을 볼 수 없으니 꼭 챙기세요.
*학생증은 성명, 생년월일, 사진이 모두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
- ② 필기 도구
볼펜, 연필, 플러스펜, 샤프펜슬 등 본인이 원하는 것으로 준비하되, 흑색 필기도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답안 작성 중 필기 도구 종류 변경은 불가하오니 동일한 필기구를 여유 있게 준비하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 ③ 수정 도구
지우개는 사용 가능하지만 수정액 또는 수정테이프는 사용 불가합니다.



시험 당일

시험 당일 여유 있게 출발



- ❶ 입실 완료 시간까지 시험장에 들어가지 않으면 논술시험 응시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❷ 교통 체증, 배탈, 지하철 연착 등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여 꼭 여유 있게 출발하도록 합니다.
- ❸ 소요 시간을 예상할 때는 시험을 치르게 될 건물이나 교실까지 찾아가는 시간도 염두에 두도록 합니다.

대중교통 이용



- ❶ 논술시험 당일 시험장 안으로는 차량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 ❷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정해진 시간 안에 도착하도록 합니다.

답안 작성 시 유의사항



- ❶ 제시된 문제 순서대로 번호를 매겨 답안을 작성합니다.
- ❷ 학교에서 제공한 문제지와 답안지 이외에는 어떤 연습지도 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❸ 글자 수 제한은 없지만 문항마다 정해진 답안 영역 안에서만 작성이 가능합니다.
- ❹ 답안지에는 꼭 답안만 작성하세요. 답안과 관계없는 내용이나 표시는 어떠한 것도 하면 안 됩니다.
- ❺ 시험이 종료되면 문제지와 답안지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시험장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 없습니다.
- ❻ 답안 작성을 끝낸 학생들도 시험이 종료되기 전에는 시험장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Chapter 02



1. 모의논술

2026학년도 모의논술 시험	34
2026학년도 모의논술 해설	42
2026학년도 모의논술 출제의도 및 출제방향	55
2026학년도 모의논술 문제 분석	56
2025학년도 모의논술 시험	58
2025학년도 모의논술 해설	66

2. 기출문제

2025학년도 논술시험 기출문제 [언어형 1교시]	78
2025학년도 논술시험 기출문제 해설 [언어형 1교시]	86
2025학년도 논술시험 기출문제 [언어형 2교시]	102
2025학년도 논술시험 기출문제 해설 [언어형 2교시]	110

2026학년도 모의논술 논술시험(언어 논술)

모집단위		전형유형	
수험번호		성명	

답안작성 유의사항

- 가. 시험 시간은 100분이며, 문제별 답안은 반드시 문제별로 해당되는 답안 작성영역에 작성해야 합니다.(문제번호와 답안번호는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 나. 문제별로 해당되는 답안 작성영역에 다른 문제의 답안을 작성한 경우 평가하지 않습니다.
- 다. 답안은 지정된 작성영역 내에 작성해야 하며, 지정된 작성영역을 초과하여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 라. 답안 작성영역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적사항을 기재하면 안됩니다. 인적사항(성명, 서명 등) 또는 답안과 관계없는 표기를 하는 경우 결격처리 될 수 있습니다.
- 마. 흑색 필기구를 사용해야 합니다.(연필·샤프 사용가능, 답안작성 중 필기구 종류 또는 색상 변경 불가)
- 바. 답안 수정 시에는 취소선을 긋거나 지우개로 지워야 하며 수정액이나 수정테이프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사. 답안지 전면 상단에 본인의 인적사항(모집단위, 수험번호, 성명 등)을 기재하고, 감독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문제 1

<제시문 1> ~ <제시문 4>는 기후위기에 관한 다양한 견해를 담고 있다. 제시문들을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시오. (40점)

<제시문 1>

경제위기 국면에서는 환경 보호와 관련된 정책적 필요가 순식간에 사치로 전락한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경제의 동력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경기부양책을 써야겠다는 충동이 일어나곤 한다. 하지만 환경과 개발이라는 두 목표가 반드시 상충하는 것은 아니라는 인식이 점점 우세해지고 있다. 즉 이 둘은 조화될 수 있고, 조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녹색성장(Green Growth)'이라는 용어는 2005년 국제연합 아시아태평양 환경개발장관회의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저개발국들이 선진국들의 산업화 단계를 거치지 않고 경제성장 단계에서부터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이것을 '녹색성장 전략'이라고 불렀다. 개발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증가로 나타난 환경 위기는 오랫동안 모든 국가가 해결해야 할 고민거리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국은 지구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면서 경제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국가성장 발전 전략이 필요했으며, 그 일환으로 녹색성장이라는 개념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녹색성장이란 저탄소화 및 녹색산업화에 기반을 두고 경제성장력을 증대시키는 신성장 개념으로, 기술로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전제로 한다. 여기서 저탄소화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서 지구의 기후 및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다. 그리고 녹색산업화란 녹색기술과 친환경 사업을 통해 신시장을 창출함으로써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것이다. 녹색산업화는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되고, 좋은 일자리를 늘리며, 빈곤을 종식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과학기술의 힘을 빌려 저탄소 개발을 추구하는 녹색성장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모든 인간은 기본적인 필요가 충족된 상태로 살 수 있고, 존엄성을 인정받으며,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을 추구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타인이 현재나 미래에 그것과 동일한 것을 누릴 능력도 박탈당하지 않을 수 있다. 이처럼 녹색성장은 '만인을 위한 지속 가능한 번영'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 전략이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녹색성장을 기반으로 한 신재생 에너지 산업 분야가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한다. 이를 반영하듯, 선진 국가들은 신재생에너지 기술과 녹색기술을 바탕으로 한 녹색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다양한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의 의견처럼, 과거에는 에너지 전쟁이 누가 석유 자원을 확보하느냐 하는 싸움이었던 것과 대조적으로 녹색성장 시대의 에너지 전쟁에서 승패는 누가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먼저 개발하느냐에 달려 있다.

<제시문 2>

노자는 <도덕경>에서 기술에 대한 맹신과 인위적 조작이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고 지적하며 “장차 천하를 취하고자 도모하지만, 나는 그 얻지 못함을 볼 뿐이도다”라고 하였다. 천변만화하는 세상의 변화와 그 속에서 생멸하는 인간의 역사를 돌아보면, 하늘까지 오를 듯한 높은 건물로 가득한 화려한 문명은 영원토록 지속될 것 같지만 결국 인간의 욕심은 자연을 한순간에 피폐한 황무지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 기후 위기에 대처하는 문제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인간의 기술로 세상이 영원히 평화롭게 발전할 것만 같지만, 자연과 역사의 흐름은 어떤 경우에도 영속을 허락하지 않는다. 기후위기를 맞이한 학자들도 뒤늦게 이 사실을 직시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이나 녹색성장이 아닌 탈성장을 본격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했다. 세계 경제가 장기 침체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인류가 새로운 방식으로 공존과 번영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최근 50년간 거둬 온 고성장 추세를 더 이상 기대하기는 어렵다. 혹시라도 무리하게 성장에 매진했다가는 재앙을 맞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지난 수 세기 동안의 맹목적 성장 추구가 초래한 기후변화와 경제 양극화 같은 부작용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에서 성장의 한계를 처음 거론한 것은 1968년 발족한 비영리 연구기관 ‘로마클럽’이었다. 출범 4년 만인 1972년, 로마클럽은 경제 성장과 환경의 관계를 설명한 연구보고서인 <성장의 한계>를 발표하면서 자본주의 체제의 성장 신화에 물음표를 던졌다. <성장의 한계>는 인류가 그간의 성장 방식을 고수한다면 자원 고갈과 환경 파괴로 인해 100년 이내에 경제 성장이 멈출 것이라고 경고했다. 성장 신화를 향한 로마클럽의 경고는 국제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지만, 이미 폭주기관차처럼 달리고 있던 성장 담론을 멈춰 세울 수는 없었다. 보고서가 발간된 뒤 50년 가까이 세계 경제는 성장 지상주의를 고수하며 더 빠른 속도로 몸집을 불려 왔다. 그러나 최근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의회가 개최한 ‘성장을 넘어’라는 학회에서는 150명이 넘는 전문가가 모여 인류가 계속 번영하려면 성장 이외의 방식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참석자들은 50년 전에 비해 상황이 훨씬 더 악화했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지속 가능한 성장 방식으로 여겼던 녹색성장 역시 지구 환경을 해칠 수 있어서 미래의 대안이 되기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몇십 년 동안 우리는 녹색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성장을 지속하는 동시에 환경을 더 오염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었지만, 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성장을 추구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는 것이 확실해졌을 뿐만 아니라, 인류와 다른 많은 종의 생존을 위협에 빠뜨리고,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결국 21세기에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탈탄소화’와 ‘탈물질화’라는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미래에 지구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친환경 기술을 확대하는 것 외에 소비 자체를 줄여야 하는 것이다.

<제시문 3>

모든 생태계가 무너지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그 와중에도 전 세계 부유층은 계속해서 부를 축적하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인류와 지구를 착취하고 있다. 사실 이 둘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 기후 붕괴와 불평등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온실가스 배출과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해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 세계 인구의 가장 부유한 1%는 소득 하위 3분의 2에 해당하는 인구가 배출하는 양만큼의 탄소를 배출하고 있다. 이들은 호화로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지구의 자원을 탈취하고 있다. 전용기를 타고 짧은 여행을 다녀오면 일반인이 1년 동안 배출하는 탄소보다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한다. 그들은 탐욕의 제단에서 우리를 희생시키고 있다. 한국의 경우, 2019년 기준 소득 하위 50%는 평균 7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했다. 소득 상위 1%의 180톤에 비하면 약 26분의 1 수준이다. 인구 대국인 인도에서는 2015~2016년 도시 최상위 부유층이 최빈층보다 13.3배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했다. 즉 기후위기를 일으키는 온실가스는 부자들의 호화로운 삶을 위해서 배출되고 있는 것이다.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이 이처럼 부유층에 집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는 오히려 사회적으로 더 취약한 계층에게 가혹하게 돌아간다. 옥스팜이 발표한 보고서 <기후 평등: 99%를 위한 지구>는 기후위기를 초래하는 데 가장 적게 기여한 사람들이 가장 큰 고통을 받는 불합리한 현실을 잘 보여준다. 기후위기에 가장 크게 기여한 사람들이 가장 적은 고통을 겪는 것이다. 부유층은 자신들이 초래한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들은 혹서기에 에어컨이 설치된 여러 채의 집으로 대피할 수도 있고, 자기 재산을 피해로부터 보호할 다양한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 반면 기후위기의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은 부자들의 과소비가 낳은 가뭄과 홍수, 지독한 더위를 피할 길이 없다. 부와 권력을 지닌 사람들은 어떤 생명은 다른 생명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스스로 확신한다. 그들에게 자기 이외 다른 생명은 중요하지 않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기후위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기후위기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기도 하다. 나는 국제연합, 세계경제포럼, 글로벌 기후협상 등 전 세계 권력이 모이는 자리에서 맨 앞줄에 앉을 기회가 있었다. 이곳에서 나는 지구를 파괴하는 사람들, 기후위기의 핵심에 있는 사람들, 화석연료에 막대한 투자를 한 사람들, 가장 큰 부를 누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존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눈으로 직접 확인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위기가 심화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문제 해결을 위해 이들에게 의존해야만 하는 것일까? 그들은 인간과 지구보다 탐욕과 단기적인 이익을 우선시하는 모습을 수없이 보여왔는데 왜 그들이 문제 해결의 주체여야 하는 것인가? 어쩌면 이 때문에 기후위기 해결에 진전이 없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이 불평등을 끝내야 한다. 그리고 기술 개발과 이른바 친환경적 성장론으로는 이 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현재 인류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대로라면, 21세기 말까지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3.2도 상승할 것이고 이는 재앙을 초래할 것이다. 지구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막으려면 선택해야 한다. 모든 미래 세대를 위해 기술 개발과 성장에 대한 맹신을 즉시 버리고 환경을 보호하느냐, 아니면 소수의 부자가 파괴적인 생활 방식을 유지하고 단기적인 경제 성장과 이익에 초점을 맞춘 경제 체제를 유지하도록 내버려두느냐의 문제이다. 우리는 이 위기의 원인에 대해 각성해야 한다. 우리 사회의 운영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와야 한다. 유한한 지구에서 무한한 성장을 추구하는 것을 이제는 중단해야 한다. 기후위기에 더 큰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더 큰 대가를 치르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지구와 인류를 우선시하는 평등한 사회로의 전환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제시문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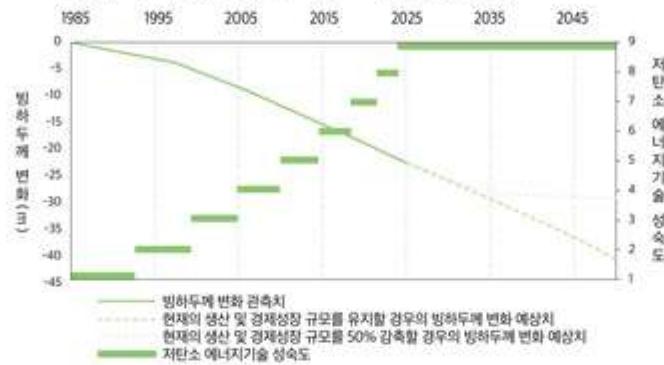
2015년 파리기후협약에서 전 세계 국가들은 지구 평균 온도를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상 오르지 않도록 유지하는 데 합의했다. 일상생활에서 1.5도 차는 미미해 보일 수 있지만, 지구라는 큰 환경에서는 기상 이변을 초래할 수 있는 막대한 차이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에 따르면, 지구 온도가 1.5도 상승할 경우 극한 고온 현상이 8.6배 증가하고 집중호우나 가뭄의 횟수도 최고 2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기후변화가 생물 멸종을 가속시켜 결국 지구 생태계가 모조리 파괴되리라는 어두운 전망도 있다. 탄소를 배출하지 않고는 인류 문명이 존속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하면 전망은 더 어둡다. 2022년 이집트에서 개최된 제27차 국제연합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는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노력을 촉구하는 한편, 기후위기를 새로운 과학기술로 극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재차 강조되었다. 특히 2050년까지 목표한 글로벌 탄소배출 감축분 중 50%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기술을 뛰어넘는 획기적인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다.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전문가들의 지적과 같은 맥락에서, 선진국들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과 신시장 선점을 목표로 다양한 전략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결국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기술혁신에서 찾아야 한다.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인 온실가스 감축의 경우, 전문가들은 신재생에너지 및 원자력 등을 활용해 무탄소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술, 산업·건물·수송 분야의 에너지시스템을 히트콤이나 전기차처럼 전기화하는 기술, 전기화가 어려운 탄소배출 연료를 수소나 바이오매스 등으로 대체하는 기술, 그리고 각종 에너지 소비효율 향상 기술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온실가스를 포집해 저장 또는 다른 유용한 물질로 전환하거나 산림·해양 등을 통해 흡수하는 기술, 마지막으로 현재 개별적으로 운용되는 열·전기 에너지를 통합하고 연계하여 에너지 공급·수요 체계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기술도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전 지구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발생하고 있는 초강력 태풍, 호우, 폭염, 한파, 폭설 등 이상기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술 개발도 반드시 필요하다. 예를 들면, 기후변화에 맞서 생태계와 산림의 건강성을 증진하고 해수면 상승 등에 따른 해양 및 연안의 취약성에 선제 대응함으로써 생태계 회복력을 강화하는 기술, 아열대성 기후로의 변화로 신종 감염병이 증가하고 경작지 변화 등이 예상되는 가운데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기술, 그리고 도시 송전탑 등 인공구조물의 기후변화 적응성을 높이고 건전한 물 순환 체계를 마련하는 기후적응형 도시 인프라를 구현하는 기술 등이다. 이미 전세계적으로 이상기후가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 되돌릴 수는 없기 때문에, 혁신적인 기술을 통해 이상기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적응하는 것은 어찌 보면 거의 유일한 대안일 수 있다. 이에 더해 혁신생태계 조성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과제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여러모로 불편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라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지구를 살리면서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능케 하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음을 국민과 사회가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기후기술에 대한 사람들의 수용성을 높이고, 기술-인재-산업의 선순환 발전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기후위기는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범지구적 흐름이 되고 있다. 선진국뿐 아니라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을 포함한 전 세계 137개 국가가 탄소중립을 선언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단지 아껴 쓰고 줄이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과감한 기술혁신으로 세계적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신성장동력 창출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문제 2

지구의 빙하두께 변화 및 저탄소 에너지기술 성숙도를 보여주는 <자료 1>과 저탄소 에너지기술 투자 성과 지표에 보여주는 <자료 2>, 소득계층별 기후위기 관련 지표를 보여주는 <자료 3>을 활용하여 [문제 1]의 두 입장을 각각 옹호하시오. (40점)

자료 1

1985년 이후 빙하두께 변화¹⁾ 및 저탄소 에너지기술 성숙도²⁾



주1) 1985년 빙하두께를 기준점(0)으로 연도별 빙하두께 비교

주2) 저탄소 에너지기술 성숙도: 저탄소 에너지기술의 개발단계를 1(기초)~9(완성) 단계로 구분한 지표

자료 2

2024년 기준 선진경제국과 개발도상국의 저탄소 에너지기술 투자 성과 지표³⁾

지표	선진경제국	개발도상국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중 저탄소 에너지기술 투자 비율(%)	15.7	0.3
저탄소 에너지기술 특허출원 건수(인구 만 명당)	2.3	0.001
저탄소 에너지기술 투자 대비 탄소배출 감축량(천톤CO ₂ /1억USD)	26.3	4.8
저탄소 에너지기술의 GDP 성장 기여도(%) ⁴⁾	10	0.1
화석연료 대비 저탄소 에너지 사용 비율(%)	40	7
저탄소 에너지기술의 순해외 기술이전 건수 ⁵⁾	+194	-1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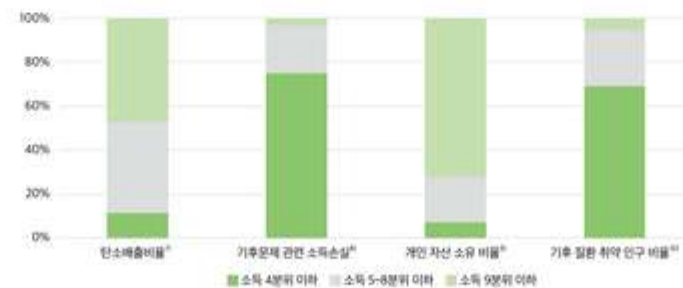
주3) 전세계 190개국 가운데 40개 선진경제국의 평균과 100개 개발도상국의 평균을 비교함

주4) 저탄소 에너지기술 관련 산업이 GDP 성장에 기여한 정도

주5) (해외로 이전된 총 공급 건수) - (해외로부터 이전받은 총 수혜 건수)

자료 3

2024년 기준 소득계층별⁶⁾ 기후위기 관련 지표



주6) 소득을 기준으로 전 세계 인구를 1~10분위로 구분한 것으로 1분위는 최하위 10%를 나타냄

주7) 전 세계 탄소배출량을 100으로 환산했을 때 각 소득계층에서 배출한 탄소량의 비율을 나타냄

주8)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홍수 등의 피해로 발생한 총 소득손실을 100으로 환산했을 때 각 소득계층이 차지하는 소득손실의 비율을 나타냄

주9) 전 세계 개인 자산을 100으로 환산했을 때 각 소득계층이 소유한 자산의 비율을 나타냄

주10) 기후변화로 인한 온열/한랭/감염질환에 취약한 인구 전체 중 소득계층별 해당 인구의 비율을 나타냄

문제 3

아래 제시된 정책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입장 중 오직 하나를 선택하고, [문제 1]의 제시문과 [문제 2]의 자료를 모두 활용하여 본인의 선택을 정당화하시오. (20점)

세계 190개국이 참여하는 국제기구에서 탄소중립 기술의 발전과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새로운 정책을 논의 중이다. 이 정책의 주요 내용은 각 국가가 탄소배출량에 비례하여 부담금을 지불하고, 이를 탄소중립 기술의 연구 개발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Blank lined paper for writing.

2026학년도 모의논술

해설(언어 논술)

2026학년도 모의논술 개요

2026학년도 모의논술(언어형)은 우리 대학 202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전형 문제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서 수험생이 자신의 논리적 사고능력과 창의성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출제하였다. 그리고 하나의 주제 아래 3개의 문항을 배치하여 문해력과 분류요약 능력, 자료평가 및 사례활용과 비판 능력, 논술·논증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하였다.

2026학년도 모의논술 역시 우리 대학의 이전 논술시험과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핵심 사항으로 고려하여 출제하였다. 또한 전년도 우리 대학의 논술고사와 일관되게, 수험생이 고등학교 교육을 충실히 이수하여 학습한 내용을 현실의 사회문제와 연결해 통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 있다. 논술문제의 전체 주제인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방법으로서의 기술낙관론과 기술비관론'은 고등학교 <통합 사회>에서 상세하게 다루어지고 있고 관련 내용이 <생활과 윤리> 교과에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따라 성실하게 공부한 학생에게는 익숙한 주제이다. 또한 이 문제는 전 지구적으로 중요한 쟁점이기도 하므로, 논술고사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친숙하게 느끼는 주제라고 판단하였다.

문제 1 [문제 1]의 제시문은 유관분야 학자의 저서와 언론 기고문 등 다양한 자료 중에서 고등학교 교과서의 내용과 수준에 부합하는 부분을 발췌하였으며, 문제 의도에 맞게 출제진이 수정하거나 통합하여 구성하였다.

각 제시문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제시문 1> 월드위치연구소, 『2012 지구환경보고서: 지속가능한 개발에서 지속가능한 번영으로』,

박준식, 추선영 역, 도요새, 2012, pp. 48-51.

<제시문 2> 김석진, 산성수, 『주역으로 보는 도덕경』, 대학서림, 2005, pp. 120-124;

왕방웅, 『노자: 생명의 철학』, 천병돈 역, 작은이야기, 2007, pp. 30-31;

강향신문, 이창준 기자, 경향포럼 <“수십년 믿어온 녹색상장은 불가능”...탈성장을 모색하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306052103015>

<제시문 3> 그레타 툰베리, 옥스팜 보고서 『기후 평등: 99%를 위한 지구』, 2023년 11월

<제시문 4> <“기후변화, 이젠 과학기술 혁신으로 대응한다”>, 경제정책해설 2023년 2월호

문제 2 [문제 2]의 자료 역시 고등학교 교과과정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이 자료를 활용하여 [문제 1]의 두 입장을 각각 옹호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이 자료를 통해 추론한 바를 [문제 1]의 두 입장과 논리적, 체계적으로 연결해 논의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문제 3 [문제 3]은 [문제 1]에 제시된 두 가지 입장의 주요 논지와 [문제 2]의 자료를 모두 활용하여 현실의 구체적 쟁점에 대해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자 하였다.

평가항목과 문항별 배점

우리 대학의 논술시험은 텍스트에 대한 독해력, 자료 이해와 비판 능력, 그리고 논술·논증 능력을 평가해 왔다. 대학 논술시험의 기본 취지가 달라지지 않는 한 이러한 방향성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평가항목



※ 답안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위의 항목 ②, ③, ④의 비중은 답안의 형식,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문항별 배점



채점등급별 점수

구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문제 1, 문제 2	40점	32점	24점	16점	8점	0점
문제 3	20점	16점	12점	8점	4점	0점

문제 1

<제시문 1> ~ <제시문 4>는 기후위기에 관한 다양한 견해를 담고 있다. 제시문들을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시오.

채점지침



[문제 1]은 제시문의 내용을 파악하여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한 다음, 각 입장의 논지를 서술하라는 문제이다. 좋은 답안 작성의 포인트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방법에 관한 다양한 관점의 중심 주장과 근거를 정확하게 포착하여 '친환경 기술 개발로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녹색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보는 기술낙관론적 입장'과 '기술 개발로는 기후위기 및 기후불평등을 해결할 수 없고 탈성장'이 필요하다고 보는 기술비관론적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에 속한 제시문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요약문을 작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반된 두 입장의 내용을 해당 제시문들의 주장을 포괄하여 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제시문 각각의 내용을 요약했다라도 이를 종합하여 상반된 두 입장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지 못한다면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 제시문의 난이도는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영역 지문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여 수험생들의 정확한 분류 및 요약 능력을 측정하고자 했다.

[문제 1]의 <제시문 1>과 <제시문 4>는 친환경 기술과 녹색성장을 중심으로 기술낙관론을 피력하고 있다. 반면 <제시문 2>와 <제시문 3>은 기술만능주의와 성장중심주의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기술 개발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기후불평등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해당 주제는 전 세계적 기후위기, 과학기술과 문명, 경제성장과 탈성장, 불평등 등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교과서에 등장하는 친숙한 내용이므로 기본적인 독해 능력을 갖춘 학생이라면 어렵지 않게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제시문을 분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 입장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 제시문의 논지를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제시문 1>과 <제시문 4>는 기후위기 대응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수단으로 기술 발전과 녹색성장을 강조하며 기술낙관론적 관점을 공유한다. 그러나 그 접근의 출발점, 초점, 전개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제시문 1>은 녹색성장 개념의 기원과 철학을 중심으로 기술낙관론을 전개한다. 녹색성장은 단순한 환경 보호가 아니라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으로, 특히 저탄소화와 녹색산업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번영을 추구한다. 이 개념은 개발도상국도 산업화의 부산물인 환경오염 없이 성장할 수 있다는 희망을 내포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와 친환경 기술이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전제를 기반으로 한다. 녹색성장은 빈곤 해소와 고용 창출, 그리고 인간의 존엄과 행복을 추구하는 포괄적 이상을 내포한다는 점에서 기술을 통해 인간의 삶 전반을 개선할 수 있다는 도덕적 낙관주의를 함께 담고 있다. 반면 <제시문 4>는 긴박한 위기의식에서 기술의 역할을 강조한다. 파리기후협약과 IPCC 보고서를 근거로 기후위기의 현실과 그 심각성을 강조한 후, 이를 돌파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서의 기술혁신을 부각하고 있다. 특히 기존 기술로는 기후위기 대응에 한계가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이상기후 적응을 위한 첨단기술의 개발이 필수적임을 역설한다. 이 제시문에서 기술은 단지 성장을 견인하는 수단을 넘어서, 인류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대응수단으로 등장한다. 동시에 기술-인재-산업의 선순환을 위한 사회적 수용성 확보와 혁신생태계 조성의 필요성도 강조된다. 요컨대 두 제시문은 모두 과학기술이 기후위기 해결의 핵심이며,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술낙관론을 공유한다. 그러나 <제시문 1>이 개념의 정당성과 희망적 가능성을 중심으로 한 전략적·윤리적 낙관론인 반면, <제시문 4>는 현실적 위기 대응과 과학기술 중심의 실행 전략

을 강조하는 실천적·기술중심 낙관론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녹색성장의 철학적 기반과 사회적 가치를 조명하는 데 방점을 두며, 후자는 기술 구체성과 실행 로드맵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의 실효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상호보완적인 관점을 형성하고 있다.

<제시문 2>와 <제시문 3>은 친환경 기술이나 녹색성장에 대한 기술낙관론을 비판하면서, 성장 지상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통해 탈성장과 기후 정의를 강조하는 기술비관론의 입장을 공유한다. 이 제시문들은 특히 친환경 기술로도 해결할 수 없는 기후불평등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단순한 기술적 해결책이 아닌 사회 구조의 근본적 전환을 주장한다. <제시문 2>는 노자의 철학을 인용하며 인간의 기술에 대한 맹신과 인위적 개입이 초래하는 한계를 지적하는 데서 출발한다. 노자는 기술로 천하를 다스리고자 하는 시도가 궁극적으로 실패로 귀결된다고 경고하며, 인간의 삶은 자연과 조화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사상은 현대 탈성장론과 연결된다. <제시문 2>는 녹색성장조차 결국 기존의 성장 담론에 기반한 것이며, 환경과 자원의 유한성, 경제적 양극화, 기후 재앙의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술혁신을 통한 성장의 지속은 환상이며 오히려 소비의 절제와 탈물질화, 성장 이외의 삶의 방식을 적극적으로 탐색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이에 비해 <제시문 3>은 사회적 정의의 관점에서 기후위기 문제에 접근한다. 이 제시문의 핵심은 기후위기와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연계성에 관한 논의이다.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하는 소수의 부유층은 기후위기에 큰 책임이 있으면서도 그 피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자원을 갖춘 반면, 다수의 빈곤층은 책임이 적음에도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는 구조에 대한 윤리적 분노가 중심이다. 기술낙관론은 이러한 불평등 구조를 해결하지 못하며, 오히려 기후위기의 책임자들이 기후정책 결정권자로 군림하는 역설적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이 제시문은 단순한 기술 개발이나 녹색성장론이 아니라, 기후위기의 원인에 대한 구조적 각성, 즉 기득권의 소비 패턴과 경제 체제 전반의 재구성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두 제시문은 공통적으로 기술에 대한 회의와 녹색성장의 한계를 지적하며, 성장 중심 패러다임의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두 제시문은 강조점에서 차이가 있다. <제시문 2>는 철학적 성찰과 생태적 자각을 통해 기술중심주의를 비판하고 탈성장을 생태적 필연성으로 제시하는 반면, <제시문 3>은 불평등의 윤리적 문제를 중심으로 기술 개발 담론을 비판하고 기후위기 해법의 주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정치적·사회적 각성을 요구한다. 요컨대 <제시문 2>는 '기술로는 생태계의 자정 능력을 대체할 수 없으며, 진정한 지속 가능성은 비성장적 삶에서 비롯된다'는 생태 중심 기술비관론을, <제시문 3>은 '기후위기의 원인을 제공한 계층이 해결의 주체가 되어선 안 되며, 기술은 불평등을 해소하지 못한다'는 정의 중심 기술비관론을 전개하고 있다. 두 관점 모두 현 기후위기의 핵심은 기술 부족이 아니라 인간 사회의 체제적 문제라는 인식을 공유하며, 탈성장과 정의로운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공통된 결론으로 향한다.

이처럼 각 제시문의 입장 및 중심 논지를 정확하게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같은 입장으로 분류한 제시문들을 하나의 통일된 글로 요약, 정리한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논지 정리 과정에서 같은 입장으로 분류된 제시문 사이의 논점 차이까지 고려하여 글을 작성한다면 우수한 답안이라 할 수 있다.



채점등급

- A** 제시문을 올바르게 분류하고, 각 입장에 속하는 제시문들 간의 차이점까지 고려하면서 두 입장의 주요 논지를 잘 분석하여 기술한 답안
- B** 제시문을 올바르게 분류하고 두 입장의 주요 논지를 잘 분석하여 기술하고 있으나, 제시문 간의 차이점을 효과적으로 부각하지 못한 답안
- C** 제시문 분류는 올바르게 하였으며 각 제시문에 대한 요약은 적절하게 이루어졌으나, 이를 종합한 두 입장의 주요 논지가 충실히 기술되지 않은 답안
- D** 제시문 분류는 잘못했으나 두 입장의 주요 논지 서술은 어느 정도 이루어진 답안
- E** 제시문 분류에도 실패하고 두 입장의 주요 논지 서술도 충실히 하지 않은 답안
- F** E 등급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답안

문제 2

지구의 빙하두께 변화 및 저탄소 에너지기술 성숙도를 보여주는 <자료 1>과 저탄소 에너지기술 투자 성과 지표를 보여주는 <자료 2>, 소득계층별 기후위기 관련 지표를 보여주는 <자료 3>을 활용하여 [문제 1]의 두 입장을 각각 옹호하시오.

재점지침



[문제 2]에서는 제시된 두 자료를 근거로 [문제 1]의 두 입장을 각각 옹호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두 자료를 기후위기에 관한 [문제 1]의 상반된 두 가지 견해에 따라 해석하고 각 자료를 근거로 [문제 1]의 두 입장을 각각 옹호할 수 있어야 한다.

문제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료 1>과 <자료 2>를 해석하고 각 자료의 내용이 [문제 1]에 등장한 상반된 두 입장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추론해야 한다. <자료 1>은 1985년 이후 지구의 빙하두께 변화와 저탄소 에너지기술 성숙도를 하나의 그래프에서 보여주고 있다. 먼저 이 자료에서 1985년 이후의 지구 빙하두께가 어떻게 변화해왔으며, 현재의 생산과 경제성장의 규모를 유지하였을 경우와 50% 감축하였을 경우 각각 빙하두께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한 예상치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1985년 이후 빙하두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현재의 생산 및 경제성장 규모가 유지될 경우 감소추세가 지속됨을 알 수 있다. 반면 현재의 생산 및 경제성장 규모를 50% 감축할 경우 빙하두께는 2040년 정도부터 거의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저탄소 에너지기술 성숙도는 1985년 기초단계에서 시작하여 점차 기술의 성숙도가 상승함을 알 수 있으며, 기술성숙도의 단계 상승에 소요되는 기간은 점점 짧아져 2024년 경 최고 수준의 기술성숙도를 달성하였다. 그래프에 나타난 현상과 예측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저탄소 에너지기술이 완성단계에 이른 이후에도 현재의 생산과 경제성장 규모를 유지한다면 빙하두께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에서 저탄소 에너지기술이 발전함에도 불구하고 지구온난화가 지속됨을 알 수 있다.

<자료 2>는 2024년 기준 국가 경제 수준별 에너지기술 투자 및 성과 지표를 보여준다. 이 자료를 통해 선진경제국과 개발도상국의 에너지기술 발전 수준이 다르며, 에너지기술 발전을 통한 탄소배출 감축과 경제성장의 효과 역시 다르다는 점에서 국가 경제 수준에 따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기술적 접근에 격차가 있음을 파악해야 한다.

먼저 저탄소 에너지기술에 대한 투자와 발전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를 보면, 선진경제국은 정부 연구 개발 예산 중 15.7%를 저탄소 에너지기술에 투입하고 있으나, 개발도상국은 0.3%에 불과하여 약 50배에 이르는 차이를 보인다. 또한 인구 만 명당 특허출원 건수는 선진경제국이 2.3건, 개발도상국이 0.001건으로 2,000배 이상의 차이를 나타낸다. 이를 통해 국가 경제 수준에 따라 저탄소 에너지기술에 대한 정부의 투자 규모에서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구대비 특허출원 건수는 투자 규모 차이에 비해 더 큰 격차가 보임을 알 수 있다. 저탄소 에너지기술 투자 대비 탄소배출 감축량을 살펴보면, 선진경제국과 개발도상국은 절대적인 투자 규모의 차이뿐만 아니라 에너지기술 투자 대비 탄소배출 감축 효율에서도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또한 저탄소 에너지기술 관련 산업이 GDP 성장에 기여한 정도를 살펴보면, 개발도상국의 경우 저탄소 에너지기술 관련 산업이 GDP 성장에 0.1% 수준인 반면, 선진경제국의 경우 저탄소 에너지기술을 통해 10%의 GDP 성장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탄소감축과 경제성장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한편, 선진경제국은 활발한 기술이전 성과를 보이고 개발도상국은 기술이전의 수혜국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선진경제국은 화석연료 대비 저탄소 에너지 사용비율이 40%에 달하는 반면 개발도상국은

7% 수준으로 여전히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구조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선진경제국의 발전된 저탄소 에너지기술이 개발도상국으로 활발하게 이전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저탄소 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지 못하였음을 추론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낮은 저탄소 에너지기술 투자 비중과 특허출원 건수를 고려할 때 향후 기후위기에 대응함에 있어 개발도상국이 기술주권을 가지지 못하는 종속적 상태에 머무르게 될 가능성을 추론할 수 있다. 이는 국가 경제 수준별 기술 수준의 단순한 차이를 넘어 향후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하는 단계에서부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에 중대한 격차가 있음을 의미한다.

<자료 3>은 2024년 기준 소득계층별 기후위기 관련 지표를 보여준다. 전 세계 탄소배출량을 100으로 환산했을 때 각 소득계층에서 배출한 탄소량의 비율을 살펴보면, 소득 상위 20%가 전체 탄소배출량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소득 하위 40%는 약 10% 정도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소득 수준에 따라 탄소배출 정도에 차이가 존재함을 시사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홍수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총 소득손실을 100으로 환산했을 때 소득손실의 비율 역시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소득 하위 40% 계층이 전체 소득손실의 약 75%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상위 20% 계층은 약 5%를 차지한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이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충격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추론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개인의 자산 소유 비율을 살펴보면, 전 세계 자산의 약 75%는 상위 20% 계층이 소유하고 있으며 하위 40%는 약 5% 수준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를 통해 소득뿐만 아니라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에 대응하거나 복구할 수 있는 자산 기반에서도 계층 간 격차가 크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또한 기후변화와 관련된 건강위험에서도 위험에 노출된 인구 중 약 70%가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계층이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위험에 더 취약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문제 1]의 두 입장과 관련하여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자료 1>에서 1985년 이후 저탄소 에너지기술은 꾸준히 발전을 거듭하여 2024년경에는 완성단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생산과 경제성장의 규모를 감축하지 않는 한 빙하두께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를 통해 기술이 발전되더라도 생산과 성장을 줄이지 않으면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자료 2>의 저탄소 에너지기술에 관한 지표를 국가 경제 수준별로 살펴보면 저탄소 에너지기술에 대한 투자와 기술창출은 선진경제국에 집중되어 있으며, 기술 활용을 통한 탄소배출 감축과 경제성장의 효과는 선진경제국에서만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저탄소 에너지기술 발전의 실질적인 효과는 전 세계에 균등하게 나타나지 않음을 추론할 수 있다. 비록 저탄소 에너지기술의 순해외 기술이전 건수를 살펴볼 때 개발도상국으로 저탄소 에너지기술의 이전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개발도상국은 여전히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으며 에너지기술 투자 대비 탄소배출 효율 역시 선진경제국에 비해 현저히 낮다. 이러한 자료를 통해 현재 기술발전의 효과는 전 세계가 고르게 누릴 수 없으며 국가 경제 수준별 구조적 격차가 존재함을 추론할 수 있어야 한다. <자료 3>에서는 기후위기의 책임과 그로 인한 피해가 개인의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보여준다.

[문제 2]의 <자료 1> ~ <자료 3>은 [문제 1]의 기후위기 관련 현상과 이에 대응하는 방법에 관한 상반된 관점을 각각 옹호할 수 있는 근거를 복합적으로 제시한다. 따라서 각 자료에서 기후위기로 인해 나타난 자연적 현상과 사회적 현상, 그리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저탄소 에너지기술에 관한 지표들을 중

합적으로 파악하고 [문제 1]의 상반된 두 입장을 각각 옹호할 수 있어야 한다. 좋은 답안의 포인트는 [문제 2]에서 제시된 세 자료를 종합적으로 해석하고 활용하여 [문제 1]에서 분류한 두 입장을 옹호할 수 있는 일관된 논리를 제시하는 것이다.

<제시문 1>은 저탄소화와 녹색산업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번영을 제시하며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의 발전이 또 다른 성장의 원동력이 되어 결과적으로 기술과 경제성장의 선순환적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역설한다. <제시문 4>는 현재의 심각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기술을 뛰어넘는 첨단기술의 개발을 통해 혁신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함을 강조한다. 두 제시문은 모두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 기술의 역할을 강조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학생들은 [문제 2]의 자료에서 저탄소 에너지기술이 최근 완성단계에 이르렀다는 점, 선진경제국의 저탄소 에너지기술에 대한 투자와 특허 개발 성과, 그리고 에너지기술을 활용한 탄소배출 감축과 경제성장의 효과가 드러나고 있음을 근거로 <제시문 1>과 <제시문 4>의 입장을 옹호할 수 있다.

반면 [문제 1]의 <제시문 2>는 기술에 대한 맹신을 경계하며 기술혁신을 통해 녹색성장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한다. 학생들은 기술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입장의 근거를 <자료 1>을 활용하여 제시하고, <제시문 2>에서 환경과 자원의 유한성을 고려할 때 생태계의 회복을 위해 필요한 것은 탈성장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다. <제시문 3>에서는 부유한 소수가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있으나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로부터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자원까지 갖추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자원이 부족한 빈곤층은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러한 주장은 <자료 3>에서 소득계층에 따라 기후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탄소배출의 책임이 더 많은 자원을 가진 고소득층에 집중된 반면,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가 균등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통해 지지될 수 있다. 탄소배출 기여도가 높은 소수의 부유층이 그들의 과도한 소비를 절제하지 않은 채 기술 개발과 이를 통한 산업의 발전에만 힘을 쏟는 동안, 자원이 부족하고 소득수준이 낮은 다수는 기후문제로 인한 경제적 피해와 건강 위험에 더 취약한 상태로 남아있게 된다. <자료 2>에서 선진경제국은 발전된 기술을 통해 탄소배출을 감축하는 성과를 내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으로 기술이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기술낙관론의 입장이 옹호될 수도 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과 선진경제국의 기술 격차를 살펴볼 때, 녹색성장이 결국에는 경제적 양극화의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제시문 2)과 기후위기는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연계되어 있다는 주장(제시문 3)을 기술비관론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개발도상국은 여전히 선진경제국의 기술에 종속된 상태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불평등의 구조적 문제가 고착화될 것임을 함께 지적할 수 있다.

[문제 2]에서는 [문제 1]의 제시문 문구를 단순 반복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문제 2]의 세 자료를 [문제 1]의 두 입장과 효과적으로 연결해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자료 2>로부터 선진경제국과 개발도상국의 지표를 각각 기술낙관론과 기술비관론에 단순 연결하여 지지하는 논리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 [문제 1]의 상반된 두 입장과 각 제시문의 주요 논점 차이를 각 자료와 논리적으로 연결하며 각 입장을 옹호하는 논리를 제시하는 것이 우수한 답안이라 할 수 있다.



채점등급

- A** 자료를 모두 정확하게 해석하고 [문제 1]의 제시문들과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논리적으로 서술한 답안
- B** 자료를 모두 정확하게 해석하고 [문제 1]의 제시문들과 연계하여 서술하였으나 부분적으로 서술의 적절성이나 충분성이 부족한 답안
- C** 자료를 모두 정확하게 해석했으나 자료의 내용과 [문제 1]의 제시문 내용을 단순 반복하는 수준에 그친 답안
- D** 자료의 일부만 정확하게 해석했거나, [문제 1]의 제시문들과 잘못 연결 지었거나, [문제 1]의 두 입장 중 하나만 옹호한 불충분한 답안
- E** 자료를 모두 부정확하게 해석했고 [문제 1]의 두 입장을 옹호하는 논리가 부적절한 답안
- F** E 등급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답안

문제 3

아래 제시된 정책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입장 중 오직 하나를 선택하고, [문제 1]의 제시문과 [문제 2]의 자료를 모두 활용하여 본인의 선택을 정당화하시오.

세계 190개국이 참여하는 국제기구에서 탄소중립 기술의 발전과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새로운 정책을 논의 중이다. 이 정책의 주요 내용은 각 국가가 탄소배출량에 비례하여 분담금을 지불하고, 이를 탄소중립 기술의 연구 개발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문제 3]은 세계 각 국가의 탄소배출량에 비례하여 분담금을 부과하고 이 분담금을 첨단기술 연구개발에 지원하는 방안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 중 오직 하나의 입장을 선택하고, [문제 1]의 제시문과 [문제 2]의 자료를 토대로 자신의 선택을 논리적으로 정당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문제 1]의 제시문들은 기후위기 극복과 관련된 상반된 두 가지 입장, 즉 '친환경 기술 개발을 통해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녹색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기술낙관론적 입장(제시문 1, 4)과, '기후위기 극복에 있어 기술 만능주의를 배격하고 탈성장과 기후 정의를 강조하는 방향으로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제시문 2, 3)으로 분류할 수 있다.

[문제 2]의 <자료 1>은 설령 저탄소 에너지기술이 완성 단계에 이르더라도 현재의 생산과 경제성장 규모가 유지될 경우 빙하두께의 감소로 대변되는 기후위기가 해소되기 어려움을 시사한다. <자료 2>는 한편으로,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들에 비해 저탄소 에너지기술 개발에 많은 자원을 투자하여 성과를 거두고 있고 저탄소 에너지기술 관련 산업이 GDP 성장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어서, 탄소감축과 경제성장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다른 한편으로, 이 자료는 애초부터 국가 경제 수준에 따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역량에 큰 차이가 있어서 선진국의 발전된 기술이 개발도상국으로 이전되더라도 개발도상국의 경제와 산업체제가 저탄소 에너지 중심으로 전환되기는 어려움을 시사한다. 또한, 기후위기에 대응함에 있어 궁극적으로 개발도상국들은 기술주권을 갖지 못하는 종속적 상태에 머무를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자료 3>은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에 대응하는 개인의 역량과 자산 기반에 있어서도 소득 계층 간 격차가 크다는 점을 통해 개인 수준에서 기술낙관론의 한계를 추가로 지적하고 있다.

학생들은 [문제 1]의 제시문들과 [문제 2]의 자료들을 바탕으로 발문에 제시된 정책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논리를 체계적으로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문제 3]의 답안을 작성함에 있어, 학생들은 먼저 해당 정책이 첨단기술 개발을 통해 기후위기를 극복하려는 시도라는 점을 추론하고, [문제 1]에 등장한 기술낙관론과 기술비관론의 입장에서 이 정책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논리를 효과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이 정책에 찬성하는 경우, 학생들은 [문제 1]의 <제시문 1>, <제시문 4>, 그리고 [문제 2]의 <자료 2>에 제시된 유관 지표들을 활용하여 첨단기술 개발과 녹색성장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경제성장 동시에 추구할 수 있음을 피력해야 한다. 그리고 이 제시문들의 주요 논지를 바탕으로 과학기술이 기후위기 해결의 핵심이며,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기술낙관론적 관점에서 탄소중립 기술

을 전 세계적 산업으로 육성하는 정책에 찬성하는 논리를 전개할 수 있다. 그리고 각 국가의 탄소배출량에 비례하여 부담금을 부과하는 정책이므로, 기후위기에 큰 책임을 지고 있는 선진국이 상대적으로 많은 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기후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는 데에도 이 정책이 기여하는 바가 있음을 강조할 수 있다.

반면에, 이 정책에 반대하는 경우 학생들은 [문제 1]의 <제시문 2>, <제시문 3>, [문제 2]의 <자료 1>, <자료 2>의 유관 지표, 그리고 <자료 3>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첨단 탄소중립 기술이 발전되더라도 근본적으로 생산과 성장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저탄소 에너지기술이 성숙단계에 접어들더라도 탈성장 정책을 채택하지 않으면 기후위기가 계속 심화할 것임을 제시하고, 기후 불평등을 보여주는 유관 지표들을 토대로 첨단기술의 실질적 효과가 전 세계에 균등하게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을 강조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정책을 통해서 첨단기술 개발이 촉진되더라도 그러한 기술의 적용 가능성과 실효성 등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에 이미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책의 효과성을 담보하기 어려움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장들을 근거로, 탄소중립 기술을 산업으로 육성하는 정책은 결국 또 다른 성장 만능주의에 불과하다는 점을 피력할 수 있다.

[문제 3]의 핵심은 해당 정책안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정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문제 1]의 제시문과 [문제 2]의 자료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기술낙관론과 기술비관론의 주요 논지를 [문제 1]의 제시문으로부터 정확하게 도출하고, 이 두 가지 입장을 각각 옹호하거나 반박하는 자료가 복합적으로 제시된 [문제 2]의 자료로부터 기후위기와 관련된 구체적인 현상을 논리적으로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논리적 구성을 토대로 자신의 입장과 판단의 근거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이 좋은 답안의 포인트이다. [문제 3]은 학생들이 특정 현상과 관련된 상반된 주장의 핵심 논리와 관련 자료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것을 구체적인 현실 문제 해결에 적용하여 통합적으로 사고하고 논술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따라서, 자신의 선택과 일치하는 제시문과 자료를 활용하는 데 그친 답안은 좋은 답안으로 평가받기 어렵다. 자신의 주장과 반대되는 제시문과 자료의 핵심을 포착하여 이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까지 포함하여 논술한다면 문제의 조건에도 부합하고 풍부한 답안을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채점등급

A

해당 정책(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 중 오직 하나를 분명히 선택하여 답하고, 주어진 제시문과 자료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자신의 선택을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정당화한 답안

B

해당 정책(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 중 오직 하나를 분명히 선택하여 답하기는 했으나, 주어진 제시문과 자료를 단편적으로 연결하는 데 그치고 주장의 체계성과 논리성이 다소 미흡한 답안

C

해당 정책(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 중 오직 하나를 분명히 선택하여 답하기는 했으나, 제시문과 자료의 내용을 단순 반복하는 데 그친 답안

D

해당 정책(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 중 오직 하나를 분명히 선택하여 답하기는 했으나, 제시문과 자료를 잘못 연결하여 주장의 설득력이 낮고 논리적이지 않은 답안

E

해당 정책(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 중 오직 하나를 분명히 선택하여 답하지 않고, 제시문과 자료의 내용과는 동떨어진 주장을 제시한 답안

F

E 등급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답안

출제의도 및 출제방향

[언어 논술]

2026학년도 언어형 모의논술은 우리 대학 202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전형 문제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서 수험생이 자신의 논리적 사고능력과 창의성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출제하였다. 그리고 하나의 주제 아래 3개의 문항을 배치하여 문해력과 분류요약 능력, 자료평가 및 사례활용과 비판 능력, 논술·논증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하였다.

2026학년도 모의논술 역시 우리 대학의 이전 논술시험과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핵심사항으로 고려해 출제하였다. 또한 전년도 논술시험과 일관되게 수험생이 고등학교 교육을 충실히 이수하여 학습한 내용을 현실의 사회문제와 연결해 통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 있다. 논술문제의 전체 주제인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방법으로서의 기술낙관론과 기술비관론'은 고등학교 <통합사회>에서 상세하게 다루어지고 있고 관련 내용이 <생활과 윤리> 교과에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따라 성실하게 공부한 학생에게는 익숙한 주제이다. 또한 이 문제는 전 지구적으로 중요한 쟁점이기도 하므로, 논술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친숙하게 느끼는 주제이다.

[문제 1]은 제시문의 내용을 파악하여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한 다음, 각 입장의 논지를 요약하는 문제이다. 좋은 답안 작성의 포인트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방법에 관한 다양한 관점의 중심 주장과 근거를 정확하게 포착하여 '친환경 기술 개발로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녹색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보는 기술낙관론적 입장'과 '기술개발로는 기후위기 및 기후불평등을 해결할 수 없고 탈성장이 필요하다고 보는 기술비관론적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에 속한 제시문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요약문을 작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반된 두 입장의 내용을 해당 제시문들의 주장을 포괄하여 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제시문 각각의 내용을 요약했다 라도 이를 종합하여 상반된 두 입장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지 못한다면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 제시문의 난이도는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영역 지문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여 수험생들의 정확한 분류 및 요약 능력을 측정하고자 했다.

[문제 2]는 학생 본인이 어떤 입장을 옹호하는지와 무관하게, 주어진 자료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충분히 활용하여 앞의 두 입장을 논리적으로 비판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같은 자료를 토대로 하더라도 비판의 논리를 얼마나 심층적으로 전개하였는지가 평가에서 주안점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료 활용에 그칠 것이 아니라 비판 대상과 반대되는 입장의 제시문도 적절히 연계 활용할 필요가 있고, 또한 비판 대상이 되는 입장을 옹호하는 나머지 사례도 무시할 것이 아니라 그런 옹호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비판받아야 하는지를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 [문제 2] 역시 자료해석의 난이도와 형식에서 전년도 논술고사와 일관성을 유지했다.

[문제 3]은 [문제 1]에 제시된 일반 논리를 특수 사례에 적절히 적용하여 학생 본인의 입장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이때 [문제 1]의 제시문과 [문제 2]의 자료를 모두 활용하게 함으로써 이론적인 입장과 관련 자료를 구체적 쟁점에 적용하여 판단 근거를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제시문과 자료를 모두 활용하라고 하였으므로, 자신의 주장을 지지해주는 제시문과 자료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주장과 반대되는 제시문과 자료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까지 간략하게 포함할 경우 논제의 조건에도 맞고 내용도 풍부한 좋은 답안이 될 것이다. 그리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두 가지 대안 중 반드시 하나를 선택하고, 제시문과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선택의 근거를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6학년도 모의논술은 기후위기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다루고 있는데 해당 주제는 고등학교 통합 사회,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등의 교육과정 성취기준과 관련 있는 내용으로 수험생에게 익숙한 주제입니다. 또한 기후위기를 바라보는 상반된 입장을 분류하고 요약하는 [문제 1], 자료를 분석하여 상반된 두 입장을 옹호하는 근거로 활용하는 [문제 2], 사례에 제시된 정책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입장을 밝히고 정당화하는 [문제 3]이 출제되어 교육과정 내에서 문제를 출제하던 성균관대학교 논술 출제 방향과도 일치합니다. 제시문의 난도도 높지 않고, 자료 역시 구조가 명확하였기에 제시문과 자료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서술할 수 있는 수험생이라면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는 문항이라고 판단합니다.

<문항별 분석>

▶ 문제 1: 제시문 분류 및 요약 - 기술낙관론 VS 기술비관론

[문제 1]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상반된 입장을 분류하고 각 입장의 논지를 요약하는 문항입니다. 기술낙관론(제시문 1, 4)과 기술비관론(제시문 2, 3)이 뚜렷하게 나뉘기에 두 입장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주제입니다. 하지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제시문을 두 입장으로 구분하는 데 그치지 말고 같은 입장의 제시문 간 차이점까지 고려하여 두 입장의 핵심 논지를 종합적으로 요약해야 합니다.

<제시문 1>이 녹색성장의 정당성과 희망적 가능성을 중심으로 한 낙관론이라면, <제시문 4>는 현실적인 위기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 중심의 실천적 낙관론이라는 점에서 두 제시문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시문 2>가 지속가능한 성장의 환상을 지적하며 생태계 유지를 위한 탈성장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반면, <제시문 3>은 기후위기가 불평등을 강화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기술개발로 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음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두 제시문의 차이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 문제 2: 자료 해석을 통한 양측 입장 옹호

[문제 2]는 각 자료의 의미를 해석하고 자료의 내용이 [문제 1]의 상반된 두 입장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추론해야 합니다. <자료 1>은 저탄소 에너지기술 성숙도가 점차 향상되고 있지만 현재의 생산 및 경제규모를 유지한 경우 빙하 두께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는 기술발전에도 불구하고 생산과 성장이 줄지 않으면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기술비관론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 2>는 선진경제국의 저탄소 에너지기술 투자 비율, 투자 대비 탄소배출 감축량, GDP 성장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술 발전이 탄소 감축과 경제 성장 모두 달성하는 열쇠라는 기술낙관론

을 옹호하는 근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반면 선진국의 활발한 기술 이전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의 탄소배출 감축량과 에너지 기술의 GDP 성장 기여도, 저탄소 에너지 사용 비율 등이 낮다는 점은 녹색 성장의 한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기술비관론을 옹호하는 근거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료 3>을 통해서 기후위기로 인한 소득 손실과 건강 위험에 있어서 소득 하위 계층이 더 취약함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기후위기가 사회적 불평등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제시문 3>과 관련되며 기술 비관론의 근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자료의 표면적 수치만 나열하거나 단순히 입장별로 배치하는 것은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렵고, 하나의 자료가 두 입장의 논거로 동시에 활용될 수 있음을 파악하고 자료에 담긴 복합적 의미를 추론하는 사고가 필요합니다. 각 자료의 양면적 해석 가능성을 이해하고 주석 및 수치를 면밀히 살펴본 뒤 이를 제시문과 논리적으로 연결하는 능력이 핵심입니다.

▶문제 3: 현실 적용 - 정책에 대한 입장 논증

[문제 3]은 각 국가가 탄소배출량에 비례하여 분담금을 지불하고 이를 탄소 중립 기술 연구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정책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정책은 기술개발을 통해 기후위기를 극복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기술낙관론의 입장과 일맥상통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하며, 기술낙관론(제시문 1, 4)을 지지하는 입장이라면 해당 정책에 찬성, 기술비관론(제시문 2, 3)을 지지하는 입장이라면 반대해야 논리적 일관성이 유지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단순히 찬성 혹은 반대 입장을 택하는 것을 넘어서 해당 입장의 논거가 되는 제시문과 자료를 근거로 삼되, 반대 의견 측의 논리를 예상하거나 반박하는 구조까지 갖춘다면 설득력있는 답안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논술 문항은 교육과정에 기반한 내용 요소를 활용하고 정형화된 형태의 문항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기에 기존 논술 유형에 익숙한 학생이라면 큰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짧은 시간 내에 제시문과 자료의 복합적 의미를 정확히 추론하고 설득력 있게 논증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단순 요약물 넘어서 '추론-통합-반박'의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연습을 충분히 해야 합니다.

따라서 모의논술 문항은 수험생에게 논술 출제 기조와 방향을 확인하고 실력을 점검해 보는 귀중한 경험이자 학습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채점 기준과 지침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자신이 작성한 답안을 점검하고, 새롭게 답안을 작성해 보는 활동을 통해 실력 향상의 기회로 활용하기 바랍니다.

2025학년도 모의논술 논술시험(언어논술)

모집단위		전형유형	
수험번호		성명	

답안작성 유의사항

가. 시험 시간은 100분이며, 문제별 답안은 반드시 문제별로 해당되는 답안 작성영역에 작성해야 합니다.(문제번호와 답안번호는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나. 문제별로 해당되는 답안 작성영역에 다른 문제의 답안을 작성한 경우 평가하지 않습니다.

다. 답안은 지정된 작성영역 내에 작성해야 하며, 지정된 작성영역을 초과하여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라. 답안 작성영역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적사항을 기재하면 안됩니다. 인적사항(성명, 서명 등) 또는 답안과 관계없는 표기를 하는 경우 결격처리 될 수 있습니다.

마. 답안작성은 흑색 필기구를 사용해야 합니다.(연필·샤프 사용가능, 답작성 중 필기구 종류 또는 색상 변경 불가)

바. 답안 수정 시에는 취소선을 긋거나 지우개로 지워야 하며 수정액이나 수정테이프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문제 1

<제시문 1> ~ <제시문 4>는 세계화에 관한 견해를 담고 있다. 제시문들을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시오. (40점)

<제시문 1>

1990년도 초반, '세계화'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했고 이는 상품, 서비스 및 자본을 위한 시장의 국제적 통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쓰였다. 세계화를 지지하는 경제학자들은 세계화가 상품과 자본 그리고 아이디어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능하게 할 것이고, 이를 통해 세상은 더욱 부유해지고 삶의 질 또한 향상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과연 결과는 어땠을까? 지금까지 세계화에 적극 동참한 국가들은 그렇지 않은 국가들에 비해 높은 경제성장을 기록했고, 경제성장률이 높을수록 저소득층의 소득도 함께 증가하여 절대적 빈곤이 감소하였다. 산업화와 무역으로 경제와 사회가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며 보건 위생 시설이 개선되고, 빈곤의 해결로 사람들의 기본 수명이 증가하고 전체적인 삶의 조건도 좋아졌다. 하지만 경제와 사회의 변화가 일부 사람에게만 적용되었다는 점은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변화가 왜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지 않고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것일까? 한 가지 이유는 시장의 특징 그 자체에서 찾을 수 있다. 개인은 특별하고 다르게 태어난다. 그리고 시장은 이러한 개인의 특징을 인정하고 기다려 주지 않는다. 시장은 주어진 환경에 가장 빨리 적응하는 사람에게만 보상을 제공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냉정하게 탈락시킨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시장의 원칙은 냉정하면서도 공정하다. 물론 공정한 시장에서는 완전한 정보와 완전한 경쟁이 가능해야 하고, 이러한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의 관여가 중요하다. 만약 사회의 불평등 문제가 세계화와 불공정한 시장 체제 때문에 악화되었다면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규제를 가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규제로 분배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시장 체제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정부는 시장 개입에 있어 가장 합리적인 규제와 적합한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관점을 조금 바꾸어, 세계화를 편협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는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 세계화는 곧 세계를 한 울타리로 인류 공동의 보편타당한 가치를 중시하는 움직임이며 이는 단순한 국가 간의 교류가 확대되는 데 머무르지 않는다. 그러므로 각 나라나 민족의 특징이나 차별성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상호의존에 바탕을 둔 세계 공통의 보편적 기준과 가치를 숭상해야 한다. 여러 나라들이 세계 경제의 효율성을 주장하며 국경 장벽을 철폐하는 데 골몰하는 사이, 국경 내에서 발생하는 충격과 피해를 흡수하지 못하며 세계화의 확장을 가로막는 자국 우선주의로 돌아선 것도 사실이다. 지난 40년 동안 세계화의 가능성은 증가했는지 몰라도 진정한 의미에서의 세계화는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다. 또 세계화에 있어 국가마다 다른 경험이 있을 수밖에 없다. 2016년에 발표된 세계화에 대한 주요국 여론조사에 의하면 세계화에 대해 부정적인 국가들은 그리스와 미국뿐이었고 네덜란드나 스웨덴, 독일, 영국, 중국, 인도, 프랑스, 폴란드, 헝가리와 스페인은 자유무역과 세계화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유지하고 있었다. 모두가 세계화 타트를 하는 가운데, 이러한 결과가 놀라울 수도 있지만, 따지고 보면 과격적이지만은 않다. 국가마다 차별된 문화와 언어가 있고 아직도 사람과 물건은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데 여전히 다양한 규제와 문화 장벽에 부딪힌다. 이러한 장벽들이 완전히 깨지지 않는 한 세계화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특정 계층이나 부류에 국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세계화가 보편적이지 않다면, 지금 전 지구적으로 나타나는 여러 문제의 근원은 상당 부분 세계화가 아닌 다른 곳에 있다는 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제시문 2>

개발과 저개발이란 단어는 종종 부정적 결과로 이어지는 경제적, 사회적 하향식 접근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각국의 원주민 지도자들은 세계화 과정에서 원주민을 공략하는 개발 패러다임을 '개발침략'이라고 부른다. 이 패러다임은 대부분 지속적인 상품의 소비 증가에 근거한 산업화 사회와 시장을 도모한다. 이처럼 '개발침략'으로 규정되는 세계화 패러다임은 원주민의 땅, 천연자원, 생계를 잃게 만들고, 그들의 전통적 지식을 흠치거나 도용해서 특허를 내고, 사회에 갈등을 유발하여 공동체를 위협하고, 개발의 혜택을 원주민들과 나누지 않고, 원주민들을 강제로 동화시켜 그들의 문화를 잃게 만들고, 원주민들을 차별하고, 뒤처지게 만들고, 극단적 빈곤에 빠지게 한다. 세계화는 대체로 개발 패러다임에 따른 상품, 서비스, 노동의 경제적 세계화로만 인식되고 있다. 또한 국제통화기금이나 세계은행, 세계무역기구 등이 세계화 과정에서 제시한 정책 수단들은 각국 정부와 시민사회의 광범위하고 민주적인 참여를 유도해 내지도 못했다. 다행히 인종차별 철폐조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 국가들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인 국제협약들이 지난 수십 년 동안 국가 의무에 대한 포괄적인 국제 기준을 제공해 왔다. 왜 이러한 기준들이 필요했는지, 그리고 만약 이 기준들이 정립되지 않았더라면 개발 논리가 전 세계적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세계화 논쟁에서 여전히 자주 간과되고 있다. 이 맥락에서, 우리는 최근 몇십 년 동안 이루어진 국제무역 협상들이 그 당시에 이미 존재하던 공정무역의 준거를 따르지 않고 이루어졌음을 상기해야 한다. 이 협상들은 특히 가난하고 힘없는 약소국들로 하여금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받아들일도록 강요했다. 엄청난 자본과 기술력으로 무장한 다국적 기업들이 막대한 이익을 거두는 동안, 약소국 국민은 열악한 근로조건을 감내해야 했고 자원의 불공정 배분에 대해서도 달리 손을 쓸 힘이 없었다. 세계화의 주역인 첨단기술산업 분야 이외의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겪는 상대적 불평등을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다. 세계화가 초래한 불균형을 바라보는 시각 차이는 이 문제를 유발하는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상이한 인식을 반영한다. 세계화를 주창하는 사람들은 불균형이 단지 운이 없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입장은 다른 문제에서도 유사한 태도를 취하게 만든다. 불균형보다 경제 효율성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은 사회정의, 환경, 문화적 다양성, 취약계층 보호, 소비자 보호 등과 같은 비경제적 가치 기준에 대해서도 그다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국제인권규약의 제1조는 인간은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그러한 자결의 원칙에 의하여 경제적, 사회적 개발을 자유롭게 추구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제적 규범에서의 인권이라는 준거에 따르자면 세계화 과정에서 실행되는 다양한 유형의 개발은 모든 사회와 경제를 동질의 단일체로 만들어 버리는 1차원적 개념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만약 우리가 모든 인간은 자기 운명을 결정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면, 경제적·사회적 동질화를 피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온 세계화가 한계에 봉착하리라는 점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비록 세계화를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는 세력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개발과 마찬가지로 세계화 역시 인류에게 필연적인 것은 아니다.

<제시문 3>

세계화를 엘리트 계층의 음모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세계화 반대론자들은 세계화가 부유층에 막대한 부를 안겨줬지만 엄청난 소득 불평등을 낳았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세계화의 유령이 또 다른 유령을 낳는다. 그러나 세계화 덕에 수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난 30년간 전 세계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가운데 빈곤 인구는 10억 명 이상 줄었다. 인도, 중국, 베트남, 한국, 멕시코 등에서 빈곤을 벗어난 이들이 세계화의 혜택을 본 경우다. 선진국에서는 다양한 소득계층이 혜택을 누렸다. 스마트폰에서 의류, 장난감까지 다양한 제화의 값이 싸진 덕이다. 세계화를 억제하자는 일부 미국인들의 요구는 미국 이외의 지역으로 일자리가 유출된다는 주장을 반영한다. 그러나 미국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존재는 중국인이거나 멕시코인이 아닌 자동화 기술(로봇)이다. 그리고 이로 인해 미국의 제조업 부문 일자리가 감소하는 중에도 생산량은 계속 상승했다. 세계화가 소득 불평등 확대에 불을 지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사실 저주받기보다 환영받아야 할 현상이다. 불평등을 환영할지는 불평등이 어떻게 초래됐으며, 이로 인한 영향은 무엇인지를 살펴 결정된다. 불평등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은 아니다. 인도와 중국에서는 세계화가 소득 불평등을 초래했지만, 이는 제조업, 사무직,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했다. 그리고 수백만 명의 사람이 그 혜택을 입었다. 물론 모두가 혜택을 받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는 어쩔 수 없는 과정 중 하나다. 소득 불평등의 이러한 측면을 인정하지 못하면 발전도 인정할 수 없게 된다. 선진국에서도 소득 불평등의 확대는 더 나은 기회를 제공했다. 시장의 범위가 국내에서 세계 전체로 확대된 덕이다. 재능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이들은 이제 전 세계를 무대로 삼아 자산을 늘려갈 수 있게 되었다. 더 많은 사람과 재능을 나누고 이를 통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은 절대 범죄가 아니다. 합법적인 부의 창출이다. 환영받지 못할 불평등은 다른 사람의 희생을 통해 부를 얻고 경제에 전혀 기여하지 않는 행태에서 비롯되며, 이것이야말로 불평등을 무섭게 만드는 원인이다. 돈이 있는 사람들이 정부를 이용해 규제를 완화하도록 구슬리는 것이 전형적인 예다. 농업 기업들은 매년 정부에서 막대한 보조금을 얻어낸다. 제약회사들은 로비를 통해 약값을 올리거나 기존에 있는 상품의 특허권을 연장하려 한다. 부동산 대기업들은 그들의 편의에 잘 맞춰진 세법을 교묘히 이용한다. 이런 행위들은 경제성장을 늦춤으로써 경제에 해를 끼친다.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합법화된 도둑질'이라면, 혁신과 창의성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다. 늘 새치기를 통해 자신을 앞서가는 이들에게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분노는 정당화될 수도 정당화되지 않을 수도 있다. 정당화되지 않는 경우는 인종 특혜에 물들어 있는 백인들이 평등 사회로 나아가는 것에 반발해 분노할 때다. 정당화되는 경우는 일부 특별 집단에만 부를 몰아주는 정부에 대해 분노할 때다. 성장은 세계화와 합법적인 불평등에 달려 있다. 우리는 세계화와 불평등으로 피해를 당한 이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지만 세계화와 불평등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제시문 4>

세계화는 그동안 전 세계적인 생활 수준의 향상을 가져온 가장 강력한 동력 중 하나였다. 그러나 한결같이 세계화를 두둔하는 경제학자들의 조언은 이제 대중의 신임을 잃었다. 경제학자들은 세계화에 열광하면서도 그에 동반되는 다양한 측면들의 섬세한 차이에는 충분히 주목하지 않았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다. 왜냐하면 세계화는 경제 개념도 아니기 때문이다. 세계화는 서로 극단적으로 다른 경제적 프로세스들을 뭉뚱그려 놓은 것일 뿐, 그 프로세스들이 전부 건전한 것도 아니며 그 각각의 프로세스가 공통의 효과를 산출할 개연성도 거의 없다. 우리는 이제 세계화에 대해 균형 있는 분석을 내놓아야 한다. 이 점은 세계화와 문명 충돌의 맥락에서 보면 분명히 드러난다. 문화와 문명의 다양성은 서구 문화를 보편타당한 것으로 여기는 서구, 특히 미국의 신념을 뒤흔든다. 서구 문화가 보편타당하다는 신념은 서술적으로도 당위적으로도 표현되고 있다. 서술적 차원에서는 모든 사회의 사람들이 서구의 가치관, 제도, 관습을 채택하기를 원한다는 주장으로 나타난다. 당위적 차원에서, 서구 보편주의는 전 세계 사람들이 서구의 가치관과 제도, 생활양식을 수용해야 한다고 못 박는다. 이것들이 인류의 가장 수준 높고 가장 계몽되고 가장 진보적이고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근대적이고 가장 문명화된 사상을 구현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처럼 비서구인들이 서구의 가치관, 제도, 문화를 채택해야 한다는 믿음이 비도덕적인 까닭은 그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희생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문화는 힘을 뒤흔든다. 따라서 비서구 사회들이 서구 문화에 침을 당한다는 것은 서구의 힘이 확산되고 팽창하여 비서구 사회에 충격을 가했음을 의미한다.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제국주의는 보편주의의 필연적이며 논리적인 귀결이다. 다른 한편으로, 문명의 원숙기로 올라선 서구는 더 이상 자신의 의지를 다른 사회들에 강요할 만한 경제적 저력도 인구 배경도 없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자결과 민주주의라는 서구의 가치관에 위배되기도 한다. 만약 아시아 문명과 이슬람 문명이 자신들 문화의 보편타당성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서구인들은 보편주의와 제국주의의 연관관계를 납득하게 될 것이다. 모든 문명은 출현, 상승, 쇠락의 비슷한 과정을 밟는다. 서구가 다른 문명들과 다른 점은 문명의 전개 과정이 아니라 남다른 가치관과 제도이다. 여기에는 그리스도교, 다윈주의, 개인주의, 법치주의가 포함된다. 서구는 이런 자산을 활용해서 근대성을 창안하고 전 세계로 팽창하면서 다른 문명들의 부러움을 샀다. 이런 특성들의 조화는 서구만의 것이다. 북미와 유럽을 포괄하는 서구사회는 개인적 자유, 정치적 민주주의, 법치주의, 인권, 문화적 자유라는 관념의 원천, 그것도 아주 독특한 원천이다. 이것들은 서구 사상이지,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의 사상은 아니다. 서구 문명이 가치를 지니는 것은 그것이 보편적이어서가 아니라 독특하기 때문이다.

문제 2

국제무역에 참여하는 세계 160개국의 자료를 근거로 도출한 지난 30년간의 세계지표 추이를 보여주는 <자료 1>과, 같은 기간 A국과 B국의 사회·경제지표 변화를 보여주는 <자료 2>를 근거로 [문제 1]의 두 입장을 각각 옹호하시오. (40점)

자료 1

지난 30년간 세계지표 추이 (1994년 ~ 2024년)



주1) 국가 간 불평등은 160개국 중 하위 50% 국가 대비 상위 10% 국가의 평균소득 비율로 산출

주2) 국가 내 불평등은 개별 국가 내 하위 50% 대비 상위 10%의 평균소득 비율을 160개국 평균 값으로 산출

자료 2

지난 30년간 A국과 B국의 사회·경제지표 변화 (1994년 ~ 2024년)³⁾

주3) 두 국가는 모두 국제무역에 참여해 오고 있으며, 자료에 제시된 내용 외에 두 국가의 다른 모든 조건은 동일하다고 가정함

지표	1994		2024	
	A국	B국	A국	B국
국민총소득(단위: 100만 USD)	98,348	97,916	193,689	467,137
인권보장 관련 신규 법안 발의 수(연간)	13	14	16	40
도로 보급 수준 ⁴⁾	1.11	1.23	1.58	3.12
1인당 수입식품 소비량(단위: kg)	27	28	56	298
수입식품 항공 수송 총 거리 ⁵⁾	218	247	572	4,081
영아사망률 ⁶⁾	5.4	5.3	4.9	2.4
언어위기지수 ⁷⁾	25	26	25	65
첨단기술 대외의존도 ⁸⁾	0.36	0.35	0.41	0.83
첨단산업분야 기술무역수지비 ⁹⁾	0.96	0.97	0.97	0.54
중심도시 면적 대비 인구집중도(%) ¹⁰⁾	18.8	18.2	20.0	35.1

주4) 국토면적 및 인구를 고려한 도로 보급 수준으로 수치가 높을수록 도로 보급 수준이 높음

주5) 생산지에서 해당 국가까지 항공편으로 수입된 식품의 총 거리는 수송량(ton) x 수송거리(km)로 산출함

주6) 영아사망률 = (연간 영아 사망자 수/연간 출생아 수) x 1000

주7) 자국의 고유 언어가 소멸위기에 처한 정도를 1~100 사이의 값으로 평가한 지표 (100에 가까울수록 소멸위험이 높음)

주8) 첨단기술의 외국인 특허등록건수 / 첨단기술의 내국인 특허등록건수

주9) 첨단산업분야 기술수출액 / 기술도입액

주10) 전국 대비 중심도시의 인구집중도를 전국 대비 중심도시 면적집중도를 고려하여 백분율로 나타낸 값

문제 3

C국 정부는 자국 첨단기술의 우위 강화와 자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해외 제조시설을 국내로 복귀시키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이 방안에 대해 본인은 찬성하는지 아니면 반대하는지 오직 하나의 입장을 선택하고, [문제 1]의 제시문과 [문제 2]의 자료를 모두 활용하여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하시오. (20점)

Blank lined paper for writing.

2025학년도 모의논술

해설(언어논술)

2025학년도 모의논술 개요

2025학년도 모의논술(언어형)은 우리 대학 2024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우수전형 문제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서 수험생이 자신의 논리적 사고능력과 창의성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출제하였다. 그리고 하나의 주제 하에 3개의 문항을 배치하여 문해력과 분류요약 능력, 자료평가 및 사례활용과 비판 능력, 논술논증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하였다.

2025학년도 모의논술 역시 우리 대학의 이전 논술시험과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핵심사항으로 고려하여 출제하였다. 또한 전년도 우리 대학의 논술고사와 일관되게, 수험생이 고등학교 교육을 충실히 이수하여 학습한 내용을 현실의 사회문제와 연결시켜 사고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 있다. 논술문제의 전체 주제인 '세계화' 문제는 고등학교 <통합사회>에서 충분히 다루어지고 있고 관련 내용이 <생활과 윤리>, <경제> 교과서에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따라 성실하게 공부한 학생에게는 익숙한 주제이다. 또한 이 문제는 현재 한국사회에서 중요한 쟁점이기도 하므로, 논술고사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친숙하게 느끼는 주제일 것으로 판단하였다.

X

문제 1 [문제 1]의 제시문은 관련 학자의 저서와 언론 기고문 등 다양한 자료 중에서 고등학교 교과서의 내용에 부합하는 부분을 발췌하였으며, 문제 의도에 맞게 출제진이 수정, 변형하거나 통합하여 구성하였다. 각 제시문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각 제시문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제시문 1> 『세계화 땀 말아라』(김지운, 제임스 김, 문화일보, 2018)

<제시문 2> 『세계화 논쟁』(이상현 역, 2017), 『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화』(홍민경 역, 2006)

<제시문 3> 『세계화는 여전히 경제에 축복』(Angus Deaton, 매일경제, 2017)

<제시문 4> 『자본주의의 미래』(김홍식 역, 2020), 『문명의 충돌』(이회재 역, 2016)

문제 2 [문제 2]의 <자료 1>과 <자료 2> 역시 고등학교 교과과정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이 자료를 활용하여 [문제 1]의 두 입장을 각각 옹호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이 자료를 통해 추론한 바를 [문제 1]의 두 입장과 논리적, 체계적으로 연결시켜 논의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문제 3 [문제 3]은 [문제 1]에 제시된 주요 논지와 [문제 2]의 자료를 활용하여 구체적 쟁점에 대해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자 하였다.

평가항목과 문항별 배점

우리 대학의 논술시험은 텍스트에 대한 독해력, 자료 이해와 비판 능력, 그리고 논술논증 능력을 주로 평가해 왔다. 대학에서의 학업수행 능력에 대한 평가라는 논술시험의 기본 취지가 달라지지 않는 한 이러한 방향성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평가항목



※ 답안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위의 항목 ②, ③, ④의 비중은 요구되는 답안글의 형식,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문항별 배점



채점등급별 점수

구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문제 1, 문제 2	40점	32점	24점	16점	8점	0점
문제 3	20점	16점	12점	8점	4점	0점

문제 1

<제시문 1> ~ <제시문 4>는 세계화에 관한 견해를 담고 있다. 제시문들을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시오.

채점지침



[문제 1]은 제시문의 내용을 파악하여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한 다음, 각 입장의 논지를 서술하라는 문제이다. 좋은 답안 작성의 포인트는 세계화에 관한 다양한 관점의 중심 주장과 근거를 정확하게 포착하여 '세계화의 순기능과 긍정적 효과를 강조하며 세계화에 찬성하는 입장'과 '세계화의 역기능과 부정적 결과를 강조하며 세계화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에 속한 제시문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요약문을 작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반된 두 입장의 내용을 해당 제시문들의 주장을 포괄하여 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제시문 각각의 내용을 요약했다라도 이를 종합하여 상반된 두 입장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지 못한다면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 제시문의 난이도는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영역 지문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여 수험생들의 정확한 분류 및 요약 능력을 측정하고자 했다.

[문제 1]의 <제시문 1>, <제시문 3>은 세계화의 경제적 효과를 중심으로 긍정적 결과를 강조하고 있다. 반면에, <제시문 2>와 <제시문 4>는 세계화의 부작용과 한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해당 주제는 세계화와 국제관계, 국가 내 및 국가 간 불평등, 문명 충돌, 문화적 다원화, 세계도시 등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교과서에 등장하는 친숙한 내용이므로 기본적인 독해 능력을 갖춘 학생이라면 어렵지 않게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제시문을 분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 입장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 제시문의 논지를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제시문 1>은 세계화에 적극 동참한 국가들은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을 기록했고 전반적인 삶의 조건이 개선되었음을 토대로 세계화의 순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제시문에 따르면, 세계화를 통해 세상이 더욱 부유해졌고 삶의 질 또한 향상되었다. 비록 세계화의 성과가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균등하게 적용되지 않았다는 문제점은 있지만, 이는 세계화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각국의 시장 체제가 불평등하다는 점, 그리고 각국 정부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적절한 개입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즉, 세계화와 관련하여 국가마다 경험이 다를 수밖에 없음을 인정해야 한다. 또한, 제시문은 세계화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세계화를 지나치게 편협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세계화는 단지 국가 간 경제적 교류를 증진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국가들이 상호의존하며 세계 공통의 보편적 기준과 가치를 숭상하도록 하는 노력을 포함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시문은 세계화의 부작용이나 한계점으로 보이는 현상들이 사실은 세계화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아직 진정한 의미의 세계화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제시문 1>이 세계화의 본원적 목적과 의도를 강조하며 세계화에 찬성하는 논리를 피력하고 있다면, <제시문 3>은 세계화에 따른 불평등 심화 문제를 긍정적인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세계화를 옹호하고 있다. 제시문에 따르면, 많은 국가들이 세계화 덕분에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세계화를 주도한 선진국에서도 부유층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득계층이 세계화의 혜택을 누렸다. <제시문 1>과 마찬가지로 <제시문 3> 역시 세계화가 소득 불평등을 초래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지만, 세계화 과정에서 발생한 불평등은 오히려 환영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불평등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니며 세계화를 통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가 창출되었고 창의성과 혁신에 기반한 시장 확대를 통해 전 세계적

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계화에 따른 불평등 문제를 최악시 할 것이 아니라 세계화와 불평등 그 자체를 합법적인 부의 창출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제시문 2>에 따르면, 세계화는 선진국들이 전 세계적으로 산업화와 시장 확대를 도모하는 개발 패러다임에 따라 진행되었고, 그 결과 약소국과 원주민들을 차별하고 극단적 빈곤에 빠뜨리며 그들의 공동체를 해체시키는 등의 문제를 초래했다. 이러한 세계화 패러다임의 위험성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국제기구와 기관들이 포괄적인 국제 기준을 마련하기는 했지만, 세계화 과정에서 이루어진 국제 무역 협상들은 그 당시에 이미 선진국에는 갖추어져 있던 보편적인 공정무역의 기초를 따르지 않았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즉, 이 협상들은 약소국들에게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강요하고 계층 간 및 산업 분야 간 불평등을 심화시켰다. 또한 제시문은 세계화를 주창해 온 사람들이 경제 효율성을 강조했을 뿐, 세계화에 수반된 불평등 문제, 사회정의, 환경문제, 문화적 다양성의 소멸, 취약계층 보호 등 비경제적 가치 기준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음을 지적한다. 제시문에 따르면 세계화 과정에서 실행되는 다양한 유형의 개발은 모든 사회를 동질의 단일체로 만들어 버릴 위험성을 지니고 있으며, 모든 인간은 자기 운명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결국 세계화는 인류가 추구해야 할 필연적인 과업이 아닌 것이다. <제시문 2>가 세계화를 지탱해 온 개발 논리의 위험성 및 세계화 과정에서 이루어진 국제무역 협상의 불공정성에 초점을 두고 세계화에 비판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면, <제시문 4>는 문명충돌의 관점에서 세계화에 비판적인 입장을 제시한다. 제시문에 따르면, 서구 문명은 서구 자체의 역사적, 종교적, 사회문화적 특수성을 기반으로 형성되었다. 세계화는 이러한 서구 문명을 비서구 국가들에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일종의 문명 침략 과정을 수반하며, 이 과정에서 비서구 사회들이 서구의 가치관, 제도, 문화를 채택해야 한다는 제국주의 논리로 귀결될 위험이 있다. 제시문은 세계화를 주도하는 서구 선진국들의 문명이 보편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믿음은 설득력이 없다고 강조한다. 또한, 세계화를 통해 비서구 사회가 서구 문명의 방향으로 동질화 되는 것은 자결과 민주주의라는 서구의 가치관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처럼 각 제시문의 입장 및 중심 논지를 정확하게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같은 입장으로 분류한 제시문들을 하나의 통일된 글로 요약, 정리한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논지 정리 과정에서 같은 입장으로 분류된 제시문 사이의 논점 차이까지 고려하여 글을 작성한다면 우수한 답안이라 할 수 있다.



채점등급

- A** 제시문을 올바르게 분류하고, 각 입장에 속하는 제시문들 간의 차이점까지 고려하면서 두 입장의 핵심 논지를 잘 분석하여 기술한 답안
- B** 제시문을 올바르게 분류하고 두 입장의 핵심 논지를 잘 분석하여 기술하고 있으나, 각 입장 내 제시문들 간의 차이점을 효과적으로 부각시키지 못한 답안
- C** 제시문 분류는 올바르게 하였으며 각 제시문에 대한 요약은 적절하게 이루어졌으나, 이를 종합한 두 입장의 핵심 논지가 충실히 기술되지 않은 답안
- D** 제시문 분류는 잘못했으나 두 입장의 핵심 논지 서술은 어느 정도 이루어진 답안
- E** 제시문 분류에도 실패하고 두 입장의 핵심 논지 서술도 충실하지 않은 답안
- F** E 등급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답안

문제 2

국제무역에 참여하는 세계 160개국의 자료를 근거로 도출한 지난 30년간의 세계지표 추이를 보여주는 <자료 1>과, 같은 기간 A국과 B국의 사회·경제지표 변화를 보여주는 <자료 2>를 근거로 [문제 1]의 두 입장을 각각 옹호하시오.



[문제 2]에서는 제시된 두 자료를 근거로 [문제 1]의 두 입장을 각각 옹호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두 자료를 해석하여 세계화의 진전과 그 영향을 [문제 1]의 세계화에 관한 두 가지 상반된 관점에 따라 해석하고 각 자료를 근거로 [문제 1]의 두 입장을 각각 옹호할 수 있어야 한다.

문제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료 1>과 <자료 2>를 해석하고 각 자료에 나타난 현상이 [문제 1]에 등장한 상반된 두 입장과 관련됨을 추론해야 한다. <자료 1>은 국제무역에 참여하고 있는 160개국의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30년간 세계적으로 나타난 소득 불평등과 첨단산업 분야 선진국 기반 다국적 기업 실적의 추이를 제시하고 있다. 이 자료를 통해 지난 30년간 세계화의 진전과 그에 따른 세계 지표의 변화 추이를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먼저, <자료 1-1>은 국가 간 불평등과 국가 내 불평등을 하위 50%의 평균소득 대비 상위 10%의 평균소득 비율로 보여준다. 이 자료를 통해 지난 30년간 국제무역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의 국가 간 소득격차는 2004년을 기점으로 감소하는 반면, 국가 내 불평등은 심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학생들은 이러한 상반된 추이가 [문제 1]의 세계화에 관한 어느 입장을 옹호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국가 간 불평등이 감소하는 것은 자원과 자본, 아이디어 등의 자유로운 무역과 교환이 확대되고 그 결과 세계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국가들의 경제성장에 힘입어 전 세계적으로 소득격차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음을 의미한다. 반면, 국가 내 불평등이 심화된 것은 이러한 경제적 효과가 한 국가 내에서 모든 계층에 동질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즉, 적극적인 개방정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세계화의 경제적 효과는 한 국가 내에서 차등적이며, 세계화의 혜택에서 소외된 계층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또한 <자료 1-2>는 첨단산업 분야의 선진국 기반 다국적 기업 수출액이 2000년대 이후 크게 상승하면서 세계시장 점유율 역시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보여준다. 첨단산업 분야 선진국 기반 다국적 기업의 수출액 증가는 국가 간 무역이 활발해진 결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선진국 기반 다국적 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함께 상승하였다는 점에서 세계화로 인해 국제무역이 활발해짐에 따라 첨단산업 분야의 세계시장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이는 세계화를 통해 국가 간 분업이 활발해지면서 첨단기술의 발전을 주도하는 선진국에 첨단산업이 집중되어 세계 경제의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자료 1-1>과 <자료 1-2>를 연결하여 보면, 세계화는 국가가 무역개방을 통해 산업화와 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임과 동시에 국가 내의 산업구조 변화에 수반되는 내부 충격을 유발하며, 특히 선진국이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가운데 국가 내에서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배경이 된다. 따라서 두 자료를 연계하여 첨단기술의 주도권을 선진국이 장악하게 되면 서 세계화에 동참하는 국가의 개발 과정에서 선진국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할 수 있으며, 비록 세계 경제의 효율성이 높아지더라도 국가 내 불평등은 오히려 심화되는 문제가 공존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자료 2>는 같은 기간 두 국가의 사회·경제지표를 보여준다. 이 자료를 통해 먼저 두 국가가 세계화의 흐름에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 추론할 수 있어야 한다. 두 국가의 수입식품 소비량을 통해 A국에 비해 B국이 지난 30년간 국제무역에 더 개방적이었을 것임을 추론할 수 있으며, 30년이 지난 시점인

2024년 B국의 첨단기술 대외의존도가 크게 상승하였고 결과적으로 기술무역수지비가 크게 낮아졌다는 점에서 <자료 1-2>에서 본 바와 같이 선진국 기반 다국적 기업의 시장지배력이 높아진 데 따른 변화를 추론할 수 있다. 즉, <자료 2>를 통해 B국이 A국에 비해 지난 30년간 세계화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음을 추론하고, B국의 사회·경제지표를 A국과 비교하여 세계화에 대한 [문제 1]의 상반된 두 입장을 각각 옹호할 수 있는 근거로 연결지을 수 있어야 한다.

<자료 2>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0년 전 비슷했던 두 국가의 국민총소득은 2024년에 이르러 2배 이상의 격차를 보이며, 이는 세계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B국의 경제성장이 두드러졌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경제성장과 맞물려 B국은 A국에 비해 도로 보급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이는 국가의 기반 시설이 확충되어 나타나는 발전 양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B국은 30년 전에 비해 영아사망률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 세계화를 통해 보건 위생시설이 개선되고 빈곤이 해결되는 등 사회·경제적 발전을 통해 삶의 여건이 나아진 모습을 보여준다. 또한 2024년 기준 B국은 A국에 비해 인권보장 관련 신규 법안이 더 적극적으로 발의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세계화를 통해 인권이라는 보편타당한 가치와 기준이 전파되는 가운데 B국에서 이러한 보편윤리를 수용하여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지표들은 세계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B국이 경제, 사회, 보건 분야에서의 발전 뿐만 아니라 보편윤리의 확장에 이르는 세계화의 이점을 누린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자료 2>는 세계화의 부작용과 한계를 드러내는 지표를 함께 보여주고 있다. 먼저, B국의 수입 식품 소비량이 증가함에 따라 수입식품 항공 수송 총 거리 역시 크게 늘어났는데, 국제무역량 증가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운송거리의 증가로 이어져 세계화에 수반되는 환경문제가 존재함을 추론할 수 있다. 또한 B국은 불과 30년만에 자국의 고유 언어위기지수가 크게 상승하였다. 이는 세계화 과정에서 B국의 적극적인 개발이 이루어진 한편, 도로망이 더욱 촘촘하게 보급되고 교류가 활발해지며 세계화를 주도하는 선진국의 문명에 더욱 개방적으로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지역 언어가 소멸되고 문화적 다양성이 파괴되는 위기에 봉착하였음을 보여준다. 한편, B국의 첨단기술 대외의존도가 상승하고 기술무역수지비가 낮아진 것은 <자료 1-2>에서 본 바와 같이 첨단산업 분야에서 크게 높아진 선진국의 시장지배력에 B국이 받은 영향을 나타낸다. 또한 A국에 비해 B국은 30년이 지나는 동안 중심도시로의 인구이동이 급격하게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세계화와 무역개방을 통해 B국의 경제발전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중심도시 위주의 개발이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으며, 국가 내의 지역 격차 역시 심화되었을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자료 2>에 나타난 세계화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자료 1>과 연결하여 추론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료 1>과 <자료 2>를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문제 1]의 두 입장과 관련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자료 1>에서는 세계화의 진전에 따른 세계 경제의 변화 양상을 크게 불평등의 관점과 첨단산업의 선진국 중심 시장 재편이라는 관점에서 제시하고 있다. 세계화는 많은 국가의 빈곤을 해결하고 전반적인 삶의 조건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지만, 한 국가 내에 미치는 세계화의 영향은 차등적일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국가 내의 소득 불평등은 더욱 심화된 양상을 보인다. 이는 <자료 2>에서 세계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B국이 경제발전과 삶의 조건 개선을 이룬 반면, 중심도시 위주의 발전으로 지역 간 격차가 커지고 문화적 다양성이 소멸될 위기에 직면하였다는 점과 일맥상통한다. 한편, <자료 1-2>에서 볼 수 있듯이 세계화 과정에서 선진국의 시장지배력이 절대적으로 높아진다

는 점에서 세계화에 참여하는 국가들에게 동일하게 그 혜택이 돌아가기보다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하는 다국적 기업들이 세계 경제의 주도권을 가지게 된다. 이는 <자료 2>에서 제시된 B국의 첨단기술 대외의존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비록 세계화 과정에서 B국은 국민소득 증가와 기반시설 확충 등 발전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인류의 보편타당한 가치를 추종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얻었을지라도, 무역량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문제와 문화적 획일화, 선진국의 시장지배력 강화 등 세계화의 부작용을 함께 경험하고 있음을 종합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문제 2]의 자료는 세계화를 바라보는 상반된 관점을 복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세계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뿐만 아니라 세계화의 흐름에 동참하고 그에 따른 영향을 받게 되는 각 국가의 시각에서 자료를 해석하기 위해 자료 간의 연관성을 추론할 수 있어야 한다. 좋은 답안의 포인트는 [문제 2]에서 제시된 자료의 종합적인 해석을 바탕으로 [문제 1]에서 분류한 세계화에 관한 두 입장을 각각 옹호하는 일관된 논리를 제시하는 것이다.

<제시문 1>은 세계화의 경제적 성과와 삶의 조건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세계화의 순기능을 강조하고 있으며, <제시문 3>은 세계화가 많은 사람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는 데 기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제시문 1>은 세계화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평등의 원인을 세계화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국가들이 서로 다른 경험을 할 뿐이며, <제시문 3>은 오히려 이러한 불평등이 창출하는 새로운 기회가 결국 세상을 이롭게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문제 2]에서 제시된 <자료 1-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세계화가 전 세계적으로 국가 간 소득 불평등을 감소시켰을 뿐만 아니라, <자료 2>에서 A국에 비해 세계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B국에서 국민총소득이 크게 늘어났으며, 도로가 확충되고 영아사망률이 크게 낮아지는 등의 발전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옹호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 한편, <제시문 1>은 세계화가 가져다주는 보편적 가치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은 <자료 2>에서 B국의 인권보장 관련 신규 법안 발의가 늘어나 인류 공통의 보편가치를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된 점을 근거로 옹호할 수 있다.

반면, [문제 1]의 <제시문 2>는 선진국이 주도하는 산업화와 시장 확대 중심의 개발 패러다임에 갇힌 세계화를 지적하며 경제적 효율성에 가려진 국가 간 힘의 차이와 이로 인한 불공정 문제를 지적하고 있으며, <제시문 4>는 서구 문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세계화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문제 2]에서 제시된 <자료 1-2>에서 첨단산업 분야의 선진국 기반 다국적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세계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온 B국의 경우 첨단기술 대외의존도가 크게 높아지고 기술무역수지비가 하락한 현상을 근거로 옹호할 수 있다. <제시문 2>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세계화의 과정에서 첨단기술산업 분야의 중요성이 매우 큰 가운데, 이는 결과적으로 <자료 1-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국가 내 소득 불평등이 심화된 배경이 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세계화의 혜택이 일부 계층 또는 산업분야에 국한된 결과, <자료 2>에서 B국의 중심도시 인구집중도가 크게 상승하여 국가 내 지역 격차가 심화되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선진국 중심의 세계화를 비판하는 입장을 옹호할 수 있다. 또한 <제시문 2>에서는 세계화의 개발 논리의 효율성에 가려진 사회정의와 환경문제를 지적하고 있으며, 이는 <자료 2>에서 B국의 수입식품 항공 수송 총 거리가 크게 증가하며 이에 수반되는 환경파괴의 문제와 연결지어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제시문 2>와 <제시문 4>는 세계화의 과정에서 문화적 다양성이 소멸되고 선진국의 기준이나 서구의 가치관이 보편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자료 2>

에서 B국이 세계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과정에서 언어위기지수가 크게 상승하였다는 점을 제시할 수 있다.

<자료 1>은 세계화의 흐름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경제적 불평등과 세계 시장의 변화를 요약적으로 보여주며, <자료 2>는 세계화의 과정에서 서로 다른 경험을 하는 두 국가의 실태를 비교하여 <자료 1>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세계화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복합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자료 1>의 해석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자료 1>과 <자료 2>를 종합적으로 해석하지 못할 경우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 또한 [문제 1]의 제시문 문구를 단순 반복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각 자료에서 나타난 현상을 [문제 1]의 두 입장을 각각 옹호하는 근거로 연결시켜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중요하다.



채점등급

A

<자료 1>과 <자료 2>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문제 1]의 제시문들과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논리적으로 서술한 답안

B

<자료 1>과 <자료 2>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문제 1]의 제시문들과 연계하여 서술하였으나, 부분적으로 서술의 적절성이나 충분성이 부족한 답안

C

<자료 1>과 <자료 2>를 정확하게 이해했으나 자료의 내용과 [문제 1] 제시문의 내용을 단순 반복하는 수준에 그친 답안

D

<자료 1>과 <자료 2>의 일부만 정확하게 해석했거나, [문제 1]의 제시문들과 잘못 연결 지었거나, [문제 1]의 두 입장 중 하나만 옹호한 불충분한 답안

E

<자료 1>과 <자료 2>를 모두 부정확하게 해석했고 [문제 1]에 등장한 두 입장을 각각 옹호하는 논리가 부적절한 답안

F

<자료 1>과 <자료 2>를 모두 부정확하게 해석했고 [문제 1]에 등장한 두 입장을 각각 옹호하는 논리를 전혀 제시하지 않은 답안

문제 3

C국 정부는 자국 첨단기술의 우위 강화와 자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해외 제조시설을 국내로 복귀시키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이 방안에 대해 본인은 찬성하는지 아니면 반대하는지 오직 하나의 입장을 선택하고, [문제 1]의 제시문과 [문제 2]의 자료를 모두 활용하여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하시오.

채점지침



[문제 3]은 자국 첨단기술의 우위를 강화하고 자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C국의 기업 보조금 및 세제 혜택 제공 방안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 중 오직 하나의 입장을 선택하고, [문제 1]의 제시문과 [문제 2]의 자료를 토대로 자신의 선택을 논리적으로 정당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문제 1]의 제시문들은 세계화의 순기능과 긍정적 효과에 초점을 두고 세계화에 찬성하는 입장과 세계화의 한계와 부정적 결과에 초점을 두고 세계화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분류할 수 있고, [문제 2]의 <자료 1>은 세계화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상반된 추이와 선진국 중심의 시장 재편을 보여주며, <자료 2>는 세계화 동참 수준이 다른 두 국가의 사회·경제지표를 통해 세계화의 순기능과 역기능이 혼재된 양상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 자료들을 통해 [문제 1]의 세계화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입장 중 하나를 선택하여 옹호할 수 있는 논리를 효과적으로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문제 3]에 답을 함에 있어, 먼저 C국 정부의 방안이 세계화에 역행하는 것임을 파악하고 [문제 1]의 제시문과 [문제 2]의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논리를 수립하여야 한다. 주어진 제시문과 자료들을 통해 세계화의 과정에서 전 세계의 국가 간 불평등은 감소한 반면 국가 내 불평등은 심화되었으며, 선진국 기반 다국적 기업의 세계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증가하였음을 파악하여야 한다. 이러한 세계지표에 대한 이해와 함께 세계화에 동참하는 수준이 다른 두 국가의 자료를 통해 세계화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추론할 수 있다. 이때 수입식품의 소비량이 크게 늘고 첨단기술 대외의 의존도가 매우 높아진 B국은 세계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국가임을 파악하고, 이 국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현상을 통해 세계화에 대한 상반된 두 입장을 지지할 근거를 포착해야 한다.

먼저 세계화의 진전으로 부국과 빈국의 격차가 줄어든 것은 세계화로 전 세계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많은 국가들이 빈곤에서 벗어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B국의 급격한 경제성장과 영아사망률의 감소, 도로 보급 수준의 향상은 모두 세계화를 통해 달성한 국가의 발전 모습을 보여주며, B국에서 인권 관련 법안의 발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점은 세계화를 통한 보편윤리의 확장이 한 국가의 법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세계화를 통해 부국과 빈국의 격차가 줄어들고, 한 국가 내에서도 경제가 발전하고 생활의 조건들이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류 보편윤리를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된 긍정적인 측면을 세계화에 역행하는 C국의 정책을 반대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C국의 정책에 반대하는 이유를 [문제 1]의 <제시문 1>과 <제시문 3>, [문제 2]의 <자료 1>과 <자료 2>를 연결하여 체계적으로 논술해야 한다. 즉, 세계화에 동참한 국가들이 보인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과 삶의 조건 개선의 순기능은 <제시문 1>과 <자료 1-1>에서 국가 간 불평등 감소의 추이와 연결하여 주장할 수 있다. <자료 2>에서 세계화에 적극 동참한 B국에서 나타난 국민총소득의 급격한 증가, 기반시설의 확충, 영아사망률 감소, 활발한 인권 법안의 발의와 같은 사회발전 양상이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제시문 1>과 <제시문 3>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세계화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평등은 불가피한 것이지 오히려 환영할 만한 새로운

시장의 기회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자료 1-1>에서 나타난 국가 내 불평등에 대한 비판을 재반박하는 논리까지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세계화로 국가 간 격차는 줄어들었으나 국가 내 격차는 심화되었고 세계시장에서 선진국의 우월적 지위가 더욱 공고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세계화의 혜택이 세계 각국에 고르게 돌아가지 않으며, 불평등의 심화로 약소국의 공동체가 해체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오히려 늘어난 수입식품 소비량은 항공운송 총 거리 증가와 맞물려 있으며 이는 세계화로 인한 환경문제로 이어져 세계화에 참여하지 않는 국가들까지도 환경파괴의 피해를 겪게 만드는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세계화의 부작용이 크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다. 또한 B국의 언어소멸위기가 높아지고 첨단기술 대외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은 선진국 주도의 획일화된 세계화를 경계하는 자료로 해석하여, 자국의 첨단기술을 보호하고 자국 경제의 활성화를 꾀하려는 C국의 정책을 지지하는 논리를 펼칠 수 있다.

따라서 C국의 정책을 지지하는 이유를 [문제 1]의 <제시문 2>와 <제시문 4>, [문제 2]의 <자료 1>과 <자료 2>를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논술해야 한다. 세계화는 선진국이 주도하는 산업화와 시장 확대의 개발 패러다임에 갇혀있고 약소국의 공동체는 약화될 수 밖에 없다는 <제시문 2>의 주장과 <자료 1-2>에서 선진국 기반 다국적 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급격하게 상승하였으며 <자료 2>의 B국의 첨단기술 대외의존도가 크게 상승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자국의 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첨단기술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C국의 정책을 지지할 수 있다. 한편, <제시문 2>와 <제시문 4>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이러한 세계화의 부작용은 비서구 약소국들의 피해로 귀결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C국의 정책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이라는 점을 주장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제시문 4>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세계화는 서구의 가치관을 중심으로 획일화된 세계로 변화되는 문명 침략의 과정이라는 문제를 지적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소멸과 불평등 문제를 강조하는 <제시문 2>를 바탕으로, C국의 정책이 자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며 나아가 세계 사회에서 C국이 지니는 특수성과 강점이 강화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이를 지지하는 논리를 전개할 수 있다. 비록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 세계화의 순기능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보면 C국의 정책안에 대한 반발이 있을 수 있으나, 세계화 과정에서 저개발 국가의 경제적 여건이 실질적으로 개선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료 1-1>과 같이 국가 내 불평등이 심화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세계화의 혜택은 선진국 위주로 돌아간다는 점을 토대로 이를 반박하는 논리까지 전개할 수 있다.

[문제 3]의 핵심은 C국의 정책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정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문제 1]의 제시문과 [문제 2]의 자료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이다. 따라서 세계화에 대한 상반된 두 입장을 [문제 1]의 제시문으로부터 정확하게 도출하고, [문제 2]의 자료로부터 세계화의 순기능과 역기능이 복합적으로 제시된 세계지표와 두 국가의 구체적인 현상을 논리적으로 연결하여 자신의 입장과 판단의 근거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이 좋은 답안의 포인트이다. 또한 자신의 선택과 일치하는 제시문과 자료를 활용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자신의 주장과 반대되는 제시문과 자료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까지 간략하게 포함한다면 문제의 조건에도 부합하고 풍부한 답안을 작성할 수 있다.



채점등급

- A** 해당 정책(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 중 오직 하나를 분명히 선택하여 답하고, 주어진 제시문과 자료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자신의 선택을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정당화한 답안
- B** 해당 정책(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 중 오직 하나를 분명히 선택하여 답하기는 했으나, 주어진 제시문과 자료를 단편적으로 연결하는 데 그치고 주장의 체계성과 논리성이 다소 미흡한 답안
- C** 해당 정책(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 중 오직 하나를 분명히 선택하여 답하기는 했으나, 제시문과 자료의 내용을 단순 반복하는 데 그친 답안
- D** 해당 정책(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 중 오직 하나를 분명히 선택하여 답하기는 했으나, 제시문과 자료를 잘 못 연결하여 주장의 설득력이 낮고 논리적이지 않은 답안
- E** 해당 정책(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 중 오직 하나를 분명히 선택하여 답하지 않고, 제시문과 자료의 내용과는 동떨어진 주장을 제시한 답안
- F** E 등급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답안

2025학년도 논술시험 기출문제

논술시험(언어형 1)

모집단위		전형유형	
수험번호		성명	

답안작성 유의사항

- 가. 시험 시간은 100분이며, 문제별 답안은 반드시 문제별로 해당되는 답안 작성영역에 작성해야 합니다.(문제번호와 답안번호는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 나. 문제별로 해당되는 답안 작성영역에 다른 문제의 답안을 작성한 경우 평가하지 않습니다.
- 다. 답안은 지정된 작성영역 내에 작성해야 하며, 지정된 작성영역을 초과하여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 라. 답안 작성영역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적사항을 기재하면 안됩니다. 인적사항(성명, 서명 등) 또는 답안과 관계없는 표기를 하는 경우 결격처리 될 수 있습니다.
- 마. 흑색 필기구를 사용해야 합니다.(연필·샤프 사용가능, 답안작성 중 필기구 종류 또는 색상 변경 불가)
- 바. 답안 수정 시에는 취소선을 긋거나 지우개로 지워야 하며 수정액이나 수정테이프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사. 답안지 표지 상단에 본인의 인적사항(모집단위, 수험번호, 성명 등)을 기재하고, 감독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문제 1

<제시문 1> ~ <제시문 4>는 건강한 사회공동체와 시민의 역할에 관한 견해를 담고 있다. 제시문들을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시오. (40점)

<제시문 1>

자기 스승 소크라테스를 죽인 아테네 시민들을 용서하지 못했던 플라톤은 민중의 정치 참여에 독성이 있다고 한탄했다. 그 독성을 제거할 만큼의 교육을 받지 못한 다수 민중의 어리석음, 경험 부족, 비전문성, 그리고 개별적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이 국가를 근본에서부터 썩먹는다는 것이었다. 특히 정치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질을 갖추지 못한 다수 시민이 민회에 모여서 중차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몹시 위험하다고 보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여러 정부형태를 민주정과 과두정이라는 두 가지 근본유형으로 나눴다. “가난한 다수 자유민이 최고 권력을 잡을 때는 민주정이고, 부유한 소수 귀족이 최고 권력을 잡을 때는 과두정이다.” 과두정에서는 시민 몇 명이 모든 안전을 심의하는 반면, 민주정에서는 시민 전체가 모든 공무를 결정한다. 후자는 투표로 지도자를 선출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정부에 관여하고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정부형태로 여겨진 것이다. 실제로 고대 아테네 정부는 시민단의 전권 통치라는 원칙, 즉 시민들의 뜻이 언제나 법 위에 있고 법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원칙 위에 세워졌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원칙이 많은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생각했다. 그는 통치자의 수에 상관없이, 즉 정치체의 형식이 무엇이든, 공공을 위해 다스리는 정부는 올바른 정부지만 사적인 이익을 위해 다스리는 정부는 잘못된 정부라고 주장했다. 그는 다수가 정치에 참여하는 사회가 온갖 이해관계들이 무질서하게 충돌하는 싸움판으로 전락할 위험을 경고했다. 그는 이와 같은 역기능을 우려하여, ‘잘못된 정부’를 제거하고 ‘올바른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아테네가 보편타당성을 결여한 시민의 뜻에만 따르기보다는 안정적인 철학적 이성의 토대를 갖춘 법의 지배에 종속되기를 원했다. “법이 지배하는 국가에서는 민중 선동가가 나타나지 않고, 가장 훌륭한 시민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법이 최고 권력을 갖지 못하는 국가에서는 민중 선동가들이 나타난다. 이것은 민중이 다수로 구성된 독재자가 되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시민들이 스스로 다스릴 자질을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나라를 다스리기에 적합한 정치인을 알아볼 판단력조차 결여하기 때문에 감정에 휘둘려서 무도한 선동가에게 권력을 쥐어 준다고 염려했다. 이 경우 국정이 지식과 경험에 따라 합리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결국에는 국가가 쇠퇴하여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철학자들과 입법자들의 이른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결정과 다수 시민의 변덕스럽고 불합리한 결정을 대비시키는 전통은 플라톤에게서나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나 강고하게 뿌리 내리고 있었으며, 이 전통은 그 뒤로도 오랫동안 이어지게 된다.

<제시문 2>

민주주의는 오랜 세월 민중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를 가리키던 개념이었다. 그러나 19세기 이래로 그 단어는 국민주권론에 입각한 대의제 원칙에 따라 선거로 정부와 입법부를 선출하긴 하지만 성인 인구의 상당 부분을 다른 형태의 정치적 참여에서 배제하는 체제도 포함하는 포괄적 용어로 쓰인다. 지난 몇 세기 동안 역사적인 선거권 확대 운동들을 거치면서 대의제, 투표, 선출된 정부는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원칙으로 드높여졌다. 보통선거권이 민주적 정부의 표준적 양상이 되었고, 이러한 대의제 체제에서 시민들은 종종 특별히 중요한 사항에 대해 대표들에게 막대한 재량권을 준다. 그들은 선출된 대표뿐 아니라, 훨씬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행정가, 관료, 공직자, 판사, 넓게는 국제기구들에게까지 권리 행사를 위임한다. 이로 인해 대표들과 각 분야 엘리트가 행사하는 막대한 권한이 결국 국가를 '사실상의 귀족정'으로 바꿀 수도 있다는 문제는 이미 수백 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지만, 투표권이 소수의 전유물에서 모든 성인의 보편적 권리로 확대되는 역사가 각종 운동과 투쟁으로 치열하게 전개되는 과정에서 종종 간과되었다. 그러나 정부 수반과 입법부를 보통선거권에 따라 선출하는 제도가 다수 국가에서 확립된 후에는 민주정 내에서 대의제가 갖는 한계가 더욱 첨예하게 부각되기에 이르렀다. 민주국가의 대의제 정부가 국가를 운영하는 방식뿐 아니라 내용에서도 민주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도처에서 나온다. 선거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선출된 대표들에게 버림받았다고 느끼게 되었다. 선거운동이 종료되면 후보들은 소위 주권자들을 개의치 않는다. 자신의 투표를 정부의 방침을 바꾸지 못한다고 생각하게 된 시민들이 무력감과 좌절감을 느끼고 정치적 효능감을 상실하는 징후가 속출하고 있다. 또한 다수결 규칙을 따르는 한, 대표들이 유권자의 표심을 고려한다고 할지라도 소수자를 배려하지 못하고 다수의 폭정을 제도화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처럼 대의민주주의의 발전 서사에 대해 사람들이 품어왔던 환상이 깨졌다 하더라도, 우리는 정치를 포기할 수 없다. 여전히 정치의 구체적인 사항들이 국민의 삶에 미치는 직접적이고 일상적인, 때로는 치명적인 영향력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민주적으로 선출하는 데서 정치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대의제의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는 한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성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소규모 정치체제의 집회가 분명 유리하다. 단위가 작을수록 참여의 잠재적 가능성은 점점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큰 단위에서도 시민 소외를 극복하고 구성원들이 쉽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 현대 국가에는 타국보다 크건 작건 일련의 독자적인 결사체와 조직, 즉 다원적인 시민사회가 필요하다. 나라가 큰 경우에는 작은 경우보다 오히려 더 기존의 대의제를 넘어서는 정치가 요구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이민자의 증가와 함께 문화다양성의 수용 문제가 불거지면 더욱 많은 감정적 대립과 이해관계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갈등이 끊지 않도록 오히려 단기적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표면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 밖에도 소수자 권리를 포함한 잠재적 쟁점들을 공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적실성이 높은 정책 대안들을 따져보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들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가 확산되어야 하고, 그런 토론을 현실 정치에 적절하게 반영하기 위한 기술을 고민해야 한다. 보통의 시민이 지역사회나 국가 같은 단위 내에서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확신하지 못하고 혼란을 느낀다면, 이는 공동체를 결속하는 사회적 가치와 기본적 신뢰가 크게 잠식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이 초래할 수 있는 문제를 인식하고, 대의제가 떠받치지 못하는 정치적 신뢰를 적극적으로 회복하고 시민 소외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시문 3>

학자들은 말합니다. “옛날에는 덕을 귀하게 여기고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천하게 여겼습니다. 백성을 덕으로 인도하면 백성들은 서로에게 후하게 대할 것이고, 이득만 보여주면 민간의 풍속은 각박해질 겁니다. 각박해지면 도리에 맞게 해야 할 일들을 위배하고 이익되는 일만 추구할 것입니다. 도덕과 교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거짓이 횡행해서 예의가 파괴되고, 간사한 사람들이 활개치며 나랏일에 참여하는 상황을 두고 인(仁)과 의(義)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는 사회 혼란의 씨입니다. 백성을 안정시키고 나라를 부유하게 하는 길은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만물을 낳는 하늘의 이치에 순응하여 군주는 백성들을 사랑하고 정의를 중시하며 예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오늘날 덕보다 이익을 우선시하는 풍속이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하지만 학자집단은 현실을 모르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돌아올 이익만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본질입니다. 상인들이 돈을 벌기 위해 무엇이든 해서 치욕스러운 일을 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군사가 죽을힘을 아끼지 않고, 관직에 있는 사람이 부모를 염두에 두지 않고 군주 섬기기에 열중하여 어려운 일을 피하지 않는 것은 모두 실익과 녹봉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공자가 아무리 인과 의를 부르짖어도 백성들이 교화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유가와 묵가들은 속으로는 탐욕스러우면서 겉으로는 마치 욕심이 없는 것처럼 자신의 정치적 주장을 설득하기 위해 왔다 갔다 하느라 바쁜데, 이 또한 무언가 얻어내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사리사욕을 가지고 이들이 정치에 참여하면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제대로 된 정치를 하는 사람은 모든 백성이 선하다고 전제하지도 않고, 저절로 착해지기를 기다릴 수도 없습니다. 성인(聖人)이 어느 정도 백성들의 행동을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는 있겠지만 그 본바탕은 바꾸지 못합니다. 내적인 자질이 없는데 글만 가르치는 것은 아무리 현명한 스승과 좋은 친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간만 낭비하고 힘만 들이는 일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회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백성을 엄격한 상과 벌로 다스려야 합니다. 이 상벌은 성인이 시대에 맞는 옳고 그름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질서가 바로잡힌 세상과 혼란한 세상을 잘 관찰하여 정한 것입니다. 이를 따르기만 하면 백성들은 그들이 원하는 이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서로 정의감과 동정심만 앞서면 당장은 자신들이 가진 입을 것, 먹을 것 나누기를 안일하게 즐기겠지만, 막상 흉년 등의 위기 상황이 닥쳐오면 서로에게 못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모두에게 적용되는 규범을 우선시하면 처음에는 욕심을 절제해야 하기에 고통스러울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득이 있습니다. 그러면 속으로는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간사한 피로 사랑과 정의를 부르짖는 자들이 합부로 정치에 참여하여 혼란을 초래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로써 사회의 혼란을 막고 백성들이 잘 따르게 만들면 백 배의 이익을 남기는 국가적 사업을 도모할 수 있으며, 백성들도 기꺼이 세금을 낼 것입니다. 넉넉한 국가 재정으로 각종 제도가 완비되고 식량도 여유 있게 비축되면 나라가 안정되고 백성의 삶도 풍요로워집니다.

<제시문 4>

법을 위반하려는 저희의 뜻에 대해 다들 많은 우려를 표명하셨습니다. 충분히 그런 걱정을 하실 만도 합니다. 우리는 공립학교에서의 인종 차별을 금지한 1954년 대법원 판결을 준수하도록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촉구하고 있으므로, 우리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 만들어진 다른 법률을 의식적으로 어긴다는 것은 다소 이상하고 역설적인 일입니다. 누군가는 “어떻게 일부 법을 어기면서 다른 법을 준수하는 것을 옹호할 수 있나요?”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법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는 사실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정당한 법과 부당한 법이 있습니다. 저는 정당한 법에 복종하는 것을 적극 옹호할 것입니다. 사람은 정당한 법을 준수해야 할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도덕적 책임도 있습니다. 반대로 부당한 법에는 불복종할 도덕적 책임이 있습니다. 인간의 인격을 고양하는 법은 정의로운 법입니다. 인간의 인격을 비하하는 모든 법은 부당합니다. 인종 분리는 영혼을 왜곡하고 인격을 훼손하기 때문에 모든 분리법은 부당합니다. 분리된 사람들에게 거짓된 열등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정당한 법과 부당한 법에 관해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부당한 법이란 다수가 소수에게 가하는 규범으로서, 정작 다수는 그 법에 의해 구속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차이를 법률로 제정한 것입니다. 반면에 정당한 법은 다수가 스스로 기꺼이 따를 규범을 소수에게도 따르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일성을 법률로 제정한 것입니다. 정의롭지 못한 법은 소수에게 부과된 규범으로, 그 소수에게는 투표권이 없었기 때문에 그 법을 제정하는 데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습니다. 인종 분리법을 제정한 앨라배마(Alabama) 주 의회가 정당하게 잘 선출되었다고 누가 말할 수 있을까요? 앨라배마 주 전역에서는 흑인이 유권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온갖 편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흑인이 인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데도 정작 유권자로 등록된 흑인은 단 한 명도 없는 마을도 있습니다. 법이 겉모습만 그럴듯할 뿐, 그 적용은 부당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금요일에 허가 없이 행진한 혐의로 체포당했습니다. 행진에 허가를 받도록 하는 조례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그 조례가 인종 차별을 유지하는 데 사용되고, 시민들의 정치적 참여를 보장하며 평화로운 집회와 시위의 권리를 규정한 우리 헌법을 부정하는 데 사용된다면 그것은 부당한 것이 됩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차이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인권과 공공선을 위한 양심적이고 평화적인 행위를 지지하는 것이며, 어떤 의미에서도 광적인 분리주의자처럼 법을 회피하거나 무시하는 것을 옹호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행위는 심각한 무질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행법 하에서 엄연히 존재하는 의견 대립과 갈등을 표면에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여 마냥 억누르기만 해서는 소수를 억압하는 법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선을 믿고 만인을 위한 판단에 따라 부당한 법을 어기려는 사람은 공개적으로, 사랑으로 그렇게 해야 하며, 기꺼이 그에 대한 처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양심에 비추어 부당한 법률을 어기고, 그 부당함에 대한 공동체의 양심을 일깨우기 위해 감옥에 갇혀 기꺼이 형벌을 받아들이는 개인이야말로, 사실 법에 대한 최고의 존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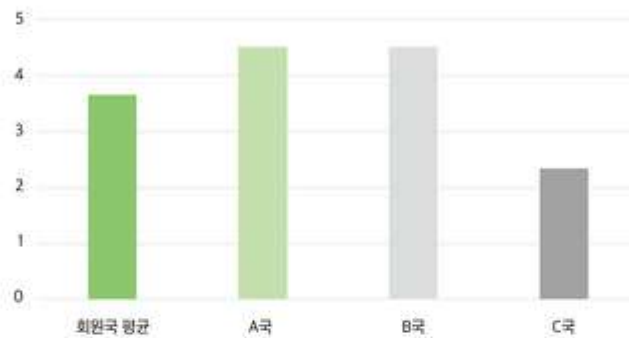
문제 2

다원적 민주주의와 인권 존중을 기본가치로 공유하는 전 세계 40여 국이 가입된 국제기구에서 매년 각국 시민들의 사회 활동 경험 및 사회지표를 조사하고 있다. 이 국제기구의 회원국인 세 국가의 2023년 조사 결과를 보여주는 <자료 1>과 <자료 2>를 활용하여 [문제 1]의 두 입장을 각각 옹호하시오.¹⁾ (40점)

주1) 자료에 제시된 정보 이외의 다른 모든 조건은 A, B, C국에서 동일하다고 가정함.

자료 1

사회 활동 경험²⁾



주2) 국민청원, 정책공청회, 서명운동, 시민단체 활동에 참여한 정도를 종합하여 0(최저)~5(최고)점으로 나타냄.

자료 2

사회지표

항목	회원국 평균	A국	B국	C국
12년 의무교육 기간 중 정치사회화 교육 기간(년)	9	4	12	9
정치 효능감 ³⁾	36	47	46	21
의견 대립 지수 ⁴⁾	34.1	55.3	39.3	40.5
사회적 갈등관리 비용(% ⁵⁾	3.2	6.4	3.1	2.3
기피시설 건립 반대 지역주민 시위 건수(인구 만 명당)	0.6	2.4	0.6	0.3
정부 효과성 ⁶⁾	15	0.9	1.7	2.3
좋은 나라 지수 ⁷⁾	0	-3	4	-2

주3) 시민 스스로 정치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믿음의 강도(최소 0, 최대 50).

주4)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해 성별, 연령, 지역 등에 따라 의견이 다른 정도(최소 0, 최대 100).

주5) 사회적으로 표출된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공공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주6) 정부의 정책 수립 및 이행 능력, 정치적 압력으로부터의 독립 정도(최대 2.5).

주7) 번영, 형평, 복지 수준을 종합한 회원국 간 비교 평가 지수(최소 -10, 최대 10).

문제 3

D국 정부는 정책 결정 과정의 초기 단계부터 해당 정책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정부 법안을 발의하려고 한다. 학생이 D국 국민이라면 이 법안에 찬성할지 또는 반대할지 오직 한 가지 입장을 선택하고, [문제 1]의 제시문과 [문제 2]의 자료를 모두 활용하여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하시오. (20점)

Blank lined area for writing.

2025학년도 논술시험 기출문제

해설[언어형 1]

문항

문제 1

<제시문 1> ~ <제시문 4>는 건강한 사회공동체와 시민의 역할에 관한 견해를 담고 있다. 제시문들을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시오. (40점)

일반 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 선다형고사	
전형명	202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우수전형	
계열(과목) / 문항번호	언어형 1교시 / 1번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사회(통합사회, 정치와 법), 도덕(윤리와 사상, 생활과 윤리), 국어(화법과 작문)
	핵심개념 및 용어	시민 참여, 시민불복종, 정치 참여
예상 소요 시간	40분 / 전체 100분	

출제 의도

[문제 1]의 출제 의도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들이 주어진 주제에 대해 논리적으로 분석·사고하고 본인의 생각을 글로 논술하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이 문제는 건강한 사회공동체와 시민의 역할이라는 주제에서 시민 참여의 필요성과 순기능을 강조하는 입장과 시민 참여의 한계 및 역기능을 강조하는 입장으로 분류하고 두 입장의 논지를 요약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입장을 구성하는 다양한 주장들로부터 각 입장의 핵심 특징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각 입장의 논지를 종합적으로 서술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각 제시문의 난이도는 수능능력시험 국어영역 지문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여 수험생들의 지문 이해와 정확한 분류 및 요약 능력을 평가하고자 했다.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 2015-74호 [별책 5]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 2015-74호 [별책 6] "도덕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 2015-74호 [별책 7] "사회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1. 교과명: 사회	
	과목명: 통합사회	관련
	성취기준1	[10통사01-03]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으로 질 높은 정주 환경의 조성, 경제적 안정, 민주주의의 발전 및 도덕적 실천이 필요함을 설명한다. [문제 1] 제시문 2, 4
	성취기준2	[10통사04-02] 인간 존엄성 실현과 인권 보장을 위한 헌법의 역할을 파악하고, 준법 의식과 시민 참여의 필요성에 대해 탐구한다. [문제 1] 제시문 2, 4
	과목명: 정치와 법	관련
	성취기준1	[12정법03-01]민주 국가의 정치과정을 분석하고, 시민의 정치 참여의 의의와 유형을 탐구한다. [문제 1] 제시문 2, 4
	성취기준2	[12정법03-03] 정당, 이익집단과 시민단체, 언론의 의의와 기능을 이해하고, 이를 통한 시민 참여의 구체적인 방법과 한계를 분석한다. [문제 1] 제시문 2, 4
	2. 교과명: 도덕	
	과목명: 생활과 윤리	관련
	성취기준1	[12생윤03-03] 국가의 권위와 의무,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동서양의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하고, 민주시민의 자세인 참여의 필요성을 제시할 수 있다. [문제 1] 제시문 1, 2, 3, 4
	과목명: 윤리와 사상	관련
	성취기준1	[12윤사04-04] 민주주의의 사상적 기원과 근대 자유민주주의를 탐구하고, 참여민주주의와 심의민주주의 등 현대 민주주의 사상들이 제시하는 가치 규범을 이해하여, 바람직한 민주시민의 자세에 대해 토론할 수 있다. [문제 1] 제시문 1, 2, 3, 4
	3. 교과명: 국어	
	과목명: 화법과 작문	관련
	성취기준1	[12화작03-01]가치 있는 정보를 선별하고 조직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쓴다. [문제 1]

※ 국어 문항의 경우 국어과 교육과정의 내용을 제시

나) 자료 출처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윤리와 사상	황인표 외	교학사	2018	166-169	제시문 1	예
세계사	김형중 외	금성	2017	106-109	제시문 1	예
윤리와 사상	박찬구 외	씨마스	2018	168-175	제시문 1, 2, 4	예
윤리와 사상	류지한 외	비상	2018	186-193	제시문 1, 2, 4	예
윤리와 사상	황인표 외	교학사	2018	194-203	제시문 1, 2, 4	예
윤리와 사상	박찬구 외	씨마스	2018	192-199	제시문 1, 2, 4	예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정치와 법	정필운 외	비상	2018	94-101	제시문 2	예
정치와 법	이경호 외	미래엔	2018	82-87	제시문 2	예
정치와 법	모경환 외	금성	2018	77-87	제시문 2	예
통합사회	이진석 외	지학사	2017	112-118	제시문 2	예
동아시아사	최원삼 외	금성	2017	56-57	제시문 3	예
동아시아사	김태웅 외	미래엔	2017	62-63	제시문 3	예
화법과 작문	박영목 외	천재교육	2018	130-139	논제	예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누가 민주주의를 두려워하 는가: 지성사로 보는 민주 주의 혐오의 역사	김민철	창비	2023	35-39	제시문 1	예
민주주의에 반대한다: 무능 한 민주주의를 향한 도전적 비판	제이슨 브레넌	아라크네	2023	160-171	제시문 1	예
민주주의	로버트 달	동명사	2018		제시문 2	예
시민권력은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가	존 레스타키스	착한책가게	2022	19, 53	제시문 2	예
Counter-Democracy	Pierre Rosanvall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제시문 2	예
Democratic Legitimacy	Pierre Rosanvall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1		제시문 2	예
Good Government	Pierre Rosanvallon	Harvard University Press	2018		제시문 2	예
엄철론(嚴鐵論)	환관	소명출판	2002	28-180	제시문 3	예
버밍엄 시립 감옥에서 동료 성직자들에게 보낸 편지	마르틴 루터 킹		1963		제시문 4	예

[문제 1]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시민 참여의 필요성과 순기능을 강조하는 입장과 한계 및 역기능을 강조하는 입장에 근거하여 건강한 사회공동체의 시민 역할에 대해 시민의 역량 및 자질 부족,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시민의 본질적 특성, 대의제의 한계와 시민 참여의 보완적 기능, 시민의 정치 참여의 본질이라는 네 가지 다른 맥락에서 논의하는 제시문들을 나열하고, 그것들을 두 가지 입장으로 분류·요약하라는 문제이다. 총 네 개의 제시문은 시민 참여에 관한 서로 다른 관점인 순기능 강조 입장과 역기능 강조 입장으로 분류할 수 있다. [문제 1]에서는 문제의 요구에 따라 제시문들을 정확하게 이해·분류하고 그 요지를 논리적으로 요약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한다. 제시문들은 고등학교 교과서 및 관련 문헌에서 발췌해 출제진이 재구성하였다. 각 제시문의 난이도는 대학 수능능력시험 국어영역 지문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여 수험생들의 지문 이해와 정확한 분류 및 요약 능력을 평가하고자 했다. 제시문의 분류 및 각 제시문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i) 시민 참여의 필요성과 순기능: <제시문 2>, <제시문 4>

시민 참여의 필요성과 순기능을 강조하는 <제시문 2>와 <제시문 4>는 시민 참여의 활성화를 주장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제시문 2>가 대의제라는 정치 제도의 차원에서 시민 참여의 순기능을 강조한 반면 <제시문 4>는 시민 불복종이 사회 발전과 제도 개혁에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시민의 정치 참여를 시민의 권리와 책임이라는 본질적인 차원에서 설명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ii) 시민 참여의 한계와 역기능: <제시문 1>, <제시문 3>

시민 참여의 한계와 역기능을 강조하는 <제시문 1>과 <제시문 3>은 시민의 본질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시민 참여의 한계를 설명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제시문 1>이 시민의 역량 부족을 근본적 이유로 강조한 반면 <제시문 3>은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시민의 동기적 특성에 주목하고 시민의 역할은 지도자의 지배에 따르는 수동적인 역할에 국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제시문 1>은 교육을 받지 못한 다수의 시민들은 정치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역량과 판단력을 갖추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감정에 쉽게 휘둘리는 존재라고 본다. 반면 철학자, 입법자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으므로 이들에 의해 정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제시문 2>는 대의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민 참여를 강조한다. 선출된 대표에 의한 대의제 정치는 일반 시민들을 정치로부터 소외시키며, 이들의 정치적 효능감을 낮추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또한 사회가 다원화될수록 각종 이해관계가 얽히게 될 수밖에 없는데, 시민의 정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로 인한 갈등이 표면화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더 큰 병폐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제시문 3>은 인간은 본래 사익을 추구하는 존재이며 변화시키는 것이 어렵다고 강조한다. 즉 인간의 본질적 특성으로 인해 시민의 정치 참여는 사회에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본다. 시민은 참여의 주체가 아닌 성인과 같은 지도자의 지배에 따르는 수동적인 역할에 국한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안정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피력한다.

<제시문 4>는 시민불복종의 개념을 통해 시민 참여의 의의와 필요성을 피력한다. 시민불복종은 공공

의 이익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도덕적 책임에 근거하여 법이나 정책에 맞서는 의도적인 위법 행위를 뜻한다. 시민은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감수하면서 공공선을 추구할 수 있는 존재로 이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좋은 답안 작성의 포인트는 건강한 사회공동체를 위한 시민의 참여라는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각 제시문의 중심 주장과 근거를 정확하게 포착하여 '시민 참여의 필요성과 순기능을 강조하는'는 입장과 '시민 참여의 한계와 역기능을 강조하는'는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에 속한 제시문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요약문을 작성하는 것이다. 제시문 각각에 대한 요약이 답안에 충분히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상반된 두 입장의 내용이 해당 제시문들의 주장을 포괄하여 잘 정리되었다면 감점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제시문 각각의 내용을 잘 요약했더라도 이를 종합하여 상반된 두 입장의 내용을 정리하지 못했다면 감점할 수 있다.

기본적인 독해력을 갖춘 학생이라면 어렵지 않게 분류할 수 있을 것이므로, 제시문을 분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 입장의 내용을 명확하고 적절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각 제시문의 입장 및 중심 논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같은 입장으로 분류한 제시문들을 하나의 통일된 글로 요약·정리한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논지 정리 과정에서 같은 입장으로 분류된 제시문들 간 논점 차이까지 적절히 고려하여 글을 작성한다면 우수한 답안이라고 할 수 있다.



채점 포인트

- ① 시민 참여의 필요성과 순기능을 강조하는 입장과 한계 및 역기능을 강조하는 입장을 정확히 분류하였는가?
- ② 각 입장을 빠짐없이 정확하게 요약하였는가?
- ③ 두 입장을 통합적으로 요약하였는가? (제시문별로만 요약하고 통합적으로 요약하지 않은 경우 감점 요인)



채점등급

- A** 제시문을 올바르게 분류하고, <제시문 1, 3>과 <제시문 2, 4>의 차이점이나 관계까지 충분히 고려하면서 두 입장의 핵심 논지를 통합적으로 잘 분석하여 기술한 답안
- B** 제시문을 올바르게 분류하고 두 입장의 핵심 논지를 잘 분석하여 기술하고 있으나, <제시문 1, 3>과 <제시문 2, 4>의 차이점이나 관계를 효과적으로 부각시키지 못한 답안
- C** 제시문 분류는 올바르게 하였으며 각 제시문에 대한 요약은 적절하게 이루어졌으나, <제시문 1, 3>과 <제시문 2, 4>를 종합한 입장의 핵심 논지가 제대로 기술되지 않은 답안
- D** 제시문 분류는 잘못했으나 두 입장의 핵심 논지 서술은 어느 정도 이루어진 답안
- E** 제시문 분류에도 실패하고 두 입장의 핵심 논지 서술도 제대로 안 된 답안
- F** E 등급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답안



제시문들은 건강한 사회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시민의 역할을 시민 참여의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 <제시문 1>과 <제시문 3>은 시민의 정치 참여를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시민 참여의 한계와 역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제시문 2>와 <제시문 4>는 정치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시민 참여의 필요성과 순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시민 참여의 역기능을 강조하는 입장 중 <제시문 1>은 교육을 받지 못한 다수의 시민들은 정치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감정에 쉽게 휘둘리는 존재라고 본다. 또한 이들은 공공선보다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정치 과정에 참여할 경우 각종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갈등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설명한다. 반면 철학자, 입법자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으므로 이들에 의해 정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제시문 3>은 인간은 본래 사익을 추구하는 존재이며 변화시키는 것이 어렵다고 강조한다. 즉 인간의 본질적 특성으로 인해 시민의 정치 참여는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본다. 시민은 참여의 주체가 아닌 성인과 같은 지도자의 지배에 따르는 수동적인 역할에 국한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안정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피력한다. 두 제시문은 시민의 본질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시민 참여의 한계를 설명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제시문 1>이 시민의 역량 부족을 근본적 이유로 강조한 반면 <제시문 3>은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시민의 동기적 특성에 주목하고 시민의 역할은 지도자의 지배에 따르는 수동적인 역할에 국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시민 참여의 순기능을 강조하는 입장 중 <제시문 2>는 대의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민 참여를 강조한다. 대표에 의한 정치는 일반 시민들을 정치로부터 소외시키며, 이들의 정치적 효능감을 낮추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또한 사회가 다원화될수록 각종 이해관계가 얽히게 될 수밖에 없는데 시민의 정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로 인한 갈등이 표면화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더 큰 병폐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제시문 4>는 시민불복종의 개념을 통해 시민 참여의 의의와 필요성을 피력한다. 시민불복종은 공공의 이익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도덕적 책임에 근거하여 법이나 정책에 맞서는 의도적인 위법 행위를 뜻한다. 시민은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감수하면서 공공선을 추구할 수 있는 존재로 이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제시문 2>가 대의제라는 정치 제도의 차원에서 시민 참여의 순기능을 언급하였다면, <제시문 4>는 시민 불복종이 사회 발전과 제도 개혁에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시민의 정치 참여를 시민의 권리와 책임이라는 본질적인 차원에서 설명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문항

문제 2

다원적 민주주의와 인권 존중을 기본가치로 공유하는 전 세계 40여 국이 가입된 국제기구에서 매년 각국 시민들의 사회 활동 경험 및 사회지표를 조사하고 있다. 이 국제기구의 회원국인 세 국가의 2023년 조사 결과를 보여주는 <자료 1>과 <자료 2>를 활용하여 [문제 1]의 두 입장을 각각 옹호하시오. ¹⁾ (40점)

주1) 자료에 제시된 정보 이외의 다른 모든 조건은 A, B, C국에서 동일하다고 가정함.

일반 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 선다형고사	
전형명	202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우수전형	
계열(과목) / 문항번호	언어형 1교시 / 2번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사회(통합사회, 정치와 법), 도덕(윤리와 사상, 생활과 윤리), 국어(화법과 작문)
	핵심개념 및 용어	시민 참여, 시민불복종, 정치 참여
예상 소요 시간	40분 / 전체 100분	

출제 의도

[문제 2]는 자료해석과 설명형 문항으로, 주어진 자료를 정확하게 해석하여 [문제 1]에서 제시된 네 입장과 관련된 성을 분석하고 이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자료 1>은 A, B, C 세 국가의 시민 참여 정도의 상대적 차이를 타 국가들(제시문의 회원국)의 평균과 함께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A와 B국은 동일한 수준의 시민 참여 정도가 관찰되며, 회원국들의 평균보다 높은 값을 갖는다. 반면, C국은 회원국들의 평균보다 낮은 시민 참여의 수준을 보인다. [자료 2]는 회원국을 비롯한 A, B, C국의 사회지표들을 보여준다. 두 자료에 제시된 내용을 토대로 자료의 의미를 정확히 분석하고 각 자료를 시민 참여의 순기능과 역기능과 연관지어 설명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 2015-74호 [별책 5]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 2015-74호 [별책 6] "도덕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 2015-74호 [별책 7] "사회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1. 교과명: 사회	
	과목명: 통합사회	관련
	성취기준1	[10통사01-03]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으로 질 높은 정주 환경의 조성, 경제적 안정, 민주주의의 발전 및 도덕적 실천이 필요함을 설명한다. [문제 2] 자료 1, 2
	성취기준2	[10통사04-02] 인간 존엄성 실현과 인권 보장을 위한 헌법의 역할을 파악하고, 준법 의식과 시민 참여의 필요성에 대해 탐구한다. [문제 2] 자료 1, 2
	과목명: 정치와 법	관련
	성취기준1	[12정법03-01] 민주 국가의 정치과정을 분석하고, 시민의 정치 참여의 의의와 유형을 탐구한다. [문제 2] 자료 1, 2
	성취기준2	[12정법03-03] 정당, 이익집단과 시민단체, 언론의 의의와 기능을 이해하고, 이를 통한 시민 참여의 구체적인 방법과 한계를 분석한다. [문제 2] 자료 1, 2
	2. 교과명: 도덕	
	과목명: 생활과 윤리	관련
	성취기준1	[12생윤03-03] 국가의 권위와 의무,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동서양의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하고, 민주시민의 자세한 참여의 필요성을 제시할 수 있다. [문제 2] 자료 1, 2
	과목명: 윤리와 사상	관련
	성취기준1	[12윤사04-04] 민주주의의 사상적 기원과 근대 자유민주주의를 탐구하고, 참여민주주의와 심의민주주의 등 현대 민주주의 사상들이 제시하는 가치 규범을 이해하여, 바람직한 민주시민의 자세에 대해 토론할 수 있다. [문제 2] 자료 1, 2
	3. 교과명: 국어	
	과목명: 화법과 작문	관련
	성취기준1	[12화작03-01] 가치 있는 정보를 선별하고 조직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쓴다. [문제 2]

※ 국어 문항의 경우 국어과 교육과정의 내용을 제시

나) 자료 출처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정치와 법	모경환 외	금성출판사	2018	82-83, 98-100	자료 2	예
정치와 법	정필운 외	비상교육	2018	94-101	자료 2	예
정치와 법	김왕근 외	천재교과서	2018	78-85	자료 2	예
통합사회	이진석 외	지학사	2017	18-131	자료 2	예
정치와 법	이경호 외	미래엔	2018	12-109	자료 2	예
통합 사회	육근록 외	동아출판	2017	15-39, 172-219	자료 2	예
경제	김종호 외	씨마스	2018	35-49	자료 2	예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경제	김진영 외	미래엔	2018	32-43	자료 2	예
사회문화	신형민 외	비상교육	2017	165-170	자료 2	예
화법과 작문	박영목 외	천재교육	2018	140-162	논제	예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해당없음						

문항 해설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의 사고가 요구된다.

첫째, 수험생은 <자료 1>의 사회 활동 경험 조사에서 A와 B국은 거의 같은 수준에서 시민 참여 활동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회원국들의 평균보다 높다는 점을 파악해야 한다. 아울러 C국의 시민 참여 활동이 회원국들의 평균보다 낮다는 점도 함께 파악해야 한다. 이를 통해 A국과 B국은 시민 참여가 높은 사회로 해석하고 C국은 시민 참여가 낮은 사회로 해석하여야 한다.

둘째, 수험생은 <자료 2>의 지표 중 '정치 효능감'을 이용하여, [문제 1]의 <제시문 2, 4>에서 제시하는 시민 참여의 순기능을 지지하는 근거로 활용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시민 참여가 높은 A국과 B국의 정치 효능감이 C국보다 높으므로 시민 참여의 긍정적 측면을 유추해 낼 수 있다. 반면 수험생은 '사회적 갈등관리 비용', '기피시설 건립 반대 지역주민 시위 건수', '정부 효과성'의 지표를 이용하여 [문제 1]의 <제시문 1, 3>에서 제시하는 시민 참여의 역기능 입장을 지지하여야 한다. 이 지표들은 시민 참여가 가지는 한계점과 역기능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시민 참여가 높은 사회에서 사회적 갈등 비용이 높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기피시설 건립 반대 지역주민 시위와 같이 특정 집단의 이기주의로 나타나거나, 정부의 효율적인 운영이 저해되고 있음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수험생은 <자료 1>에 제시된 A, B국의 시민 참여가 유사하게 나타났음에도 <자료 2>에 제시된 사회지표에서 다른 양상을 보이는 이유를 파악해야 한다. A국과 B국은 <자료 2>의 '12년 의무교육 기간 중 정치사회화 교육 기간'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A국이 B국에 비하여 의무교육을 통해 전 국민의 정치사회화 경험을 제공하는 기간이 짧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상대적으로 A국 국민들의 정치적 역량이 부족할 것임을 파악하여, [문제 1]의 <제시문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자질을 갖추지 못한 다수의 경험이 부족한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이 오히려 사회의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B국에 비해 A국은 의견 대립이 더 높게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관리 비용 역시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기피시설 건립 반대 지역주민 시위 건수는 회원국 평균에 비해 4배나 높게 나타나는데, 이로부터 특정 집단의 이기적인 행태가 나타나고 있으며 좋은 나라 지수 역시 회원국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문제 1]의 <제시문 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사리사욕만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함으로 인해, 오히려 사회의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졌음을 파악해야 한다.

넷째, [문제 2]에서 C국은 사회적 갈등관리 비용이 회원국 평균과 A, B국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고 정부 효과성이 높다. 이로부터 시민들의 탐욕스러운 본성이 드러나거나(<제시문 3>), <제시문 1>에 언급된 바와 같이 시민 참여로 인해 이해관계가 무질서하게 충돌하거나 갈등이 표면화될 가능성은 적었던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그 결과, 정부의 갈등관리 비용 지출이 줄고, <제시문 3>에 언급된 바와 같이 나라가 안정될 수도 있다. 그러나 <자료 2>의 C국 의견 대립 지수가 회원국 평균보다 높다는 점에서, 이 국가에 표출되지는 않았지만 내재된 갈등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좋은 나라 지수를 보면 C국의 번영, 형평, 복지 수준이 회원국 평균보다 낮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제시문 2, 4>에 언급된 바와 같이 비록 감정적 대립과 이해관계의 충돌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건강한 사회공동체를 위해서는 갈등이 끓지 않도록 표면화시켜야 한다는 주장과 공공선을 위한 시민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채점 포인트

- ① <자료 1> ~ <자료 2>를 각각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석하였는가?
- ② <자료 1> ~ <자료 2>를 [문제 1]의 두 입장을 지지하는 근거로 활용하였는가?
- ③ 각 자료의 내용이 해당 입장을 어떻게 정당화하는지 논리적으로 충분히 설명하였는가?



채점등급

- A** <자료 1> ~ <자료 2>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문제 1]의 제시문들과 연계하여 각 자료의 내용을 활용하여 두 입장을 정당화하는 논리적인 설명을 충분히 제시한 답안
- B** <자료 1> ~ <자료 2>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문제 1]의 제시문들과 연계하여 각 자료의 내용을 활용하여 두 입장을 정당화하였으나 그 내용이 불충분하고 논리성이 다소 부족한 답안
- C** <자료 1> ~ <자료 2>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문제 1]의 제시문들과 정확히 연계는 하였으나, 각 자료의 내용을 활용하여 두 입장을 정당화하는 논거가 불분명하고 주장의 논리성이 현저히 낮은 답안
- D** <자료 1> ~ <자료 2>를 정확히 이해하였으나, [문제 1]의 제시문들을 각 자료의 내용과 잘못 연결지었거나 두 입장 중 어느 하나만을 설명한 불충분한 답안
- E** <자료 1> ~ <자료 2>를 모두 부정확하게 이해하여 [문제 1]에 등장한 두 가지 입장에 대한 부적절한 설명을 제시한 답안
- F** <자료 1> ~ <자료 2>를 모두 부정확하게 이해했고 [문제 1]에 등장한 두 가지 입장에 대한 설명을 전혀 제시하지 않은 답안



<자료 1>의 '사회 활동 경험' 그래프는 각 국가에서 시민 참여가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A국과 B국은 모두 회원국 평균에 비해 시민 참여가 높은 반면, C국의 시민 참여는 회원국 평균에 비해 낮다. <자료 2>에 제시된 '12년 의무교육 기간 중 정치사회화 교육 기간'을 보면 회원국 평균이 9년인 것에 비해 A국은 4년, B국은 12년으로, A국과 B국은 시민 참여의 정도는 유사하지만 시민들의 정치사회화 수준에서는 차이가 있어 참여의 성숙도가 다를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

<자료 2>의 사회지표를 보면, 시민 참여가 높은 A, B국은 C국에 비해 정치 효능감이 높다는 점에서 시민 참여의 긍정적인 면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제시문 2>에서 대의제의 한계로 인해 시민들이 정치 무력감에 빠지는 문제를 해소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사회화 수준이 낮은 A국은 B국과 C국에 비해 의견 대립이 더 높게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관리 비용이 높고, 기피시설 건립 반대 지역주민 시위 건수는 회원국 평균에 비해 4배나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로부터 A국에서 나타나는 시민 참여의 특성이 <제시문 3>에 언급된 사리사욕만을 중시하는 특정 집단의 이기적인 행태임을 이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높고, 좋은 나라 지수 역시 회원국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제시문 1>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정치사회화 수준이 낮은 시민들의 참여는 국가의 쇠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B국의 좋은 나라 지수가 다른 두 국가 및 회원국 평균에 비해 높다는 점에서 시민 참여를 통한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제시문 2, 4>).

시민 참여가 낮은 C국은 사회적 갈등관리 비용이 회원국 평균과 A, B국에 비해 낮고 정부 효과성이 높다. 이로부터 시민들의 탐욕스러운 본성으로 인한 문제나(<제시문 3>) 이기적인 시민들로 인해 이해관계가 무질서하게 충돌하거나 갈등이 표면화될 가능성(<제시문 1>)은 적었던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것이 정부의 갈등관리 비용 지출을 줄이고 나라의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이로부터 시민 참여가 낮은 C국의 강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자료 2>의 C국 의견 대립 지수가 회원국 평균보다 높다는 점에서 C국에서도 표출되지는 않았지만 내재된 갈등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좋은 나라 지수를 보면 C국의 번영, 형평, 복지 수준이 회원국 평균보다 낮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제시문 2, 4>에 언급된 바와 같이 비록 감정적 대립과 이해관계의 충돌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건강한 사회공동체를 위해서는 갈등이 끊이지 않도록 표면화시켜야 한다는 주장과 공공선을 위한 시민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문항

문제 3

D국 정부는 정책 결정 과정의 초기 단계부터 해당 정책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정부 법안을 발의하려고 한다. 학생이 D국 국민이라면 이 법안에 찬성할지 또는 반대할지 오직 한 가지 입장을 선택하고, [문제 1]의 제시문과 [문제 2]의 자료를 모두 활용하여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하시오. (20점)

일반 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항명	202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우수전형	
개설(과목) / 문항번호	언어형 1교시 / 3번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사회(통합사회, 정치와 법), 도덕(윤리와 사상, 생활과 윤리), 국어(화법과 작문)
	핵심개념 및 용어	시민 참여, 시민불복종, 정치 참여
예상 소요 시간	20분 / 전체 100분	

출제 의도

[문제 3]은 시민 참여의 필요성과 순기능을 강조하는 입장과 한계 및 역기능을 강조하는 입장 사이에서, D국의 정책 결정 초기 단계부터 해당 정책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의견 수렴 의무화 법안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의 입장 중 오직 하나를 선택하고 이를 정당화하는 문제이다. 수험생은 [문제 1]의 제시문과 [문제 2]의 자료를 모두 활용하여 자신의 선택을 설득력 있게 정당화해야 한다.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 2015-74호 [별책 5]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 2015-74호 [별책 6] "도덕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 2015-74호 [별책 7] "사회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1. 교과명: 사회	
	과목명: 통합사회	관련
	성취기준1	[10통사01-03]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으로 질 높은 정주 환경의 조성, 경제적 안정, 민주주의의 발전 및 도덕적 실천이 필요함을 설명한다. [문제 3]
	성취기준2	[10통사04-02] 인간 존엄성 실현과 인권 보장을 위한 헌법의 역할을 파악하고, 준법 의식과 시민 참여의 필요성에 대해 탐구한다. [문제 3]
	과목명: 정치와 법	관련
	성취기준1	[12정법02-03]중앙 정부와의 관계 속에서 지방 자치의 의의를 이해하고, 우리나라 지방 자치의 현실과 과제를 탐구한다. [문제 3]
	성취기준2	[12정법03-01]민주 국가의 정치과정을 분석하고, 시민의 정치 참여의 의의와 유형을 탐구한다. [문제 3]
	성취기준3	[12정법03-03] 정당, 이익집단과 시민단체, 언론의 의의와 기능을 이해하고, 이를 통한 시민 참여의 구체적인 방법과 한계를 분석한다. [문제 3]
	2. 교과명: 도덕	
	과목명: 생활과 윤리	관련
	성취기준1	[12생윤03-03] 국가의 권위와 의무,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동서양의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하고, 민주시민의 자세인 참여의 필요성을 제시할 수 있다. [문제 3]
	과목명: 윤리와 사상	관련
	성취기준1	[12윤사04-04] 민주주의의 사상적 기원과 근대 자유민주주의를 탐구하고, 참여민주주의와 심의민주주의 등 현대 민주주의 사상들이 제시하는 가치 규범을 이해하여, 바람직한 민주시민의 자세에 대해 토론할 수 있다. [문제 3]
	3. 교과명: 국어	
	과목명: 화법과 작문	관련
	성취기준1	[12화작03-04] 타당한 논거를 수집하고 적절한 설득 전략을 활용하여 설득하는 글을 쓴다. [문제 3]

※ 국어 문항의 경우 국어과 교육과정의 내용을 제시

나) 자료 출처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정치와 법	김왕근 외	천재교과서	2020	78-83	논제	예
정치와 법	이경호 외	미래엔	2020	82-87	논제	예
정치와 법	정필운 외	비상	2020	76-83	논제	예
화법과 작문	박영목 외	천재교육	2018	153-162	논제	예

자료명(도서명)	작성자(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해당없음						



[문제 3]은 정책 결정 초기 단계부터 해당 정책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는 정부 법안에 대한 찬반 입장을 묻고 있다. 시민 참여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상반된 두 입장을 이해하고 해당 법안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 또는 반대하는 입장을 [문제 1]의 제시문과 [문제 2]의 자료를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논술하는 것이 문제의 초점이다. [문제 1]의 제시문들은 건강한 사회공동체를 위한 시민의 역할로서 시민 참여의 필요성과 순기능에 초점을 두고 정부 법안 발의에 찬성하는 입장과 시민 참여의 한계 및 역기능에 초점을 두고 이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분류할 수 있다. [문제 2]의 <자료 1>은 A, B, C국의 시민 참여 정도가 다른 양상을 보여주며 <자료 2>는 이 세 국가의 사회지표를 통해 시민 참여의 순기능과 역기능이 혼재된 양상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 자료들을 활용하여 [문제 3]의 D국의 법안 발의에 관해 찬성 또는 반대 입장 중 하나를 선택하여 옹호할 수 있는 논리를 효과적으로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i) 시민 참여의 필요성과 순기능을 강조하는 입장: 법안 발의 찬성

(<제시문 2>, <제시문 4> 및 <자료 1>, <자료 2>)

- 시민 참여 그 자체가 양심에 기반하여 인권과 공공선의 가치를 추구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법안 발의가 바람직함. 법안을 통해 시민들의 정치 참여 기회가 증가하여 대의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음. D국이 발의를 추진하는 법안은 시민들이 정책 과정 초기부터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놓는 것임. 비록 <자료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시민 참여로 인해 정부의 효과성이 낮아지거나 갈등관리를 위한 비용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민 참여로 인해 효과적인 정책 추진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으나, <제시문 2, 4>에 언급된 바와 같이 내재된 갈등이 꺾이지 않고 공공선을 위한 시민의 참여가 보장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제시문 2>, <제시문 4> 및 <자료 1>, <자료 2> 활용 가능)
- 시민 참여 확대를 통해 시민 소외 및 소수자의 의견 배제를 방지하고 사회구성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게 함으로써 정치 효능감을 느끼게 할 수 있음. 아울러 이러한 시민 참여를 통해 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에 대해 토론하는 과정에서 의견 대립이 있을 수 있으나 이 또한 하나의 정치사회화 교육 기회의 확산이 될 수 있음. 이렇게 하면 D국이 B국처럼 궁극적으로는 좋은 나라가 될 수 있기에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법안 발의를 찬성해야 한다는 입장(<제시문 2>, <제시문 4> 및 <자료 1>, <자료 2> 활용 가능)

ii) 시민 참여의 한계와 역기능을 강조하는 입장: 법안 발의 반대

(<제시문 1>, <제시문 3> 및 <자료 1>, <자료 2> 활용 가능)

- 자신에게 돌아올 이익만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본질인 만큼 정책 결정 초기과정부터 시민 참여를 확대하면 사리사욕을 가지고 정치에 참여하는 이들로 인해 악영향을 미칠 것임. 더구나 해당 정책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라면 그중에 자신의 이익과 결부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A국

처럼 의견 대립이 심화될 수 있음. 이는 결국 사회적 갈등관리를 위한 과도한 비용 지출로 이어질 것임. 그 결과는 좋은 나라로 향해 갈 수 없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정부 효과성 또한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음(<제시문 1>, <제시문 3> 및 <자료 1>, <자료 2> 활용 가능)

- 어리석고 경험이 부족하며 비전문적인 다수 민중들이 충분히 정치사회화 교육을 받았다는 근거와 보장 없이 해당 정책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의견을 정책 초기 단계부터 수렴했을 때 이해관계들이 무질서하게 충돌하는 싸움판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음. 그 결과 A국처럼 제대로 된 판단력을 결여하고 개별적 이익만 추구하는 민중들로 인해 사회를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기피하는 공공 시설 건립 등에 관한 정책일 경우 반대하는 입장만 커질 수 있음(<제시문 1>, <제시문 3> 및 <자료 1>, <자료 2> 활용 가능)



채점 포인트

- ①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한 '정부 법안 발의'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는가?
- ② 자신의 선택을 [문제 1]의 제시문 및 [문제 2]의 자료를 이용하여 정당화하였는가?
- ③ [문제 1]의 두 입장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정당화하였는가?



채점등급

- A** 찬성과 반대 입장 중 오직 하나를 분명히 선택하여 답하고, 관련 제시문과 자료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자신의 선택을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정당화한 답안
- B** 찬성과 반대 입장 중 오직 하나를 분명히 선택하여 답하기는 했으나, 관련 제시문과 자료를 단편적으로 연결하는 데 그치고 주장의 체계성과 논리성이 미흡한 답안
- C** 찬성과 반대 입장 중 오직 하나를 분명히 선택하여 답하기는 했으나, 관련 제시문과 자료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단순 반복하는 데 그친 답안
- D** 찬성과 반대 입장 중 오직 하나를 분명히 선택하여 답하기는 했으나, 선택의 근거로 제시한 주장의 설득력이 낮고 논리적이지 않은 답안
- E** 찬성과 반대 입장 중 오직 하나를 분명히 선택하여 답하지 않고, 제시문과 자료의 내용과는 동떨어진 주장을 제시한 답안
- F** E 등급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답안



1) 법안에 찬성하는 입장 (시민 참여의 필요성과 순기능을 강조하는 입장)

내가 D국의 국민이라면 이 법안에 찬성할 것이다.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데 해당 정책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법적 근거에 따라 의무화하면 시민들의 정치 참여는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으며(<제시문 2>), 공공선 실현이라는 시민으로서의 도덕적 책임을 다할 수 있다(<제시문 4>). 물론 이러한 주장에 대해 [문제 2]의 A국 자료를 근거로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시민 참여의 단순한 양적 확대는 사적 이익 간의 충돌로 오히려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사회가 퇴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D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안은 정책에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의무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쉽게 낼 수 있는 장이 열린다는 점에서 <제시문 2>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시민 소외를 극복하고 시민들의 정치 효능감이 향상될 것이며, 나아가 <제시문 4>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소수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 2]의 <자료 2>에서 정치사회화가 잘 이루어진 국가에서 참여를 통한 공동체의 발전을 이루고 있음을 볼 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결정함으로써 공동체의 발전을 이룰 수 있다.

2)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 (시민 참여의 역기능을 강조하는 입장)

내가 D국의 국민이라면 이 법안에 반대할 것이다.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데 해당 정책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법률로써 의무화하면 시민들의 정치 참여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제시문 1>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정치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역량이 부족하거나 사익을 추구하는 시민들의 참여가 증가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의 이익과 결부된 문제들에 대해 의견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기 쉽고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데 드는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자료 2>의 시민참여는 높지만 의견대립, 지역 내 기피시설 건립 반대가 많은 A국의 높은 '사회적 갈등 관리 비용'과 낮은 '정부 효과성'은 이러한 결과를 수치로 보여준다. 물론 이러한 주장에 대해 시민 참여의 순기능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자료 2>의 B국의 사회지표 결과를 근거로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B국은 충분한 정치사회화 교육을 받은 시민 참여가 보장된 국가라는 분명한 조건이 있다. <제시문 3>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므로 충분히 교육받은 시민을 전제로 하지 않는 한 시민 참여의 역기능이 클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자신과 동떨어져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해당 정책이 자신의 이익과 결부되어 있다면 공공선을 위한 선택은 후순위가 될 수밖에 없다. 즉 D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안은 해당 정책에 영향을 받는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공동체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2025학년도 논술시험 기출문제

논술시험(언어형 2)

모집단위		전형유형	
수험번호		성명	

답안작성 유의사항

- 가. 시험 시간은 100분이며, 문제별 답안은 반드시 문제별로 해당되는 답안 작성영역에 작성해야 합니다.(문제번호와 답안번호는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 나. 문제별로 해당되는 답안 작성영역에 다른 문제의 답안을 작성한 경우 평가하지 않습니다.
- 다. 답안은 지정된 작성영역 내에 작성해야 하며, 지정된 작성영역을 초과하여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 라. 답안 작성영역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적사항을 기재하면 안됩니다. 인적사항(성명, 서명 등) 또는 답안과 관계없는 표기를 하는 경우 결격처리 될 수 있습니다.
- 마. 흑색 필기구를 사용해야 합니다.(연필·샤프 사용가능, 답안작성 중 필기구 종류 또는 색상 변경 불가)
- 바. 답안 수정 시에는 취소선을 긋거나 지우개로 지워야 하며 수정액이나 수정테이프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사. 답안지 표지 상단에 본인의 인적사항(모집단위, 수험번호, 성명 등)을 기재하고, 감독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문제 1

<제시문 1> ~ <제시문 4>는 예술에 관한 견해를 담고 있다. 제시문들을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시오. (40점)

<제시문 1>

"말들이 스스로 더 잘 이해하고 있다"는 문장은 작품을 해석할 때 작가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텍스트(text)의 근간이 되는 자율적 언어 자체를 중시하거나 혹은 독자가 자신의 의도로써 텍스트를 해석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문학 작품은 작가의 정신과 의도를 반영하는 매개체로 독자와 대화를 나누는 일종의 도구이다. 우리가 일상적인 대화를 할 때 발화자는 특정한 말을 통해 자신의 의도를 청자에게 전달하려고 한다. 작가도 작품을 만들 때 그 의도를 독자에게 전달하려는 목적이 있다. 독자는 마치 대화에서 청자가 그렇듯,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려는 '대화적 관심'을 가지고 작품을 감상한다. 문학 작품을 창작할 때 작가는 인물, 구성, 배경, 문체 등 여러 요소들을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조합하여 다양한 형태의 표현 양식을 만들어 낸다. 이를 통해 작가는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고 세계관을 표현하고자 한다. 문학 작품의 감상과 해석은 작가의 창작 의도를 이해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문학 작품은 시간이 지나면서 의미가 변하는 생명체가 아니다. 자율적이고, 생명력이 있고, 변화하는 '의미'라는 개념에 근거해 문학 작품을 해석하는 것은 모든 객관적인 작품 해석을 파괴한다. 어떤 문학 작품이 독자들, 평자들, 또는 다른 작가들에 의해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다는 생각은 텍스트의 '의미'와 그 의미가 다양한 맥락에서 드러나는 '의의'를 구분하지 못한 데서 나온 오해다. '의미'는 저자가 특정 기호를 통해 전달하고자 한 고정된 뜻인 반면, '의의'는 그 의미와 감상자, 상황, 또는 다른 요소들과의 관계에서 발생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는 건 작품의 의미가 아니라, 의미와 그것이 놓여진 맥락과의 관계일 뿐이다. 의의는 항상 관계를 내포하지만, 작품의 의미는 어떤 관계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고정된 축이다. 예를 들어, 시인이 쓸쓸한 분위기를 전달하려고 시를 썼으나, 어떤 독자가 그 시를 읽으면서 그러한 분위기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자. 이때, 감상자는 창작 의도를 파악하는 데 실패했지만, 그 시의 의미에 대한 타당한 해석은 여전히 쓸쓸한 분위기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 여기서 작품의 의미는 작가에 의해서 결정된다. "나는 오늘 공원에 간다."라는 말에서 어떤 단어를 강조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하나의 문장은 다양한 해석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대화 중에 상대방의 말을 오해할 수 있다. 한 작품을 해석할 때도 해석자들 간에 의견이 다를 수 있다. 작품에서 한 문장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작가가 의도한 특정 의미가 확정되려면 그 의미를 결정짓는 요인이 필요하고, 그 요인은 바로 작가의 의도이다. 작가의 의도에 대한 오독이나 작위적인 해석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예를 들어, 니체(Nietzsche)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초인' 개념을 통해 인간이 기존의 도덕적 틀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을 창조하고, 내면적 힘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자아를 극복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 개념은 나치당의 인종적 우월성을 강조하고 전쟁과 폭력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로 악용되었고, 제국주의적인 국가 권력을 찬양하는 사상으로 오해되었다.

<제시문 2>

슐라이어마허(Schleiermacher)는 작품을 분석할 때 흔히 저자의 의도 내지는 '한 인간 저자의 총체성을 보편적으로 관조하는 것'을 중시하면서 작품 밖에 있는 저자의 삶을 토대로 작품을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작품 생산의 주체를 중시하는 관점은 해석학적 이론뿐만 아니라, 역사주의적, 실증주의적, 정신분석 이론 등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우리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감정과 경험 등 다양한 요인들은 예술 작품에 대한 이해에 큰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그림 속에서 어떤 대상을 인식하는 방식은 단순히 그림 그 자체의 세부적인 재현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예술 작품을 해석한다는 것은 작품의 의미를 감상자의 삶과 밀접하게 결합시키는 과정이다. 감상자는 자신의 선험적 배경, 일상의 경험, 축적된 지식에 따라 작품에 다양한 시야로 접근한다. 호퍼(Hopper)의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은 어두운 밤 도시의 한 모퉁이에 있는 식당의 장면을 묘사한 그림이다. 커다란 유리창을 통해 식당 내부가 보이며, 식당 안에는 세 명의 손님과 한 명의 직원이 있다. 남성은 회색 중절모와 짙은 색 정장을 입고 식탁 위에 팔을 얹고 있다. 그의 옆에 앉은 여성은 붉은 머리에 붉은 드레스를 입고 있으며, 이들의 왼쪽에 앉아 있는 또 다른 남성은 뒷모습만 보이고 어두운 정장과 모자를 쓰고 있다. 식당 직원은 흰색 유니폼과 모자를 착용한 채 손님들에게 다가가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보인다. 이 작품을 본 관람자 중 과거에 깊은 외로움을 경험한 적이 있는 사람들은 그림 속 조명과 인물들에서 쓸쓸함과 고독감을 읽는다. 그러나 외로움을 별로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단순히 도시 풍경을 묘사한 장면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오히려 유일하게 불이 켜진 식당의 실내 모습에서 안락함을 느낄 수도 있다. 이처럼 개인의 감정과 경험이 작품 감상에 투영되어 해석이 달라지게 된다. 또 다른 예로, 우리가 어떤 그림에서 원근법을 통해 만들어진 환영을 진짜처럼 느끼는 것도 우리의 지식과 경험이 만들어 낸 결과이다. 원근법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보는 세계를 사실 그대로 재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과 예상에 맞춰 특정 방식으로 구현된 것이다. 이렇듯, 그림 속 원근법이나 세부 묘사는 단순히 실제 세계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라기보다, 보는 사람의 마음과 인식 구조에 의해 재구성된다. 어떤 인식적 출발점과 경험적 토대는 작품에 대한 감상자의 이해와 결코 분리될 수 없다. 예술 작품 해석의 본질은 우리 외부 세계에 있지 않고 우리 내부에 있다. 즉, 작품을 해석한다는 것은 단순한 시각적 경험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지식과 경험에 기반한 행위이다. 우리가 그림이나 예술 작품을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제시문 3>

예술 작품을 해석하려는 시도는 그 안에 내재된 의미를 추출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진다. 그림을 보거나 음악을 들을 때 우리는 작품에 숨어있는 상징이나 철학적 메시지를 파악하려 한다. 손택(Sontag)은 <해석에 반대한다>에서 상징적 내용을 추출하고 숨겨진 의미를 해독하려는 해석의 지배적인 방식이 오히려 예술의 감각적이고 감정적인 경험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한다. 그녀에 따르면 이러한 분석은 예술을 단순한 퍼즐로 만들어 그 미학적 힘을 앗아가 버린다. 손택은 예술을 진정으로 감상하려면 그것의 형식을 수용하고 직접적이고 강렬하게 경험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녀는 예술이 무엇을 전달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전달하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음악을 들을 때 그 음악의 역사적 배경이나 작곡가의 의도를 분석하기보다는, 그 음악을 듣는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에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경험이 될 수 있다. 예술은 관객의 주관적 경험을 통해서만 진정한 의미와 감동을 발산한다. 손택의 관점에서, 예술을 제대로 감상하는 것은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느끼는” 것이다. 예술 작품을 접할 때 관객은 단순히 외부에서 주어진 해석을 받아들이는 수동적 존재가 아닌 능동적 주체라는 점에서 손택의 주장은 바르트(Barthes)의 주장과 맥이 닿아 있다. “이제 우리는 글쓰기에 미래를 돌려주기 위해 글쓰기의 신화를 전복시켜야 한다. 독자의 탄생은 저자의 죽음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는 바르트의 이 폭탄 같은 선언은 저자나 텍스트를 과대평가하며 독자의 역할을 소홀히 해 온 것에 대한 일종의 반기이다. 이는 문학 감상에서의 관심 대상을 텍스트에서 독자로 바꾸어 놓은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즉, 텍스트 해석의 권한을 창작자가 아닌 관객에 부여하고, 저자가 작품의 의미를 결정하는 최종적인 존재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바르트는 텍스트에 전통적으로 부여된 폐쇄된 의미체계를 비판하며, 관객이 저자의 의도된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의미를 창조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바르트의 입장에서 텍스트는 독자와 관객의 독창적인 관점에 의해 끊임없이 구성되고 재구성되는 열린 존재가 된다. 읽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글을 쓰는 것이다. 바르트와 손택은 예술 이해에 있어 관객에게 능동적인 태도를 요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바르트는 창작자의 권위를 해체함으로써 관객이 자유롭게 해석하고 스스로 의미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손택은 해석 자체의 필요성에 도전하며, 예술을 감각적이고 정서적으로 충만하게 경험할 것을 강조한다. 두 사람의 관점은 비록 서로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관객의 개별적이고 주관적인 예술 경험을 존중한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한다. 즉, 바르트와 손택은 예술의 감상과 의미 창출에서 관객의 경험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창작자의 의도를 넘어서서 감상자의 감정과 주관적 해석에 집중함으로써 이들은 예술과 관객 간의 관계를 재정의한다.

<제시문 4>

모든 작품은 창작자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창작자에 대하여 많은 사실을 알면 알수록 그의 작품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문학 작품의 내용은 작가와 작중 인물의 삶과 그 시대를 반영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가령 작가가 작품의 소재를 고른다든지, 특정한 형식을 사용한다든지, 주제를 다룬다든지, 또는 상징이나 이미지를 선택하는 따위의 문제는 작가의 삶을 떠나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들은 어디까지나 작가 특유의 문학관이나 세계관에서 비롯된 산물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주어진 작품을 창작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작가의 물질적, 정신적 삶에 대한 이해는 작품을 해석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넓게는 작가의 세계관이나 인생관 또는 정치관, 그리고 그러한 것에서 파생되는 문학관, 좁게는 그의 교육, 생활 수준, 가족 상황, 인간관계, 심지어는 지극히 사사로운 습관이나 취미에 이르기까지 그의 모든 삶이 다 고려 대상이 되어야 한다. 작품 해석에 있어서 창작자의 삶과 그 시대적 배경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은 문학뿐만 아니라 다른 예술 분야에도 공통되게 적용된다. 드가(Degas)는 19세기 프랑스의 대표적인 화가로 그의 작품은 단순한 미적 표현을 넘어서 시대상과 사회적 맥락을 반영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드가는 원래 파리의 부유한 은행가 집안에서 태어났으며 가업을 잇기 위해 법률을 공부했지만, 예술에 대한 열정을 포기하지 못하고 1855년에 미술학교에 입학했다. 그는 초기에 도덕적 메시지와 명확한 구도를 중시하는 고전주의 화풍을 따른 역사화를 주로 그렸지만, 1870년대 중반 시력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그의 화풍에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갑작스러운 시력 악화를 겪으면서 어둠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꼈고, 이는 그가 그리던 대상과 표현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시각적인 제약은 드가에게 새로운 감각적 체험을 강요했으며, 그가 그리던 인물들에 대한 접근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드가는 고전적인 역사화 속 귀족들 대신 현실의 인물들, 특히 파리의 하류층 여인들을 그리기 시작했다. 이는 자신이 경험한 신체적 제약과 심리적 불안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져 작품에 깊이 투영된 것이다. 드가의 그림에서 특히 눈에 띄는 대상은 발레리나들이다. 당시 파리의 발레리나는 무대 위에서 화려한 공연을 하는 아름다운 여성이 아니라 차별과 억압을 받던 하층 계급의 소녀들이었다. 그들은 공연을 위해 고된 훈련을 해야 했으며 때론 심각한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이러한 고단함과 고통스러움을 견뎌낸 이유는 발레리나라는 삶이 자신과 가족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드가의 그림은 이러한 하류층 여성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그들의 인간적인 모습을 진지하게 다루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예술적 가치를 지닌다. 드가는 무대 뒤편 발레리나들의 모습을 포착하여, 그들의 고통과 일상적인 어려움을 사실적으로 그렸다. 이는 드가가 단지 미적 아름다움만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현실을 직시하고 이 소녀들의 삶을 깊이 이해했음을 의미한다. 특히, 드가의 파스텔화 기법은 그의 감정적인 접근을 더욱 강조하며 부드럽고 따뜻한 색조로 하류층 여성들의 고통을 감싸는 듯한 느낌을 준다. 드가의 작품은 그가 살았던 시대의 사회적 현실을 반영하고 있으며 그의 개인적 경험—특히 신체적 고통과 감정적 공감—이 어떻게 예술적 표현으로 승화되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문제 2

<자료 1> ~ <자료 3>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그 분석을 활용하여 [문제 1]의 두 입장을 각각 지지하는 논리를 제시하시오. (40점)

자료 1

아래 <자료 1-1>은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서울시에서 진행한 두 예술 교육 프로그램¹⁾에 대한 설명이다. <자료 1-2>와 <자료 1-3>은 각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이루어진 자기 평가와 전문가 평가 결과²⁾를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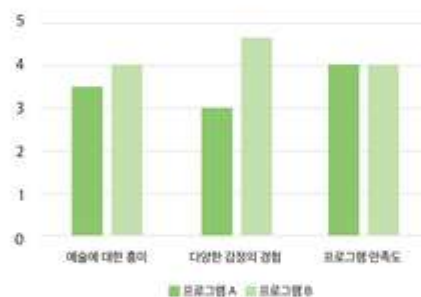
- 주1) 각 프로그램 당 50명의 어린이들이 무작위로 배정되었음. 두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개인 및 사회적 특성에는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가정함. 두 프로그램은 동일한 시간 동안 진행되었음.
- 주2) <자료 1-2>의 자기 평가와 <자료 1-3>의 전문가 평가에서 각 항목은 5점 만점으로 평가됨(0점: 매우 낮음, 5점: 매우 높음).

<자료 1-1> 프로그램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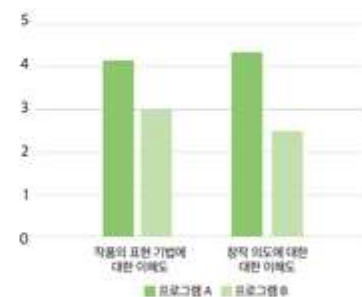
대상 예술 작품: 이중섭의 <소> 연작	
프로그램 A	프로그램 B
도슨트(docent) ³⁾ 가 이중섭의 생애와 창작 당시의 역사적 맥락, 독특한 색채 사용과 표현 방식 등에 대한 설명을 진행한 후, 어린이들과 작품의 의미와 가치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	이중섭의 <소> 연작을 관객 참여형 미디어 아트로 변환하여 어린이들이 작품의 구성 요소, 색상 등을 자유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활동을 통해 작품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경험을 하는 프로그램

- 주3) 미술관에서 방문객들에게 작품과 전시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안내자.

<자료 1-2> 프로그램 참가자 자기 평가 평균



<자료 1-3> 프로그램 참가자에 대한 전문가 평가 평균



자료 2

박경리 작가의 <토지>는 일제 강점기를 배경으로 개인의 운명과 역사의 조류가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폭넓게 조망한 작품이다. 한 대학에 개설된 <한국문학의 이해> 수업에서 학생들이 이 작품을 읽고 감상문을 제출하였다. 아래의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 자료⁴⁾와 표는 학생들의 전공에 따라 감상문에서 많이 사용된 핵심 단어와 단어별 출현 빈도를 비율(%)로 나타낸 것이다.

<전공 A>



핵심 단어	출현 비율
갈등	32%
자아	28%
무의식	16%
정체성	14%
기타	10%

<전공 B>



핵심 단어	출현 비율
경제	30%
개발	26%
학원	20%
토지	16%
기타	8%

<전공 C>



핵심 단어	출현 비율
문화적	24%
상징	21%
구조	20%
주제	18%
기타	17%

주4) 왼쪽에 제시된 워드 클라우드에서 글자 크기는 해당 단어의 출현 비율에 정비례함.

자료 3

아래 그래프는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험 연구 결과이다. 모든 참가자에게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쟁 지역에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정책에 대한 지지도,⁵⁾ 참가자의 현재 정서 상태,⁶⁾ 자녀 유무를 물었다. 이후 참가자들을 A, B, C 세 조건에 각각 400명씩 무작위로 배정하고,⁷⁾ 각 조건의 참가자들에게 아래와 같이 각기 다른 방법으로 어린이의 얼굴 사진 작품을 보여주었다. 그런 다음, 전쟁 지역 인도적 지원 정책 지지도와 현재 느끼는 정서 상태를 다시 물었다.⁸⁾

* 조건별 사진 감상 방법:

조건 A (400명): 사진만 보여주고 사진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음.

조건 B (400명): 사진의 제목과 사진 속 아이가 전쟁고아임을 알려줌.

조건 C (400명): 사진의 제목과 사진 속 아이가 전쟁고아라는 정보, 그리고 사진작가 역시 전쟁고아 출신임을 알려줌.

<자료 3-1> 자녀가 없는 참가자들의 응답 결과



<자료 3-2> 자녀가 있는 참가자들의 응답 결과



- 주5) 0에서 10까지로 측정하였고, 수치가 높을수록 인도적 지원 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높음을 의미함.
 주6) 질문 시점에서 슬픔, 분노, 불안, 공포의 네 가지 부정 정서를 0에서 10까지로 측정한 값임. 수치가 높을수록 부정 정서가 강함을 의미함.
 주7) 세 조건 간 참가자들의 개인 및 사회적 특성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가정함.
 주8) 사전 설문 문항이 실험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험 결과와 직접 상관이 없는 다양한 주제의 문항들을 추가로 질문하였음.

문제 3

최근 한 극단이 유명 고전소설을 파격적으로 해석하여 공연한 연극을 두고 논란이 있다. 이 연극은 원작의 내용을 거의 대부분 새로 구성하여 제작되었고, 창작 당시의 사회상도 더 이상 드러나지 않게 되었다. 이를 두고 어떤 사람들은 이 연극에서 원작에 대한 해석이 왜곡되었다고 비판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이 연극이 원작을 시의적절하게 재구성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학생은 이 두 가지 평가 가운데 어떤 쪽을 지지하는지 오직 하나를 선택하고, [문제 1]의 제시문과 [문제 2]의 자료를 모두 활용하여 본인의 선택을 정당화하시오. (20점)

2025학년도 논술시험 기출문제

해설[언어형 2]

문항

문제 1

<제시문 1> ~ <제시문 4>는 예술에 관한 견해를 담고 있다. 제시문들을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시오. (40점)

일반 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 선다형고사	
전형명	202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우수전형	
계열(과목) / 문항번호	언어형 2교시 / 1번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국어(문학, 독서, 화법과 작문), 도덕(생활과 윤리)
	핵심개념 및 용어	예술과 문학의 이해와 감상, 작가의 의도, 문학관, 주관적 해석, 감각적 경험
예상 소요 시간	40분 / 전체 100분	

출제 의도

[문제 1]의 출제 의도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들이 주어진 주제에 대해 논리적으로 분석, 사고하고 본인의 생각을 글로 논술하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이 문제는 '예술과 문학의 이해와 감상'이라는 주제에서 제시문에 등장한 두 입장의 논지를 요약하는 것으로, 이 두 가지 입장을 구성하는 다양한 주장들로부터 각 입장의 핵심 특징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각 입장의 논지를 종합적으로 서술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각 제시문의 난이도는 수학능력시험 국어영역 지문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여 수험생들의 지문 이해와 정확한 분류 및 요약 능력을 평가하고자 했다.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 2015 74호 [별책 7]	
관련 성취기준	1. 교과명: 도덕	
	과목명: 생활과 윤리	관련
	성취기준1	[12생윤05-01] 미적 가치와 윤리적 가치를 예술과 윤리의 관계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으며 대중문화의 문제점을 윤리적 관점에서 비판하고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문제 1] 제시문 1,2,3,4
	2. 교과명: 국어	
	과목명: 독서	관련
	성취기준1	[12독서01-02] 동일한 화제의 글이라도 서로 다른 관점과 형식으로 표현됨을 이해하고 다양한 글을 주제 통합적으로 읽는다. [문제 1] 제시문 1,2,3,4
	성취기준2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문제 1] 제시문 1,2,3,4
	성취기준3	[12독서03-02] 사회·문화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사회적 요구와 신념, 사회적 현상의 특성, 역사적 인물과 사건의 사회·문화적 맥락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문제 1] 제시문 1,2,3,4
	과목명: 문학	관련
	성취기준1	[12문학02-02] 작품을 작가, 사회·문화적 배경, 상호 텍스트성 등 다양한 맥락에서 이해하고 감상한다. [문제 1] 제시문 1,2,3,4
	성취기준2	[12문학02-04] 작품을 공감적, 비판적, 창의적으로 수용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상호 소통한다. [문제 1] 제시문 1,2,3,4
	성취기준3	[12문학02-05] 작품을 읽고 다양한 시각에서 재구성하거나 주제적인 관점에서 창작한다. [문제 1] 제시문 1,2,3,4
	과목명: 화법과 작문	관련
	성취기준1	[12화작03-01] 가치 있는 정보를 선별하고 조직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쓴다. [문제 1]

나) 자료 출처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독서	서혁 외	좋은책 신사고	2021	80~113	제시문 2, 3	예
독서	방민호 외	미래엔	2020	94~129	제시문 2, 3	예
독서	한철우 외	비상	2021	20~35, 38~63	제시문 1, 2, 3, 4	예
문학	한철우 외	비상	2020	40~57, 84~101	제시문 1, 2, 3, 4	예
문학	이승원 외	좋은책 신사고	2021	20~59, 64~81	제시문 1, 2, 3, 4	예
국어	류수열 외	금성출판사	2018	192~247	제시문 2, 3	예
생활과윤리	차우규 외	금성출판사	2021	150~159	제시문 1, 2, 3, 4	예
화법과작문	민병곤 외	미래엔	2020	112~121	제시문 1, 2, 3, 4	예
화법과작문	김영민 외	비상	2021	138~143	제시문 1, 2, 3, 4	예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의도주의-비의도주의의 논쟁에 대한 하나의 답변"	윤주한	인문논총	2017	217~252	제시문 1	예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의 옹호"	오종환	인문논총	2017	177~216	제시문 1	예
"예술작품 해석에 관한 상대주의 옹호"	임오주	한국예술연구	2012	165~200	제시문 2	예
저자의 죽음인가, 저자의 부활인가?	최문규 외	한국문화사	2015	81~120	제시문 2	예
해석에 반대한다	수전 설택	이후	2002	19~35	제시문 3	예
"문학 텍스트의 구조와 탈구조"	박성창	외국문학연구	2011	685~699	제시문 3	예
"사르트르와 바르트의 '작가-독자론' 비교연구"	변광배	Foreign Literature Studies	2011	55~80	제시문 3	예
방구석 미술관	조원재	블랙피쉬	2020	55~74	제시문 4	예
현대미술	이주영	미술문화	2019	77~98	제시문 4	예
단숨에 읽는 서양 미술사	Funny Rain	헤르문 하우스	2024	120~125	제시문 4	예



[문제 1]은 고등학교 국어와 도덕 교과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예술과 문학의 이해와 감상'에서 '창작자(작가) 중심주의'를 강조하는 입장과 '수용자(독자) 중심주의'라는 두 가지 관점에 근거하여 관련 제시문들을 나열하고, 그것들을 두 가지 입장으로 분류, 요약하라는 문제이다. 총 4개의 제시문은 '예술과 문학의 이해와 감상'에 있어 '창작자 중심주의'를 강조하는 입장 대 '수용자 중심주의'라는 두 입장으로 대비시켜 분류할 수 있다. [문제 1]에서는 문제의 요구에 따라 제시문들을 정확하게 이해, 분류하고 그 요지를 논리적으로 요약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한다. 제시문들은 고등학교 교과서 및 관련 서적에서 발췌해 출제진이 재구성하였다. 각 제시문의 난이도는 대학 수학능력시험 국어영역 지문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여 수험생들의 지문 이해와 정확한 분류 및 요약 능력을 평가하고자 했다. 제시문의 분류와 요지는 아래와 같다.

- i) 창작자 중심주의(작가의 정신과 의도, 텍스트의 의미, 확정된 의미(단한 해석), 작가의 물질적, 정신적 삶, 문학관(세계관), 시대적 배경, (작가의) 개인적 경험): <제시문 1>, <제시문 4>

: 창작자 중심주의에 따르면 예술 작품에는 작가의 창작 의도와 작품만이 가지는 고유한 의미가 담겨 있다. 예술 작품은 그 작품을 창작한 작가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작품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작가의 의도와 경험 및 창작 배경 등을 고려하여 작가가 남긴 작품 속 메시지를 찾아야 한다.

ii) 수용자 중심주의(감정과 경험, 선험적 배경(지식, 경험), 다양한 해석, 감정적(감각적, 주관적) 경험, 의미 창조, 능동적인 태도, 작자의 권위 해체, 저자의 죽음): <제시문 2>, <제시문 3>

: 수용자 중심주의는 개인의 감정과 경험에 따라 예술 작품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며 관객의 총명한 경험과 능동적인 태도가 예술 작품 감상에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예술 작품의 해석은 창작자가 아닌 감상자의 몫이며 동일한 작품도 감상자의 상황과 경험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각 제시문의 논지는 다음과 같다.

<제시문 1>

예술 작품에 대한 해석은 작가의 정신과 창작 의도를 이해하는 과정이며 예술 작품에는 작가가 의도한 특정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작품과 다양한 요소들과의 관계에서 '의의'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작가가 전달하고자 한 텍스트의 '의미'는 변하지 않는다. 독자나 다른 작가들이 작품을 새로운 의미로 재해석하는 것은 객관적인 작품 해석을 파괴하는 행위이다. 작가의 의도에 대한 작위적인 해석은 니체의 '초인' 개념을 악용한 나치당의 사례처럼 예상치 못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감상자는 창작 의도를 파악하고 작가가 의도한 특정 의미를 확정해야 한다.

<제시문 2>

개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감정과 경험이 예술 작품 이해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며, 호퍼의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이라는 작품이 서로 다른 경험과 지식 배경을 가진 사람에 의해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예술 작품은 보는 사람의 마음과 인식 구조에 의해 재구성되는 것이며 이러한 이유로 우리가 예술 작품을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고 본다.

<제시문 3>

예술 작품의 해석에 있어 관객의 능동적인 태도를 강조한다. 바르트는 창작자의 입장이 아닌 감상자가 예술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주목하며 해석의 권한을 창작자가 아닌 감상자에게 부여하고 있다. 감상자는 스스로 작품의 의미를 창조하는 존재이며, 주관적 경험을 통해 작품은 끊임없이 재구성되고 독창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본다. 손택은 작가의 의도나 메시지를 파악하려는 인위적인 노력을 거부하고, 관객이 예술 작품을 감정적이고 정서적으로 총만하게 경험할 것을 강조한다. 이 둘은 결국 감상자의 개별적이고 주관적 경험을 존중한다는 점에서 창작자의 의도를 넘어서는 감상자의 능동적 역할을 중시한다.

<제시문 4>

예술작품은 창작자의 삶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작품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작품 창작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작가의 정신적, 물질적 삶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고 본다. 작품 해석에 있어서 작가의 시대적 배경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드가의 작품을 예로 들고 있다. 신체적 제약과 심리적 불안을 경험한 드가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공감을 예술로 승화시켰음을 강조한다. 이를 통해 작가의 개인적 경험과 사회적 배경에 대한 공감에 예술 작품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좋은 답안 작성의 포인트는 예술과 문학의 이해와 감상이라는 주제에 대해 제시문들을 '창작자 중심주의(작가의 정신과 의도, 텍스트의 의미, 확정된 의미(단한 해석), 작가의 물질적, 정신적 삶, 문학관(세계관), 시대적 배경, (작가의) 개인적 경험)'와 '수용자 중심주의(감정과 경험, 선험적 배경(지식, 경험),

다양한 해석, 감정적(감각적, 주관적) 경험, 의미 창조, 능동적인 태도, 작자의 권위 해체, 저자의 죽음'의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에 따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요약문을 작성하는 것이다. 제시문 각각에 대한 요약이 충분히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상반된 두 입장의 내용이 해당 제시문들의 주장을 포괄하여 잘 정리되었다면 감점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제시문 각각의 내용을 잘 요약했더라도 이를 종합하여 상반된 두 입장의 내용을 정리하지 못했다면 감점할 수 있다.

기본적인 독해 능력을 갖춘 학생이라면 어렵지 않게 분류할 수 있을 것이므로, 제시문을 분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 입장의 내용을 명확하고 적절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각 제시문의 입장 및 중심 논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같은 입장으로 분류한 제시문들을 하나의 통일된 글로 요약, 정리한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논지 정리 과정에서 같은 입장으로 분류된 제시문의 논점 차이까지 적절히 고려하여 글을 작성한다면 우수한 답안이라고 할 수 있다.



채점 포인트

- ① 예술 작품 감상 기준으로서 '창작자(작가)중심주의' 입장과 '수용자(독자) 중심주의' 입장을 정확히 분류하였는가?
- ② '창작자(작가)중심주의' 입장과 '수용자(독자) 중심주의' 입장을 정확하고 풍부하게 요약하였는가?
- ③ '창작자(작가)중심주의' 입장과 '수용자(독자) 중심주의' 입장을 통합적으로 요약하였는가?
(제시문별로 요약하고, 통합적으로 요약하지 않은 경우 감점 요인)



채점등급

- A** 제시문을 올바르게 분류하고, <제시문 1>, <제시문 4>와 <제시문 2>, <제시문 3>의 차이점이나 관계까지 충분히 고려하면서 두 입장의 핵심 논지를 통합적으로 잘 분석하여 기술한 답안
- B** 제시문을 올바르게 분류하고 두 입장의 핵심 논지를 잘 분석하여 기술하고 있으나, <제시문 1>, <제시문 4>와 <제시문 2>, <제시문 3>의 차이점이나 관계를 효과적으로 부각시키지 못한 답안
- C** 제시문 분류는 올바르게 하였으며 각 제시문에 대한 요약은 적절하게 이루어졌으나, <제시문 1>, <제시문 4>와 <제시문 2>, <제시문 3>을 종합한 두 입장의 핵심 논지가 제대로 기술되지 않은 답안
- D** 제시문 분류는 잘못했으나 두 입장의 핵심 논지 서술은 어느 정도 이루어진 답안
- E** 제시문 분류에도 실패하고 두 입장의 핵심 논지 서술도 제대로 안 된 답안
- F** E 등급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답안



예술에 관한 견해는 창작자(작가)의 의도와 배경을 중시하는 창작자 중심주의와 작품을 감상하는 수용자(독자)의 경험과 능동적인 해석을 중시하는 수용자(독자) 중심주의로 구분할 수 있다. <제시문 1>과 <제시문 4>는 창작자 중심주의를 지지하는 입장, <제시문 2>와 <제시문 3>은 수용자 중심주의를 지지하는 입장이다.

<제시문 1>은 예술 작품에 대한 해석은 작가의 정신과 창작 의도를 이해하는 과정이며 예술 작품에는 작가가 의도한 특정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작품과 다양한 요소들과의 관계에서 '의의'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작가가 전달하고자 한 텍스트의 '의미'는 변하지 않는다. 독자나 다른 작가들이 작품을 새로운 의미로 재해석하는 것은 객관적인 작품 해석을 파괴하는 행위이다. 작가의 의도에 대한 작위적인 해석은 니체의 '초인' 개념을 악용한 나치당의 사례처럼 예상치 못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감상자는 창작 의도를 파악하고 작가가 의도한 특정 의미를 확정해야 한다. <제시문 4>는 예술작품은 창작자의 삶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작품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작품 창작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작가의 정신적, 물질적 삶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고 본다. 작품 해석에 있어서 작가의 시대적 배경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드가의 작품을 예로 들고 있다. 신체적 제약과 심리적 불안을 경험한 드가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공감을 예술로 승화시켰음을 강조한다. 이를 통해 작가의 개인적 경험과 사회적 배경에 대한 공감에 예술 작품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제시문 1>이 예술 작품의 해석에 있어서 창작자의 의도와 고정된 의미에 주목했다면 <제시문 4>는 작가의 개인적 경험 및 배경, 사회적 상황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편, <제시문 2>는 개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감정과 경험이 예술 작품 이해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며, 호퍼의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이라는 작품이 서로 다른 경험과 지식 배경을 가진 사람에 의해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예술 작품은 보는 사람의 마음과 인식 구조에 의해 재구성되는 것이며 이러한 이유로 우리가 예술 작품을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고 본다. <제시문 3>은 예술 작품의 해석에 있어 관객의 능동적인 태도를 강조한다. 바르트는 창작자의 입장이 아닌 감상자가 예술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주목하며 해석의 권한을 창작자가 아닌 감상자에게 부여하고 있다. 감상자는 스스로 작품의 의미를 창조하는 존재이며, 주관적 경험을 통해 작품은 끊임없이 재구성되고 독창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본다. 손택은 작가의 의도나 메시지를 파악하려는 인위적인 노력을 거부하고, 관객이 예술 작품을 감정적이고 정서적으로 충만하게 경험할 것을 강조한다. 이 둘은 결국 감상자의 개별적이고 주관적 경험을 존중한다는 점에서 창작자의 의도를 넘어서는 감상자의 능동적 역할을 중시한다. <제시문 2>가 예술 작품이 개인의 감정과 경험 및 배경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면, <제시문 3>은 예술 작품의 해석에 있어서 수용자의 충만한 경험과 능동적인 태도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문항

문제 2

<자료 1> ~ <자료 3>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그 분석을 활용하여 [문제 1]의 두 입장을 각각 지지하는 논리를 제시하시오. (20점)

일반 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202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우수전형	
개별(과목) / 문항번호	언어형 2교시 / 2번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사회·문화, 국어, 문학
	핵심개념 및 용어	예술교육, 감상문, 작품에 대한 이해, 창작 의도, 예술에 대한 흥미, 정서 상태
예상 소요 시간	40분/전체 100분	

출제 의도

[문제 2]는 자료 해석과 설명형 문항으로, 주어진 자료를 정확하게 해석하여 [문제 1]에 제시된 두 입장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이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자료 1>은 성격이 다른 두 종류의 예술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자료이다. <자료 2>는 박경리 작가의 <토지>를 읽고 학생들이 제출한 감상문을 분석한 결과이다. <자료 3>은 사진 작품에 대한 감상 반응을 분석한 실험 연구 결과이다. <자료 1> ~ <자료 3>은 모두 '작가 중심주의'와 '수용자 중심주의'라는 두 입장을 지지하는 논리로 사용될 수 있다. 수험생들은 제시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그 분석을 활용하여 [문제 1]의 두 입장을 각각 지지하는 논리를 제시해야 한다.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 2015 74호 [별책 7]	
관련 성취기준	1. 교과명: 사회	
	과목명: 사회-문화	
	성취기준1	[12사문01-02] 사회·문화 현상을 탐구하기 위한 양적 연구 방법과 질적 연구 방법의 특징 및 차이점을 비교한다. [문제 2]
	2. 교과명: 국어	
	과목명: 독서	
	성취기준1	[12독서01-02] 동일한 화제의 글이라도 서로 다른 관점과 형식으로 표현됨을 이해하고 다양한 글을 주제 통합적으로 읽는다. [문제 2]
	성취기준2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문제 2]
	성취기준3	[12독서03-02] 사회·문화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사회적 요구와 신념, 사회적 현상의 특성, 역사적 인물과 사건의 사회·문화적 맥락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문제 2]
	과목명: 화법과 작문	
	성취기준1	[12화작03-01] 가치 있는 정보를 선별하고 조직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쓴다. [문제 2]

나) 자료 출처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사회문화	김영순 외	교학사	2021	20~27	자료 1, 자료 2, 자료 3	예
사회문화	신형민 외	비상	2020	23~34	자료 1, 자료 2, 자료 3	예
사회문화	구정화 외	천재교육	2020	23~36	자료 1, 자료 2, 자료 3	예
화법과작문	민병곤 외	미래엔	2020	112~121	자료 1, 자료 2, 자료 3	예
화법과작문	김영민 외	비상	2021	138~143	자료 1, 자료 2, 자료 3	예
화법과작문	이상형 외	지학사	2020	136~148	자료 1, 자료 2, 자료 3	예
독서	서혁 외	좋은책 신사고	2021	80~113	자료 1, 자료 2, 자료 3	예
독서	방민호 외	미래엔	2020	94~129	자료 1, 자료 2, 자료 3	예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해당 없음						



[문제 2]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 <자료 1> ~ <자료 3>은 창작자 중심주의와 수용자 중심주의 양측 입장을 지지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음을 파악해야 한다. <자료 1-1>에서 프로그램 A는 창작자 중심주의를 지지하는 <제시문 1>과 <제시문 4>의 핵심 논지와 연결되고, 프로그램 B는 수용자 중심주의를 지지하는 <제시문 2>와 <제시문 3>의 핵심 논지와 연결되어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자료 1-2>의 프로그램 참가자의 자기 평가 결과에서 예술에 대한 흥미나 다양한 감정의 경험 점수가 프로그램 B에서 더 높게 나타난 점이 수용자 중심주의를 뒷받침하는 근거라는 것을 파악해야 한다. 또한, <자료 1-3>의 프로그램 참가자에 대한 전문가 평가 결과에서 작품의 표현 기법과 창작 의도에 대한 이해도 점수 모두 프로그램 A에서 더 높게 나타난 점이 창작자 중심주의를 지지하는 근거가 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자료 2>는 워드 클라우드 자료와 표를 통해 <토지>라는 작품을 읽은 학생들 전공에 따라 감상문에 활용된 핵심 단어와 출현 빈도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수용자의 배경에 따라 동일한 작품에 대해서도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수용자 중심주의를 지지하는 근거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반면,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 <토지>라는 작품의 시대적 배경과 주요 내용이 워드 클라우드에 나타난 전공별 작품 해석에 오롯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석될 수도 있다. 이는 작가의 의도를 임의로 해석하고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작품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 작가의 의도와 창작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창작자 중심주의를 지지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음을 파악해야 한다.

<자료 3-1>, <자료 3-2>에서 인도적 정책 지지도, 부정 정서 지수의 실험 전후 변화량이 모두 $A < B < C$ 순으로 나타났다는 점이 작가의 의도와 창작 배경에 대한 이해를 중시하는 창작자 중심주의를 지지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반면, <자료 3-1>보다 <자료 3-2>의 실험 전후 변화량이 모든 조건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는 점이 수용자의 개인적 차이가 작품 해석에 영향을 준다는 수용자 중심주의를 지지하는 것을 파악해야 한다.



채점 포인트

- ① <자료 1>, <자료 2> 및 <자료 3>을 각각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석하였는가?
- ② <자료 1>, <자료 2> 및 <자료 3>을 두 입장을 각각 지지하는 근거로 활용하였는가?
- ③ 각 자료의 내용이 해당 입장을 어떻게 정당화하는지 논리적으로 충분히 설명하였는가?



채점등급

A

<자료 1>, <자료 2> 및 <자료 3>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문제 1]의 제시문들과 연계하여 각 자료의 내용을 활용하여 두 입장을 정당화하는 논리적인 설명을 충분히 제시한 답안

B

<자료 1>, <자료 2> 및 <자료 3>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문제 1]의 제시문들과 연계하여 각 자료의 내용을 활용하여 두 입장을 정당화하였으나 그 내용이 불충분하고 논리성이 다소 부족한 답안

C

<자료 1>, <자료 2> 및 <자료 3>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문제 1]의 제시문들과 정확히 연계는 하였으나, 각 자료의 내용을 활용하여 두 입장을 정당화하는 논거가 불분명하고 주장의 논리성이 현저히 낮은 답안

D

<자료 1>, <자료 2> 및 <자료 3>을 정확히 이해하였으나, [문제 1]의 제시문들을 각 자료의 내용과 잘못 연결 지었거나 두 입장 중 어느 하나만을 설명한 불충분한 답안

E

<자료 1>, <자료 2> 및 <자료 3>을 모두 부정확하게 이해하여 [문제 1]에 등장한 두 가지 입장에 대한 부적절한 설명을 제시한 답안

F

<자료 1>, <자료 2> 및 <자료 3>을 모두 부정확하게 이해했고 [문제 1]에 등장한 두 가지 입장에 대한 설명을 전혀 제시하지 않은 답안

예시답안



<자료 1> ~ <자료 3>은 창작자 중심주의와 수용자 중심주의의 양측 입장을 지지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 <자료 1>은 예술 작품의 해석에 있어서 창작자와 수용자 중 어느 입장을 더 중시하느냐에 따라 예술 교육 프로그램의 방법과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설명한다. <자료 1-1>의 프로그램 A는 작가의 생애와 창작 당시의 배경 등을 설명하며 작가의 배경과 의도를 고려하여 작품을 해석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제시문 1>과 <제시문 4>에 나타난 창작자 중심주의를 지지한다. 프로그램 B는 어린이들이 작품을 자유롭게 변화시키는 활동을 통해 작품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경험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수용자 중심주의를 지지하며, 작품을 감성적이고 정서적으로 충만하게 경험할 것을 강조한 <제시문 3>의 입장과 일맥상통한다. <자료 1-2>에서 프로그램 참가자의 자기 평가 결과를 보면 예술에 대한 흥미나 다

양한 감정의 경험 점수가 프로그램 B에서 더 높게 나타난다. 이는 작품의 능동적이고 다양한 해석을 강조하는 수용자 중심주의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볼 수 있다. 반면, <자료 1-3>에서 프로그램 참가자에 대한 전문가 평가 결과를 보면 작품의 표현 기법과 창작 의도에 대한 이해도 점수 모두 프로그램 A에서 더 높게 나타난다. 이는 작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프로그램의 효과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창작자 중심주의를 지지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자료 2>는 워드 클라우드 자료와 표를 통해 <토지>라는 작품을 읽은 학생들 전공에 따라 감상문에 활용된 핵심 단어와 출현 빈도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전공별로 학생들의 개별적 경험과 지식, 관심 분야가 다르고, 그에 따라 동일한 작품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수용자의 배경에 따른 능동적인 해석의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수용자 중심주의를 지지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자료 2>를 다른 각도에서 보면, <토지>라는 작품의 시대적 배경과 주요 내용이 워드 클라우드에 나타난 전공별 작품 해석에 오롯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작가의 의도를 임의로 해석하고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작품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 작가의 의도와 창작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창작자 중심주의를 지지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자료 3>은 조건 A, B, C에 따른 전쟁 지역 인도적 지원 정책 지지도 및 정서 상태의 변화를 자녀의 유무에 함께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자료 3-1>, <자료 3-2>에서 인도적 정책 지지도, 부정 정서 지수의 실험 전후 변화량이 모두 $A < B < C$ 순으로 나타났다는 점은 작품에 대한 지식과 작가의 배경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수록 작품의 진정한 의미와 작가의 의도가 담긴 사회적 메시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작가의 의도와 창작 배경에 대한 이해를 중시하는 창작자 중심주의를 지지한다. 한편, <자료 3-1>보다 <자료 3-2>의 실험 전후 변화량이 모든 조건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 즉, 자녀가 있는 집단이 자녀가 없는 집단보다 사진과 작가에 대한 배경 설명을 들었을 때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실험 전후 정책 지지도의 변화량이 자녀가 없는 집단보다 자녀가 있는 집단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 이는 자녀 유무라는 수용자의 개인적 차이가 정서를 넘어서 정책 지지도에까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시사한다. 개인적 경험과 수용자의 특성이 작품 해석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자료 3>은 수용자 중심주의를 지지한다.

문항

문제 3

최근 한 극단이 유명 고전소설을 파격적으로 해석하여 공연한 연극을 두고 논란이 있다. 이 연극은 원작의 내용을 거의 대부분 새로 구성하여 제작되었고, 창작 당시의 사회상도 더 이상 드러나지 않게 되었다. 이를 두고 어떤 사람들은 이 연극에서 원작에 대한 해석이 왜곡되었다고 비판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이 연극이 원작을 시의적절하게 재구성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학생은 이 두 가지 평가 가운데 어떤 쪽을 지지하는지 오직 하나를 선택하고, [문제 1]의 제시문과 [문제 2]의 자료를 모두 활용하여 본인의 선택을 정당화하시오. (20점)

일반 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 선다형고사	
진행명	202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우수전형	
개설(과목) / 문항번호	언어형 2교시 / 3번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국어, 문학, 독서
	핵심개념 및 용어	연극, 고전소설, 원작, 해석, 사회상, 재구성
예상 소요 시간	20분 / 전체 100분	

출제 의도

[문제 3]은 소설 원작의 파격적인 재해석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창작자(작가) 중심주의'를 강조하는 입장과 '수용자(독자) 중심주의'를 강조하는 입장 중 오로지 한 입장을 선택하여,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정당화하는 문제이다. 수험생은 [문제 1]의 제시문과 [문제 2]의 자료를 모두 활용하여 작품 해석에 관한 서로 다른 입장에 대해 자신의 선택을 설득력 있게 정당화해야 한다.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 2015 74호 [별책 7]	
관련 성취기준	1. 교과명: 도덕	
	과목명: 생활과 윤리	관련
	성취기준1	[12생윤05-01] 미적 가치와 윤리적 가치를 예술과 윤리의 관계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으며 대중문화의 문제점을 윤리적 관점에서 비판하고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문제 3]
	2. 교과명: 국어	
	과목명: 독서	관련
	성취기준1	[12독서01-02] 동일한 화제의 글이라도 서로 다른 관점과 형식으로 표현됨을 이해하고 다양한 글을 주제 통합적으로 읽는다. [문제 3]
	성취기준2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문제 3]
	성취기준3	[12독서03-02] 사회·문화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사회적 요구와 신념, 사회적 현상의 특성, 역사적 인물과 사건의 사회·문화적 맥락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문제 3]
	과목명: 문학	관련
	성취기준1	[12문학02-02] 작품을 작가, 사회·문화적 배경, 상호 텍스트성 등 다양한 맥락에서 이해하고 감상한다. [문제 3]
	성취기준2	[12문학02-04] 작품을 공감적, 비판적, 창의적으로 수용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상호 소통한다. [문제 3]
	성취기준3	[12문학02-05] 작품을 읽고 다양한 시각에서 재구성하거나 주제적인 관점에서 창작한다. [문제 3]

나) 자료 출처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독서	서혁 외	좋은책 신사고	2021	80~113	문제 3	예
독서	방민호 외	미래엔	2020	94~129	문제 3	예
독서	한철우 외	비상	2021	20~35, 38~63	문제 3	예
문학	한철우 외	비상	2020	40~57, 84~101	문제 3	예
문학	이승원 외	좋은책 신사고	2021	20~59, 64~81	문제 3	예
문학	한철우 외	비상	2020	102~123	문제 3	예
문학	이승원 외	좋은책 신사고	2021	82~123	문제 3	예
국어	류수열 외	금성출판사	2018	192~247	문제 3	예
생활과윤리	차우규 외	금성출판사	2021	150~159	문제 3	예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	---------	-----	------	----	-------	--------

해당 없음

문항 해설



[문제 3]은 소설 원작의 파격적인 재해석에 대한 찬반 입장을 묻고 있다. 예술 작품 감상 기준에서 '창작자(작가) 중심주의'를 강조하는 입장과 '수용자(독자) 중심주의'를 강조하는 입장 중 하나를 선택하고, [문제 1]의 제시문과 [문제 2]의 자료들을 모두 활용하여 자신의 선택을 논리적으로 정당화하는 것이 문제의 초점이다.

i) '창작자 중심주의'를 강조하는 입장: 소설 원작에 대한 파격적 재해석 반대

(〈제시문 1〉, 〈제시문 4〉 및 〈자료 1〉 ~ 〈자료 3〉)

- 문학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할 때 작가의 의도와 문학관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제시문 1〉, 〈자료 1〉 ~ 〈자료 3〉 활용 가능).
- 문학 작품의 재해석에도 작가의 삶과 경험 및 창작 배경이 옳곧이 담겨 있어야 함(〈제시문 4〉, 〈자료 1〉 ~ 〈자료 3〉 활용 가능).

ii) '수용자 중심주의'를 강조하는 입장: 소설 원작에 대한 파격적 재해석 찬성

(〈제시문 2〉, 〈제시문 3〉 및 〈자료 1〉 ~ 〈자료 3〉)

- 문학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할 때 감상자의 선험적 경험과 지식이 중요함(〈제시문 2〉, 〈자료 1〉 ~ 〈자료 3〉 활용 가능).
- 설령 원작에 대한 재해석이 창작자의 의도나 창작 배경에서 크게 벗어나더라도 감상자의 능동적이고 주관적인 해석과 감각적, 감정적 경험에 따라 원작을 자유롭게 재해석 할 수 있음(〈제시문 3〉, 〈자료 1〉 ~ 〈자료 3〉 활용 가능).



채점 포인트

- ① 원작에 대한 파격적 재해석에 관한 찬성 또는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는가?
- ② 자신의 선택을 [문제 1]의 제시문 및 [문제 2]의 자료를 이용하여 정당화하였는가?
- ③ [문제 1]의 두 입장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정당화하였는가?



채점등급

- A** 찬성 또는 반대 중 하나를 분명히 선택하여 답하고 주어진 제시문과 자료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자신의 선택을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정당화한 답안
- B** 찬성 또는 반대 중 하나를 분명히 선택하여 답하긴 했으나 주어진 제시문과 자료를 단편적으로 연결하는 데 그치고 주장의 체계성과 논리성이 미흡한 답안
- C** 찬성 또는 반대 중 하나를 분명히 선택하여 답하긴 했으나 주어진 제시문과 자료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단순 반복하는 데 그친 답안
- D** 찬성 또는 반대 중 하나를 분명히 선택하여 답하긴 했으나 선택의 근거로 제시한 주장의 설득력이 낮고 논리적이지 않은 답안
- E** 찬성 또는 반대 중 하나를 분명히 선택하여 답하지 않고 제시문과 자료의 내용과는 동떨어진 주장을 제시한 답안
- F** E 등급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답안

예시 답안



1) 재해석을 비판하는 입장(창작자(작가) 중심주의)

<제시문 1>과 <제시문 4>를 통해 예술 작품에는 작가의 창작 의도와 작품만이 가지는 고유한 의미가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술 작품은 그 작품을 창작한 작가의 삶과 별개로 해석할 수 없다. 작품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작가의 의도와 경험 및 창작 배경 등을 고려하여 작가가 남긴 작품 속 메시지를 찾으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한 극단이 유명 고전소설을 파격적으로 해석하며 창작 당시의 사회상도 드러나지 않게 재구성한 것은 작가의 창작 의도를 고려하지 않고 작위적으로 예술 작품을 해석한 것으로 올바른 방법이라 볼 수 없다. 이러한 작위적 해석의 문제점은 <제시문 1>의 니체가 사용한 '초인' 개념을 나치당이 악용한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고전소설을 재해석하여 공연을 하는 경우 그 시대의 사회상과 작가의 의도를 살리는 수준에서 연극을 기획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러

한 작가의 의도와 창작 배경을 고려한 예술 작품 이해의 필요성은 [문제 2]의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자료 1>에서는 이중섭의 생애와 당시의 역사적 맥락을 소개한 교육 프로그램이 작품의 표현 기법과 창작 의도에 대한 이해도를 증가시키는 데 효과적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자료 3>에서도 사진 작가의 배경과 작품의 주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수록 작가의 메시지를 파악하고 작품이 가진 의미를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물론 <자료 2>에서는 전공에 따라 <토지>라는 작품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보여주는 워드 클라우드를 근거로 작가 중심주의를 비판할 수 있지만, 오히려 이는 작가와 시대상에 대한 이해 없이 작품을 해석하는 경우 <토지>가 가진 작품 고유의 의미와 주요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우리는 작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예술 작품 속 작가의 의도와 메시지를 파악해야 하며, 이러한 작가의 의도를 무시하고 원작을 파격적으로 해석하고 재구성하는 공연은 지양되어야 한다.

2) 재해석을 옹호하는 입장(수용자(독자) 중심주의)

<제시문 2>와 <제시문 3>을 통해 개인의 감정과 경험에 따라 예술 작품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며 관객의 충만한 경험과 능동적인 태도가 예술 작품 감상에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예술 작품의 해석은 창작자가 아닌 독자의 몫이며, <제시문 2>의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에 대한 상반된 해석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독자의 상황과 경험에 따라 동일한 작품도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한 극단이 유명 고전소설을 파격적으로 재해석한 것은 수용자들의 가치관과 시의성을 반영하여 그들의 눈으로 작품을 해석한 능동적인 태도가 돋보이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수용자 중심주의로 작품을 바라보는 것의 장점은 [문제 2]의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자료 1>에서는 어린 이들이 이중섭의 작품을 자유롭게 변화시키고 새롭게 해석하는 활동을 통해 예술에 대한 흥미와 다양한 감정의 경험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 점수가 높게 나타난다. 이는 예술을 감각적이고 정서적으로 충만하게 경험할 때 진정한 의미를 창출할 수 있다는 손택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한다. <자료 2>에서는 <토지>를 읽고 작성한 감상문 속 핵심 단어와 출현 빈도가 전공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동일한 작품도 전공자의 배경 지식과 관심, 경험 등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전소설을 파격적으로 해석한 것을 원작을 왜곡했다고 평가절하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인도적 정책 지지도와 부정 정서 지수의 실험 전후 변화량이 자녀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 3>도 개인적 특성과 경험이 작품 해석에 영향을 미침을 보여준다. 물론 이렇게 수용자 중심으로 작품을 해석하는 것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제시문 1>은 니체가 사용한 '초인' 개념을 나치당이 악용한 사례를 소개하며 작위적 해석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하지만, 이는 다소 극단적인 사례로 예술 작품의 주관적 해석이 항상 극단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작품을 시의적절하게 해석하고 재구성하는 시도는 존중되어야 하며 지속될 필요가 있다.



| 인문사회과학캠퍼스 |

0306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 T. 02.760.0114

| 자연과학캠퍼스 |

16419 경기도 수원시 잠안구 서부로 2066 / T. 031.290.5114

| 입학처 |

T. 02.760.1000

본 출판물은 수강생의 학습 지원을 위해 제작된 것으로, 영리 목적이나
상업적 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또한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